



Poeun festival 2007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보고



용인문화원 · 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보고



기념식



산신제 및 고유제



상여놀이대회



포은 연극제

제5회 포은문학제 평가보고



추모제례



추모제례



천장행렬(상여)



천장행렬(만장)

제5회 포은문학제 평가보고



전국한시백일장대회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청소년백일장대회



사진전시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보고



기념공연



포은상산제



문화원 봉사단 먹거리장터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보고서를 펴내며

포은문화제가 이제 5회를 지났습니다. 포은문화제는 포은 정몽주선생이 2003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6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도,시비를 지원받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일부 생각이 다른 이들의 방해도 겪었지만 이제는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전국에 알려진 비중 있는 문화제가 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구호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송두리째 잃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센 외래문화의 도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포은문화제를 열어 우리의 문화를 다시 살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더욱 확실하게 정립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포은 정몽주선생은 우리 역사상 으뜸가는 충절의 표상이요, 충효를 행동의 실천하여 천추의 사표가 되신 분입니다. 포은문화제가 말로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하여,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충효를 근본덕목으로 한 정신적지주가 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열어주고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행사를 마치고 추진위원회 평가회를 통하여 결과물 간행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5회 포은문화제 종합보고서를 간행하면서 덧붙여 4회,3회,2회 및 1회의 참고자료로 간행하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5회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내용과 홍보물을 근거로 행사별 평가회의 내용과 종합평가 및 전망을 실었으며 1회부터 4회까지는 주요행사 요지와 대회입상작품, 행사사진, 그리고 분과별 평가회에서 토론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모두 엮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5회에 이르는 문화제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면서 포은문화제가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포은문화제의 씨를 뿌리고 가꾸신 홍재구 전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그 위에 피어난 꽃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기쁘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행정지원에 힘써주신 서정석 용인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추진위원장으로 고향 모현면의 명예를 걸고 포은문화제의 전반적인 행사 실무 운영을 맡아주신 조길생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지원과 영일정씨 문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산신제, 추모제례, 식사문제 등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정춘영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밖에도 문화원 임원, 문화예술 관계자, 공무원, 추진위원회 등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은선생의 유덕을 현양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포은문화제가 풍덕천에서 개성 선죽교까지 천장행렬이 이어지는 그 날까지 영원히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발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용인문화원장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보고

Contents

• 인사말	12
• 경과보고	17
• 행사개관	18
• 프로그램 일정	19
• 추진위원회 구성	20
• 프로그램 평가	21
• 종합평가 및 전망	85
• 부록 1	
홍보물/신문기사	88
• 부록 2	
2006년 제4회	104
2005년 제3회	117
2004년 제2회	130
2003년 제1회	141

대회사



이종민 용인문화원장

우리 국토의 핵이며 심장인 경기도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나가기위해 평소 애써주시는 김문수 지사님, 용인을 세계 최고로 지향하는 서정석 용인시장님, 조성욱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말 충신이며, 성리학에 대가이신 포은 정몽주 선생에 큰 덕망과 충절을 기리고져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은 1392년 개성 선죽교에서 정적에 의해 시해 되신 후, 황해도 풍덕군에 가매장되었다가 조선3대 태종조에 복권이 되신후, 고향인 영천으로 천장도중, 오늘 아침 상여가 출발한 풍덕천에서 다시 영천으로 떠나려는데 만장이 날려 이 묘역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기이 여겨 이곳에 와보니 개경 도읍을 바라보는 천하 명당이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포은 묘소를 경기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하고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포은선생 666주년 탄신을 기려 6월에 문화인물로 지정을 계기로 포은문화제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불사이군 불사이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 시대에 변절과 배신, 이념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대 정치사에 다시 새겨볼 덕목인 것도 같습니다.

국운이 쇠하여 쓰러져 가는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는 충절과 새 시대 창업에 걸림돌을 제거한 이방언 태종이 다시 복권을 시키고 충렬공을 시호를 내려 기리도록 한 큰 도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용인문화원에서는 급격히 도시화되고 발전하는 시세에 걸맞게 전통 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역사 재현을 통해 그 시대를 조명하며, 용인에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은 선생 일대기를 주제로 한 포은연극제가 어제 문예회관에서 열렸고, 학생 국악 경연대회, 상여놀이대회를 어제 풍덕천에서 펼쳤습니다.

오늘은 묘역에서 학생글짓기 대회가 열리고 있고, 전국한시백일장이 바로전에 끝나나 심사 중에 있습니다.

포은문화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천장행렬은 이 지역 출신이며, 서울 무형문화재21호인 박상옥 선생의 상여소리와 제례에 인간문화재이신 이형렬 선생이 주관하며, 악과 무는 포은선생의 후손이신 무형문화재 정재석 선생님이 철저한 고증과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은선생께서는 615년 전 음력4월4일에 돌아가셨고 바로 오늘이 음력 4월3일 제삿날 제례행사를 마쳤습니다.

학생은 물론 향교, 유림 및 전국 영일정씨 문중이 참여하고, 이곳을 교육장으로 정비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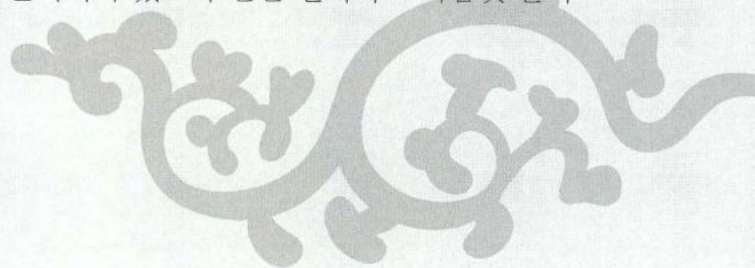
오늘 지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쪼개 어렵게 오셨는데, 선물하나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사장 뒤에 개인소유의 닭장이 있어 신성한 묘역에 흠이 되고 있습니다.

큰 선물을 주신다면 용인은 물론, 경기도 기념물 제1호이고 충절에 표상인 포은묘역을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불편없이 참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용인문화원에서 더 잘 준비하여 지사님을 모시는 영광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이 기념식이 끝나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잔 걸치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금번 문화제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신 서정석 용인시장, 이종민 문화원장님과 영일정씨 종약원, 용인문화원 관계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국각지에서 오신 유림과 귀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제5회 포은문화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포은 선생이 2003년 문화인물로 선정되면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포은문화제가 어느새 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동방성리학의 시조로 뛰어난 학문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등의 요직에 등용되었으며, 고려왕조만을 섬기려는 절개를 지키려다 희생되신 우리 역사에서 충절의 표상으로 이름을 높이신 분입니다.

가치있는 전통 가치관이 퇴색되어 가는 요즘에 정몽주 선생 묘역에서, 철저한 고증에 의한 추모제례와 천장행렬, 한시대회 등 다채로운 역사문화 축제가 열리는 것은 충절을 되새길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육성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은문화제가 전통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드리면서, 행사를 찾아주신 분들께서는 살기좋은 용인의 인심과 관광명소등을 둘러보시고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사



서정석 용인시장

푸르름이 생동감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오늘,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하고 포은문화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직접 참석하여 주신 김문수경기도지사님께 80만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또한 이번 문화제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신 이종민 문화원장님과 영일정씨 종약원 그리고 문화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각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해 주신 유럽과 귀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제5회 포은문화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은 선생이 2003년 문화인물로 선정되면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포은문화제가 어느새 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동방성리학의 시조로 뛰어난 학문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등의 요직에 등용되었으며, 고려왕조만을 섬기려는 절개를 지키려다 희생되신 우리 역사에서 충절의 표상으로 이름을 높이신 분이십니다.

전승의 가치관이 퇴색되어 가는 요즘에 선생이 모셔져 있는 이 곳 능원리 묘역에서, 철저한 고증에 의한 추모제례와 천장행렬, 한시대회등 다채로운 역사문화 축제가 열리는 것은 충절을 되새길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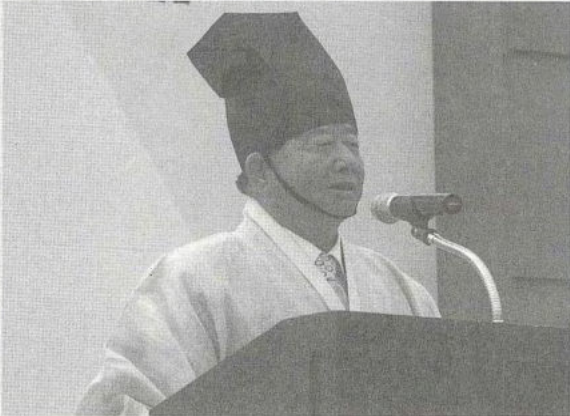
우리시는 앞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육성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해소해 나가면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문화행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도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이번 포은 문화제가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를 찾아주신 분들께서는 용인의 후한 인심과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시고 용인에 대한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정춘영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이사장

존경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경기도의회 장정은 부의장님, 서정석 용인시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기도의회 의원님, 용인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저희 영일정문 종친 어르신과 유림지도자 여러분, 용인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에는 저희 영일정씨 문중의 어른이신 정재철, 정창화, 정문화 전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다섯 번째 맞는 포은문화제는 '단심가'로 대변되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충효정신, 그리고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 고장 행사만이 아닌 전국규모의 문화축제 행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포은선생께서 선죽교에서 순절하신지 6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오늘 밤이 바로 돌아가신 기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은 포은선생의 높은 충효정신과 얼을 기리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다채로운 승모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포은선생 묘소가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1호인 만큼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바쁜 일정을 쪼개어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의회 장정은 부의장님, 서정석 용인시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기도의회 의원님, 용인시의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2. 경과보고



조길생 추진위원장

제5회 포은문화제 추진위원장 조길생입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80만 용인시민의 얼입니다.

2003년 문화관광부 6월의 문화 인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금년까지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문화제를 계기로 용인이 동방성리학의 성지로 재인식되고 선생의 위업을 재조명하는 뜻에서 주행사로 천장례 행렬, 추모제례 재현과 국악경연대회, 포은연극제, 전국한시백일장과 청소년백일장대회 및 전통문화 예술공연등을 부대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충효예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포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가 용인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매년 계승발전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행사개관

포은정몽주 선생은 80만 용인시민의 얼이자 정신적 지주이다.

포은문화제는 포은 정몽주선생이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6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선생을 추모하는 지역문화축제로 발전해 오고 있다.

포은문화제를 계기로 용인이 ‘동방성리학(東方性理學)의 성지(聖地)’로 재인식되길 기대하며, 포은 선생의 위업을 재조명하는 행사로 구성되었다.

주요행사로 포은선생 천장례(遷葬禮)행렬과 추모제례(追慕祭禮)의 재현은 용인이 동방의 예학(禮學)을 대표하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전국한시백일장대회, 상여놀이(선소리)대회, 청소년국악경연대회, 포은연극제, 청소년백일장대회, 포은상 시상 등과 여러 전통문화예술 공연은 용인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기에 충분하였다.

I. 행사개요

- 기 간 : 2007년 5월 18일(금) - 5월 19(토) 2일간
- 장 소 :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묘역, 여성회관, 수지새마을공원, 문예회관
- 주 최 : 용인문화원
- 주 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 후 원 : 용인시, 용인시의회, 용인경찰서, 경기도용인교육청,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
- 협 찬 :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주)서울레이크사이드, GBC-KCN,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용인예총, 충렬서원, 용인향교, 심곡서원, 양지향교, 용인축산농협, 용인모범운전자회

포은문화제 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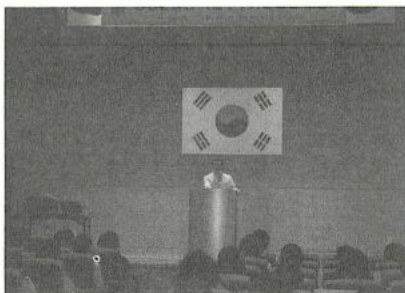
명예대회장	용인시장
대 회 장	용인문화원장
추진위원회	문화원 이사, 문화위원, 문화관광과, 지역신문사, 무형문화재 보유자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 이사장, 이사, 포은문화제 운영위원회

4. 프로그램 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장 소	주 관
전야행사 5월 18일 (금)	09:00-10:00	산신, 고유제	포은문화제행사 개막을 고하는 절차	포은선생묘역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10:00-13:00	상여놀이 (선소리)대회	용인관내 상여(선소리)대회	수지새마을공원	분과별 추진위원회
	14:00-17:30	청소년국악경대회	성악,기악부문 경연대회	수지여성회관 (큰어울마당)	
	19:30-21:30	포은 연극제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용인문예회관	
본 행사 5월 19일 (토)	09:30-12:00	포은선생 천장행렬	천장례 재현 (상여행렬)	1차:새마을공원 ⇒수지구청 2차:모현선죽교 ⇒묘역행사장분과별	분과별 추진위원회
	10:00-12:00	전국한시 백일장대회	시제 : 回憶 丹心歌	묘역행사장	
	10:00-15:00	청소년백일장대회	초등4-6년, 중등부,고등부 글짓기대회		
	12:00-13:30	포은선생 추모제례	포은선생치제(致祭) 재현	포은선생묘역	
	13:40-14:10	기 념 식	포은상 시상 (충·효·예)	묘역행사장 가설무대	
	14:20-15:30	상 산 제	상산제 재현	묘역행사장 가설무대	
	15:40-17:40	시상 및 공연행사	한시·백일장 시상식 민속공연 (사물,합창,민요명창)		
	17:50-18:00	폐 회			

5. 추진위원회 구성

연번	직위	성명	주 소	연락처	비고
1	위원장	조길생	용인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153-1	011-479-4640	문화원 이사
2	위 원	김장호	처인 이동면 천리 신미주 110-1102	010-8433-7574	문화원 이사
3	위 원	이형열	용인 처인구 포곡면 유운리	011-9077-5222	무형문화재
4	위 원	정양화	처인 김량장동193 미성(아) 1206	016-250-1504	연구소장
5	위 원	정연석	서울 동대문 용두동 234-1 포은화관	011-215-6519	종약원 이사
6	위 원	이시우	용인 처인구 이동면 천리 627	011-313-2853	문화원
7	위 원	홍순석	용인 처인구 마평동 신평	011-721-7970	강남대 교수
8	위 원	우상표	용인 처인구 역북동 721-2	016-346-2257	시민신문대표
9	위 원	박상섭	용인시 문화관광과	017-236-1894	문화관광과장
10	위 원	김장환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325-15	016-760-0881	의제21사무국장
11	위 원	이오규	기흥 상갈동 461 대우현대(아)109-704	011-304-2592	용인대 교수
12	위 원	정춘영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173	011-9916-6248	종약원이사장
13	위 원	정연철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031-322-0813	영일정씨문중
14	위 원	손대영	용인 처인구 남동	017-722-3126	문화원 이사
15	위 원	이종구	용인 기흥구 지곡동 243	018-245-7863	문화원 이사
16	위 원	유성관	마평동 미래아트빌라 A 202	011-345-5427	대동굿보존회장
17	위 원	박환신	기흥구 동백동 코아루(아) 2204-604	011-325-4826	문화원 국장
18	간 사	유병의	처인 김량장동 325-1 A-202	010-3346-1861	문화원 과장



6. 프로그램 평가

1. 상여놀이(선소리)대회

(1)의의 및 방향

-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떠나는 의례인 상례문화는 각 나라 또는 지역마다 그 특성이 다양하며, 그 결정판인 운구절차에 있어서의 선소리는 상례문화를 상징함. 따라서 잊혀져 가는 우리고장의 상여놀이 경연을 통하여 상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함
- 상례 의식이 가지는 「죽음의 문화」라는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인간의 통과의례중 하나이자, 「생거와 사거의 용인」이라는 지역 상징성과 포은문화제의 의미를 살려, 특색 있는 축제 테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 상례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포은문화제의 주관심사인 천장행렬시 이 대회의 우승팀이 주도하게 함으로써 참여팀의 경쟁심과 우승팀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국적인 민속놀이로써 확대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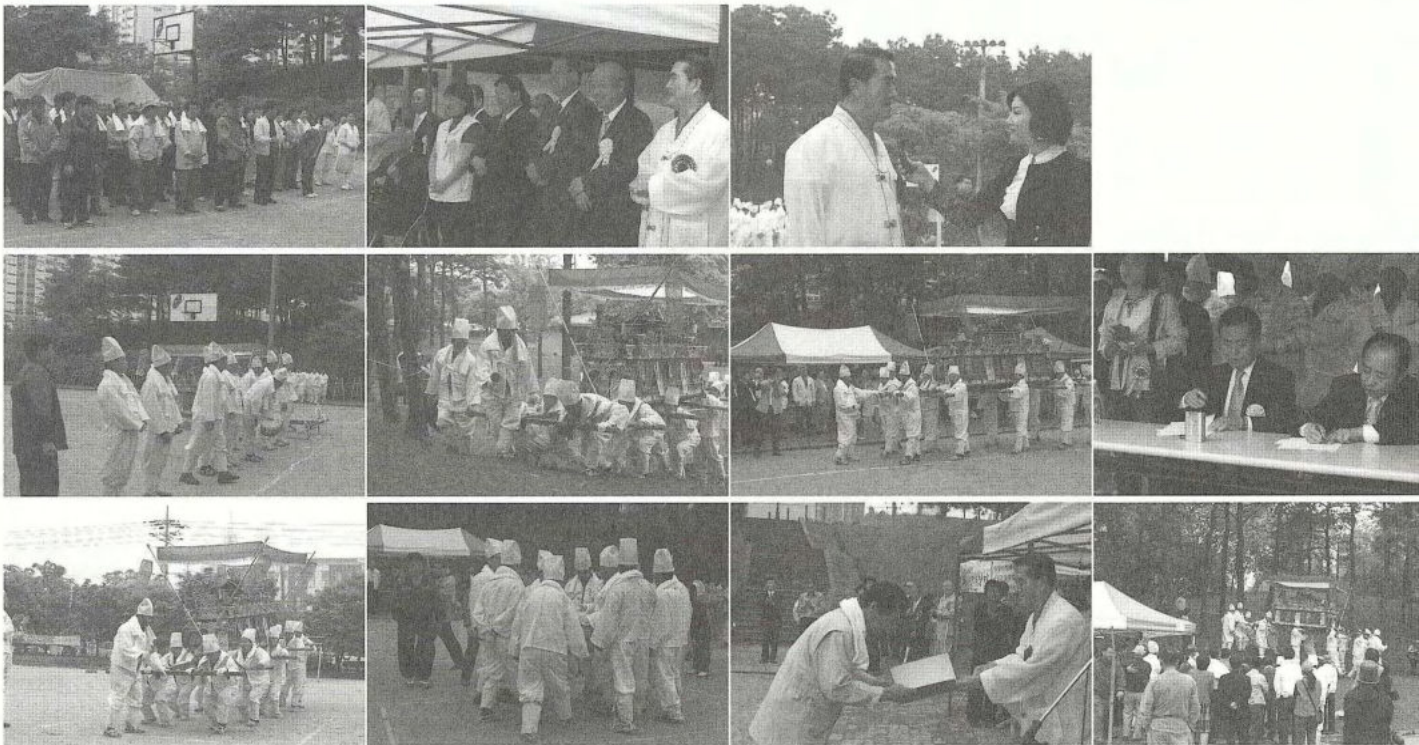
-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요일) 10:00~12:00
- 장 소 : 수지 풍덕천1동 새마을공원
- 참가대상 : 용인시관내 상여꾼 유경험자
- 참가인원 : 선소리꾼포함 상여꾼 10명 기준
- 참가신청 : 2007년 5월 1일(월) - 11일(금) 17:00까지
- 행사도구 : 상여는 행사본부에서 마련한 8명용 상여 사용
- 진행방법
 - 선소리꾼이 이끌어야 함이 원칙
 - 기술적 방법은 통상적인 절차로 발인전 발맞추기, 상여 · 상주 맞절하기, 보통걸음(평보)가기, 개울건너기, 논두렁가기, 빠른걸음가기 등을 연출하여함
 - 복장은 행사본부에서 제공하는 일반 민복에 건과 행전을 착용
- 심사기준
 - 상여소리(선소리 · 받느소리), 전체적인 조화, 각 코스별 대처 능력, 팀당30분
- 심사위원 : 박상옥 서울시무형문화재21호
정인삼 한국민속촌농악단장
- 참가팀 : 지역별5팀
 - 이동면팀(대표 김남선) / 포곡읍팀(대표 황영애)
 - 고림동팀(대표 정해웅) / 신갈동팀(대표 이주명) / 구성동팀(대표 임춘복)

(3) 시상내역

지역명	대표자명	연락처	상 금(원)
이동면팀	김남선	011-9961-7115	1,500,000
포곡읍팀	황영애	김인선 011-349-5425	1,200,000
고림동팀	정해웅	011-231-1955	1,000,000
신갈동팀	이주명	011-801-0102	1,000,000
구성동팀	임춘복	017-392-7672	1,000,000
합 계	5팀		5,700,000

(4) 평가 및 개선방향

- 사전준비 미흡,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상호 협조관계 지속
- 행사의 의의, 목적, 심사방법 설명과 선소리꾼 가사를 미리 관객들에게 유인물 배부로 이해 도모
- 관내 동부권 지역에서도 상여(선소리꾼)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관계로 대회 참여팀 한계→참여 유도로 시상금 과다지출→경기도 대회로 확대, 개편 방안 모색
- 새마을공원 특성상 장소도 좁고 둘러쌓인 나무들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에 부적합,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이동 불편
- 상여참여자, 관계자로 주변 아파트 시민들의 관심끌기에 역부족→하천변, 인구이동이 잦은 장소 고려
- 외나무다리 판넬에 천을 깔아 사진이나 행사를 돋보이게 연출
- 대회차원보다는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참여하는 행사유도
- 지역의 한계로 선소리 수준 대동소이→ 특색있는 선소리 개발하기엔 역부족



2. 청소년국악경연대회

(1)의의 및 방향

- 전통문화의 보존전승과 우리음악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국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자랑스런 문화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게 함.

(2)개 요

-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요일) 14:00~17:30
- 장 소 : 수지구 용인시 여성회관 큰어울마당
- 참가대상 : 용인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경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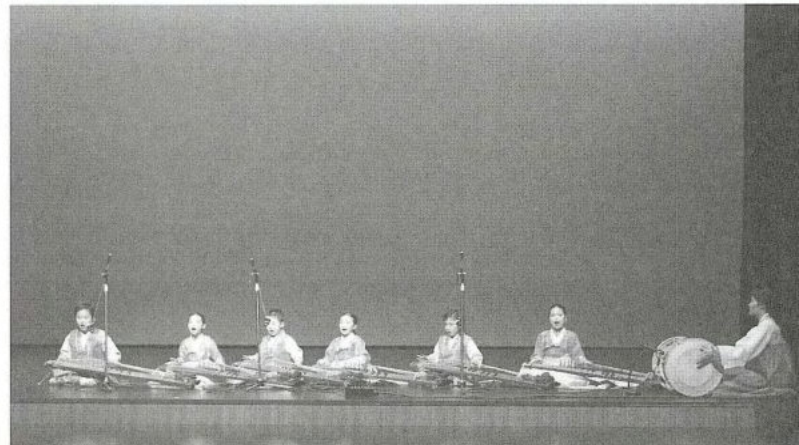
구 분	참가부문	특 기 사 항	비 고
성 악	정가	자유곡, 고수 대동(반주CD 포함)	※복수지원 불가 ※연주제한시간 성악부문: 5분 기악부문: 10분
	민요	자유곡, 고수 대동(반주CD 포함)	
	판소리	자유곡, 고수 대동	
	가야금병창	자유곡	
기 악	단소합주	자유곡	
	가야금합주	자유곡	
	기악합주	자유곡	
	사물(풍물)놀이		

- 경연순서 : 정가, 판소리, 가야금 병창, 민요, 단소 및 가야금 합주, 사물(풍물)놀이 순으로 경연하며, 경연 순서는 13:00 행사장에서 추첨으로 결정
- 심사위원 : 정연경 성남 국악관현악단원
박성아 경기도립국악단원
김승애 경기도립국악단원
- 참가현황

참가부문	참가형태(개인,단체)	참가부문	참가형태(개인,단체)
민요	개인5, 단체1	가야금병창	단체 1
판소리	개인 1	가야금합주	단체 3
가야금산조	개인 2	단소합주	단체 2
가야금독주	개인 1	기악합주	단체 2
거문고독주	개인 1	사물놀이	단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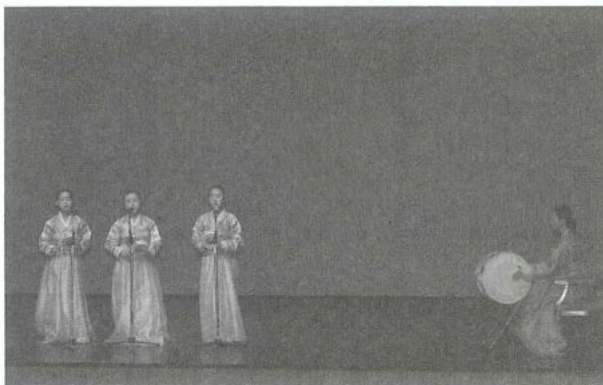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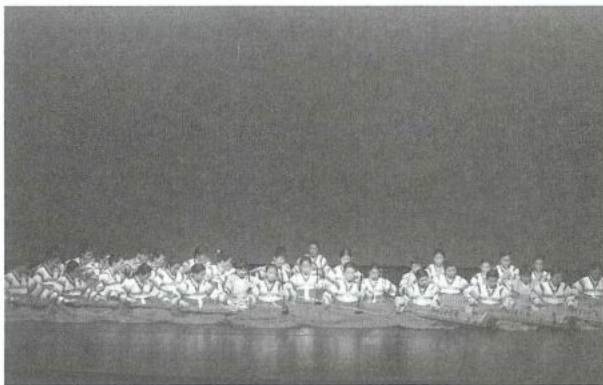
(3) 시상내역

상명	인원	학교명	부문	상금(원)	상격
대상	1	남사중 왕은정의	사물놀이	300,000	용인교육장
금상	2	서릉초교3년 이다은	가야금산조	200,000	용인교육장
		서원중3년 박윤정의	가야금합주	200,000	
은상	4	갈곡초 임주리	민요	100,000	용인교육장
		현암고 이윤미	판소리	100,000	
		역북초 고현정의	단소합주	100,000	
		서천초 서한이의	사물놀이	100,000	
동상	7	보라초6년 김현지	민요	50,000	용인문화원
		장구성고3년 박민주	거문고독주	50,000	
		용인초 김희진의	가야금병창	50,000	
		신릉초1년 정유진의	가야금합주	50,000	
		나곡중2년 이설영의	가야금합주	50,000	
		구성중 오태훈의	기악합주	50,000	
		동백초 박민수의	사물놀이	50,000	
장려상	7	보라초4년 김태용	민요	30,000	용인문화원
		장보라초5년 조영	민요	30,000	
		보라초5년 조선	민요	30,000	
		나곡중3년 이애리	가야금산조	30,000	
		용동중1년 노유림	가야금독주	30,000	
		갈곡초3년 김법기외1	단소합주	30,000	
		현암고 최연호외	기악합주	30,000	
합계	21			1,660,000	



(4) 평가 및 개선방향

- 대회진행, 심사, 시상 등 문제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
- 상여놀이대회 끝나고 준비시간 부족으로 현수막 없이 대회진행, 시간계획보다 지연되어 기념품 배부 및 차량 계획 차질
-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연습차 객석을 채우지 못하여 관람객 부족
- 국악을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참가부문의 제한으로 참가자 저조→출연부문을 확대 개편하여 국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국악인의 축제 한마당으로 대회 문 개방 요구
-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과 점검으로 매년 같은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



3. 포은 연극제

(1)의의 및 방향

- 제4회 포은문화제 평가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으로 포은선생의 사상을 재조명하고 잊혀져 가는 충효예 정신을 창작극으로 연극화함
- 용인의 정신적 역사적 문화인물로 부각시켜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하며, 선생의 업적을 통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체험의 현장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역사적 자긍심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포은문화제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제공

(2)개 요

-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 19:30-21:30
- 장 소 : 용인시 문예회관 대공연장
- 주 제 : 포은선생의 일대기
- 장 르 : 포은정몽주 창작극
- 제 목 :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어찌 신하가 두 왕조, 두 임금을 섬길 수 있으랴!)
- 주 관 : 극단 새벽(단장 한원식)
- 작 · 연출 : 한원식

(3)작 · 연출의 글

-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충절의 대표적인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정몽주 선생의 일대기를 한편의 작품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부담이 있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영원토록 남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편의 연극으로 정몽주 선생의 업적을 표현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위대한 성리학자로, 뛰어난 정치가로, 유능한 외교가로서 선생의 업적이 너무 많았기에 많은 고민을 하였다.

연극적 표현양식인 갈등과 대립의 구조 속에서 구성해야 하는 고민 끝에 1388년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하여 1392년 선죽교까지 4년이라는 시간으로 고려사의 마지막 혼돈기를 표현하여 충절을 중심으로 그렸다.

많이 아쉬운 것은 1337년부터 1388년까지 외교가로, 정치가로, 유능한 성리학자로 표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음에 미루고 4년간의 격동의 시간속에서 정몽주선생의 충절을 주제로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현대에 사는 우리가 정몽주선생의 업적과 충절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본받아야할지 가슴으로 체험하였다.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정몽주 선생의 삶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을 통해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자긍심과 문화예술의 향유, 그리고 포은문화제의 가치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4) 작품줄거리

○ 명태조의 무리한 조공요구와 철령 이복땅 철령위를 설치한다고 주장하자 우왕은 요동정벌을 명하고, 이성계는 4불가론을 내세우며 전쟁의 불가함을 주장하지만 최영에 의해 요동정벌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성계는 좌군도통사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궁궐을 장악하고 우왕을 폐위하여 우왕의 아들 창을 옹립한다. 그때 왕의 나이 9세이다.

정몽주는 백성의 궁핍함과 어지러운 정국을 걱정하며, 이성계와 대립하고 후배 우현과 함께 성리학의 논리를 백성들에게 널리 전한다.

이때, 여주에서 유배중이던 우왕에게 최영의 생질인 김저가 찾아오고 우왕은 평소에 신임했던 곽충보와 함께 이성계를 도모하라 명하지만 곽충보의 배신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고려왕조의 혈통이 아닌 역적 신돈의 혈통이라 주장하는 정도전에 의해 창왕이 폐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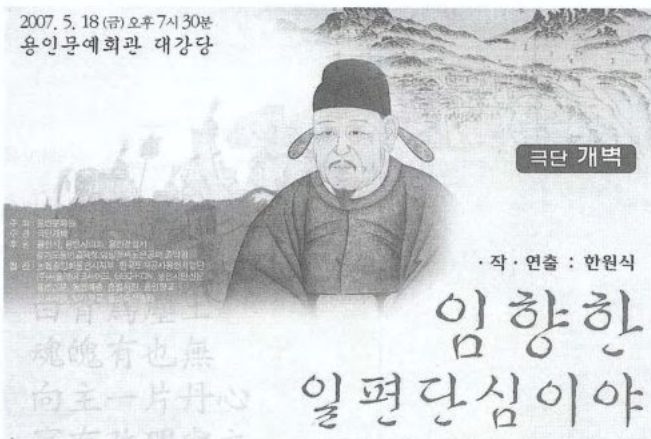
정몽주와 유학 선후배사이인 정도전은 스승인 이색마저 윤이·이초사건에 연루시켜 도모하려 하고 정몽주와 대립한다. 정몽주는 새로 옹립된 공양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고려왕조를 지키려 하지만 왕은 나약하여 정도전의 계산에 의해 우왕과 창왕을 죽이라는 교서를 내린다.

정몽주와 정도전이 끝없이 대립하고 이성계가 사냥도중 해주에서 낙마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려왕조를 지켜낼 마지막 기회라 여긴 정몽주는 이성계의 측근인 정도전과 조준 등을 유배보내고 역성혁명을 노리는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하지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의 치밀한 계략속에서 이성계가 돌아온다.

고려왕조의 충성을 다짐하고 이성계의 집을 찾아간 정몽주는 하여가를 읊조리며 회유하는 이방원에게 단심가를 부르며 저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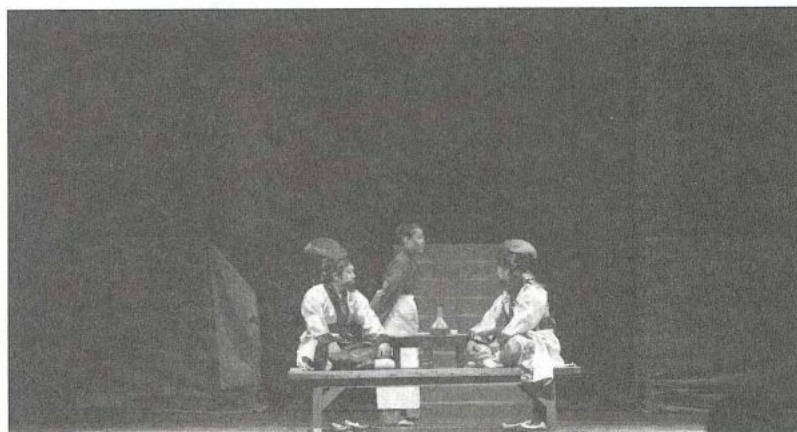
이에 분노한 이방원은 조영규에게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죽이라 명하고 고려 왕조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조영규에게 죽음을 맞는다

1392년 4월 4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충신은 고려왕조를 끝까지 지켜내려다 끝내 운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다. 경기도 용인땅에서 수 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충절이란 두 글자를 새겨 넣고 있는 것이다.



(5)평가 및 개선방향

- 늦은 계획으로 타 행사비 절감으로 예산수립→준비기간 짧고, 홍보 부족
- 연출, 각본, 시나리오의 전면적인 개편과 공연시간 단축으로 역사적 업적과 사상을 토대로 한 흥미와 관심을 끌수있는 스토리가 요구됨
- 홍보부족, 관람객 저조→ 학생, 문화가족, 합창단원 동원에 대한 아쉬움
- 포은선생의 일대기를 극화하여 사상과 뜻은 교육적 가치를 더해주나 지속적인 연극제 개최는 관객에게 문화공연 접근성에 한계를 느낌



4. 천장행렬

(1)의의 및 배경

○ 포은 정몽주선생은 기울어 가는 고려왕조를 회생시키려다 개성 선죽교에서 희생되었다. 그때 나이 56세였다. 순절한지 9년 후에야 비로소 선생의 충절과 학문이 인정되었다. 조선 태종 즉위년(1401)에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와 익양군충의백(益陽郡忠義伯)의 작훈을 내렸다. 태종 6년(1406) 3월에는 개성의 해풍(풍덕)에 초장하였던 묘소를 지금의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기슭으로 옮겨, 부인 경주이씨와 합장하였다. 본래는 포은의 면례지가 능원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포은 선생이 신원(伸冤)되자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천장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면례 행렬이 지금의 수지읍 풍덕천에 이르렀을 때 신이한 일이 생겼다. 앞에 내세웠던 명정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면례꾼들이 따라가 보니 그 명정은 지금의 묘역에 떨어졌다. 지관을 불러 확인해보니 보기 드문 명당이였다. 여러 사람들과 숙의한 끝에 포은선생의 뜻으로 알고 그곳에 장례를 모시기로 하였다. 이야말로 포은선생의 넋이 점지한 명당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로 인하여 포은선생의 묘소를 용인에 모시게 된 것이다. 그 후 그의 후손들이 묘막을 짓고 살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날 능원리는 영일정씨의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포은선생의 묘소와 관련된 지명으로, 수지읍에 풍덕내가 있다. 이는 본래 “풍덕에서 오신다(豐德來)”는 뜻에서 비롯하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오신다'의 뜻인 '來'가 후대에 '내(川)'로 변이된 것이다. 포은선생 천장행렬을 풍덕천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에 연유한 발상이다.

(2)개 요

○ 일 시 : 2007. 5. 19(토) 09:3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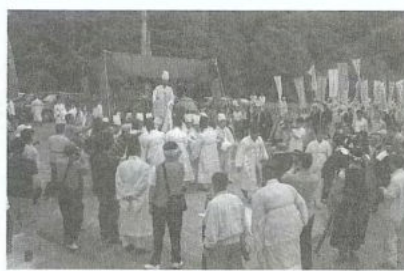
○ 장 소

-제1행렬구간 : 풍덕천1동 새마을공원 출발(09:30)→수지구청앞 하차 (10:10)

【차량이동구간 : 수지구청앞(10:30)→능원초등학교 앞까지(11:20)】

-제2행렬구간 : 능원리 선죽교 출발(11:30)→포은선생 묘역 행사장 도착(12:00)

○ 참여인원(250명) : 모현중학교 취타대50명, 상여꾼30명,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종인50명, 문화원풍물단30명, 민예총풍물단30명, 기타50명



(3)일 정

○ 상여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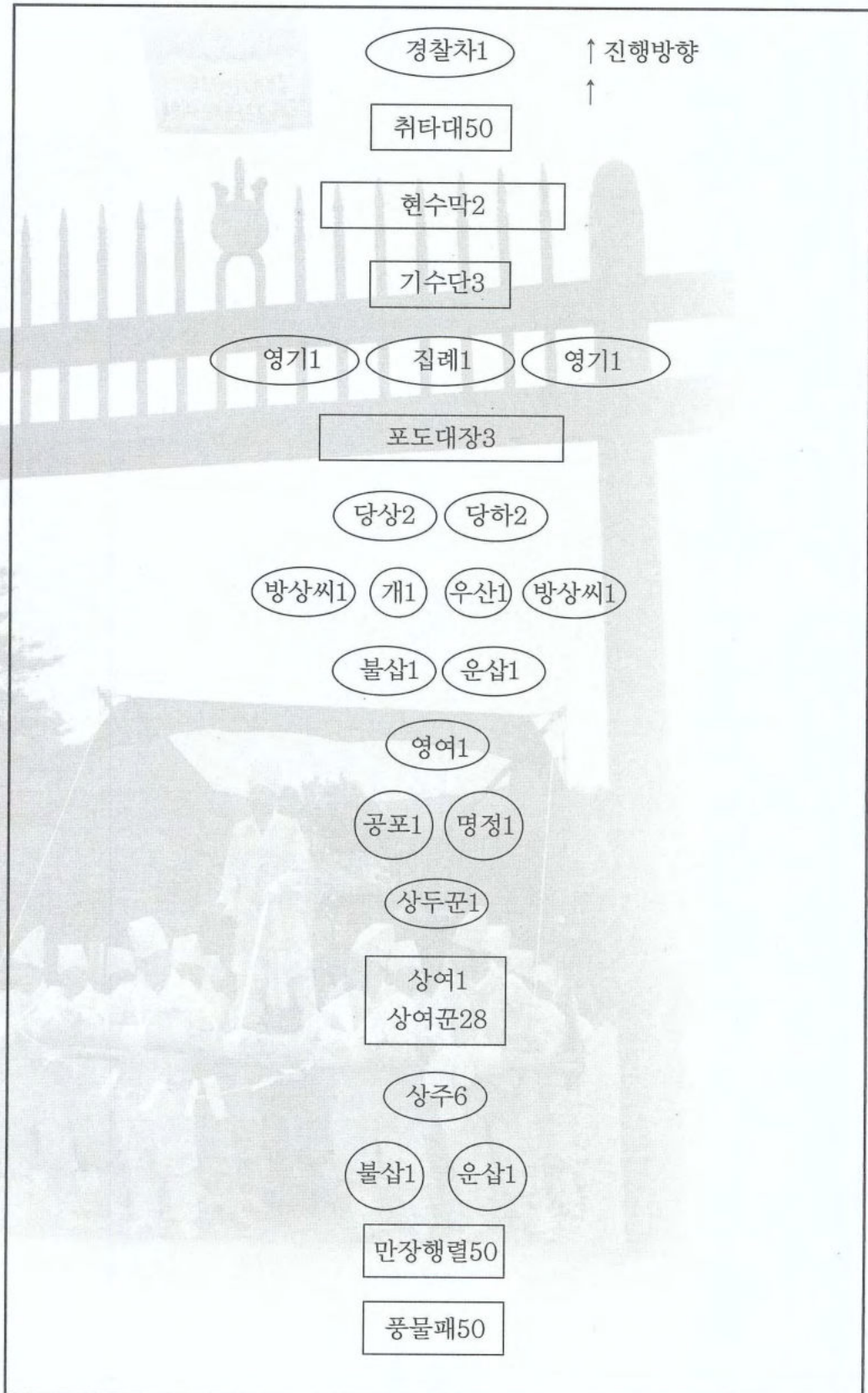
집례관(執禮官), 관인(官人)5, 방상씨(方相氏)2, 개(蓋), 양산(陽傘), 금전은전, 불삼(黻裳)1, 운삼(雲裳)1, 영여(靈輿), 공포(功布), 명정(銘旌), 영정, 만장(挽章), 선소리꾼, 상여, 불삼(2), 운삼(2), 상주, 만장, 후손 및 조객, 풍물단, 기타참여객

○ 천장행렬 구성원

- 집례관(執禮官), 관인(官人): 집례관은 관료의 천장을 집례 하는 대표로 맨 앞장에 서며, 관인은 집례관 뒤에 좌우 배열하여 상여를 인도한다.
- 방상씨(方相氏) : 상여 앞에서 잡귀를 쫓는 이다. 눈을 부릅뜬 무서운 형상으로 대부(大夫) 벼슬을 한 사람은 눈이 넷 달린 것을 쓰고, 일반인은 둘 달린 것을 쓴다.
- 개(蓋)와 양산(陽傘) : 개와 양산 모두 본래의 목적보다는 신분을 표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 영여(靈輿) : 혼백을 모시는 작은 상여로 2인이 맨다. 영정은 고인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전에는 혼백상자를 영여에 모시고 상여 앞에서 행렬하였다.
- 공포(功布) : 관을 문을 때 관을 닦는데 쓰는 삼베 형겅으로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서 들고 간다.
- 명정(銘旌) :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본관, 성씨 따위를 기록한 붉은 형겅으로서 널 위에 편다. 상여행렬 때는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서 들고 간다.
- 만장(挽章) : 고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지어 비단 폭에 써서 명정과 형식으로 꾸며 상여 행렬에 따른다.
- 불삼(黻裳)과 운삼(雲裳): 불삼은 '亞' 자를 닮은 형태를 그리고, 운삼은 구름무늬를 앞뒤로 그린 네모나 패로, 긴 자루 끝에 달아맨다. 한 쌍씩 상여 앞뒤로 서서 웅위하여 나아간다.



○ 천장행렬 구성원



(4)물품 준비사항

구분	준비물품	수량	비 고
취타대	취타대복장	50	모현중학교 취타대 준비
행사복	장금관조복	1조	사무국준비
	포도대장관복	3조	전립(戰笠) 및 지휘봉 포함 일체
	굴건제복	6조	상장(喪杖) 및 복장일체
	민복(백색)	49벌	현수막2, 방상씨2, 영여2, 명정공포2, 상여꾼28,(이상겉옷), 포도대장3, 집례1, 상주6,(이상내부착용)
	민복(황색)	55벌	개,산(傘)2, 운삼불삼2,상두꾼1, 만장꾼50,(이상겉옷)
	덕거리	39	현수막꾼, 방상씨, 영여, 명정공포, 상여꾼(겉에 착용)
	건(巾)	79	상두꾼, 상여꾼, 만장꾼 착용
	행전	79	상두꾼, 상여꾼, 만장꾼 착용
	짚신	100	현수막꾼, 방상씨, 영여, 명정공포, 상두꾼, 상여꾼, 상주, 만장
행사용품	칼(목제)	2	방상씨용
	방상씨탈	2	방상씨용
	현수막	2	제5회포은문화제 표시
	태극기	1조	
	용인시기	1조	
	용인문화원기	1조	
	개(蓋)	1개	
	우산(雨傘)	1개	
	운삼(雲裳)	1개	
	불삼(黻裳)	1개	
	영여(靈輿)	1개	
	명정(銘旌)	1개	
	공포(功布)	1개	
	상여(喪輿)	1대	조립1 세트분
	만장(輓章)	50개	

(5)평가 및 개선방향

- 참여인원의 고질적인 문제발생→학생, 군인, 일반인 동원
- 지휘자 혼자 300명을 지휘하기엔 역부족, 보조 지휘자(앞, 중간, 뒤)배치, 추진위원 책임자 전담
- 출발지 새마을 공원 면적 부족, 의복 미리 배부, 의복 도우미 전담, 출발후 마무리 기물 수거 책임자 교체 미약
- 도로상 문제, 경찰동원 미비, 4거리 신호차단으로 행렬 분열
- 팀장과 출연팀, 보조지휘자, 전담 추진위원간 커뮤니케이션 부재
- 대회장, 추진위원장은 총괄지휘자로 천장행렬 제복(금관조복)은 사양하고 총체적 행사 지휘, 관리요구
- 총지휘자의 포도대장 복장, 승려 영기 부적합
- 음료수, 식수의 고질적인 문제 발생, 인원운송차량 시간차질로 혼란



(6)상장례 운구(運柩)용품 전시

○ 상장례의 절차



○ 상장례 용품의 분류

- 음식
- 계수용구
- 습렴용구
- 수의류
- 상복류
- 운구용구
- 화장용구
- 부장용품

○ 방상(方相)



옛날 세 밑에 전염병을 옮긴다는 귀신인 역귀(疫鬼)를 쫓는 나례(儼禮)에서의 한 역할을 맡은 '방상씨(方相氏)'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덤 구덩이 안의 역귀를 쫓기 위해 탈처럼 만들고 사람이 이를 뒤집어 쓴 것이다. 관위(官位)가 4품 이상이면 눈이 네 개 있는 방상씨로 하고, 5품 이하면 눈이 두 개 있는 기두로 한다. 송판(松板)이나 종이를 사용하여 얼굴 모양을 파거나 만들고, 그 위에 이마와 눈썹, 코와 귀를 따로 만들어 붙이며, 귀에는 귀고리를 단다. 눈은 네 개로 파서 황금색을 칠하며, 눈썹은 방상씨탈은 두 개 또는 네 개를 만들어 이것을 사람들이 나누어 쓰고 곰의 가죽을 뒤집어쓴 뒤 도사(道士)의 복장처럼 검은 옷과 붉은 치마를 입으며, 오른손에는 창, 왼손에는 방패를 잡고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수레를 타고 가며 방패를 휘두르고 잡귀를 쫓는 행위를 한다. 장지에 이르러서는 광(曠)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가져온 창으로 광중의 네 귀퉁이를 치면서 악귀를 쫓는 행위를 한다. 장례가 끝나면 방상씨탈은 무덤 구덩이 속에 묻거나 태워버리고, 장례 때마다 새로 만들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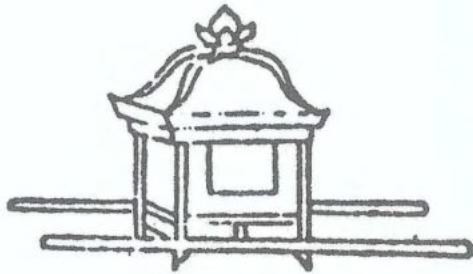


○ 명정(銘旌)



돌아간 이의 직함, 이름 따위를 쓴 깃발모양의 천이다. 유교 경전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곧 돌아간 이의 영혼을 모시는 또 하나의 표지인 셈이다. 붉은 색 비단으로 너비는 온 폭(약 60cm)으로 하되, 옛날에는 계급에 따라 그 크기가 달랐다. 곧 임금의 경우 아홉 자(약 270cm), 제후는 일곱 자(210cm), 대부는 석 자(약 90cm), 그리고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반쪽 너비에 크기는 한 자(약 30cm)로 하였다고 한다. 글씨는 짚이나 밀가루에 아교를 섞어서 쓴다. 대렴(大殮)이 끝나고 나면 영좌(靈座)의 동쪽에 대나무로 깃대를 만들고 받침대를 만들어 세워둔다. 발인을 할 때에는 방상(方相)명기(明器)와 함께 맨 앞에 서며, 긴 장대를 매달아 깃발처럼 들고 간다. 명정의 꼬트머리는 화려하게 꾸미고, 하관(下棺)할 때에는 관 위에 덮어 함께 묻는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직함을 좇아서 쓴다.

○ 영여(靈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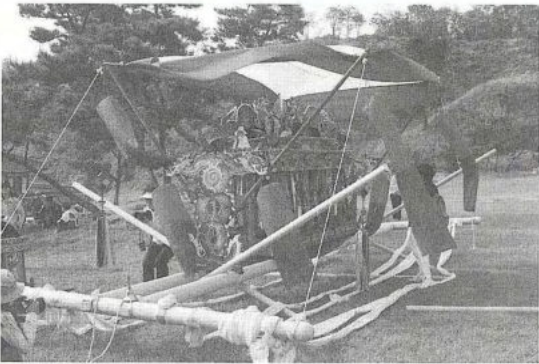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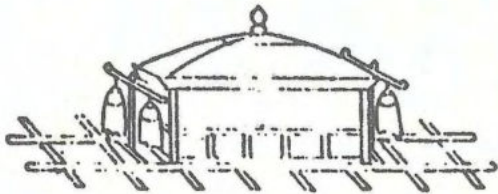
반혼(返魂)할 때에도 영여에 싣고 와서 다시 빈소에 모셔둔다. 돌아간 이의 영혼이 신발과 함께 빈소에 모셔져 있음을 상징하려는 까닭이다. 뒷면에는 태극을 그려놓는데 음(陰)과 양(陽)을 뜻하는 것이다. 장례행렬에서 영여가 상여의 앞에 서가는 까닭은 영혼이 육신에 비해 우선한다는 가치부여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의 분리와 함께 저승과 이승을 나누어 인식하는 이원적

돌아간 이의 직함, 이름 따위를 쓴 깃발모양의 천이다. 유교 경전에 따르면 죽은 사람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곧 돌아간 이의 영혼을 모시는 또 하나의 표지인 셈이다. 붉은 색 비단으로 너비는 온 폭(약 60cm)으로 하되, 옛날에는 계급에 따라 그 크기가 달랐다. 곧 임금의 경우 아홉 자(약 270cm), 제후는 일곱 자(210cm), 대부는 석 자(약 90cm), 그리고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반쪽 너비에 크기는 한

혼백(魂帛)을 옮기기 위해 만든 가마이다. 혼백은 돌아간 이의 영혼이 깃든 물건이기에 주검을 옮기는 상여(喪輿)와 따로 분리한 것이다. 두 명이 메듯이 앞뒤로 끈을 가위표로 엮어 어깨에 걸고 두 손으로는 가마채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든다. 여기에는 혼백상자, 향로, 영정 따위를 싣는다. 가마채가 허리 높이 정도 오기 때문에 요여(腰輿)라고도 한다. 영여의 지붕에는 녹색바탕에 붉은색의 연꽃 봉우리를 달고, 옆면에도 연꽃망울을 피지 않은 상태로 그려놓는다. 꽃은 대개 재생(再生)의 주술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여긴다. 게다가 연꽃은 영혼의 부활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정면에는 여단이문이 쌍으로 달려 있으며 문 앞에 흰 고무신 한 켤레를 얹어 두기도 한다. 영여에 신발의 주인이 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 신발은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영구차를 쓰면서도 영정(影幀)이나 혼백을 모신 차가 앞에 가는 까닭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 상여(喪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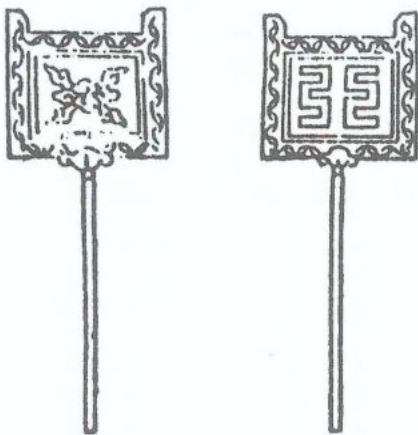


주검을 묘자리까지 옮기기 위한 가마이다. 상여라는 말은 우리나라 문헌에서 처음 나타나며, '대여(大輿)', '유거(柳車)'라고도 썼고, 중국에서는 '온량', '온량거', '영거(靈車)'라고 하였다. 상여의 열개는 장강(상여의 가운데에 있는 긴 멜대로 앞뒤로 길게 댄 기둥)을 중심으로 한 기본틀과 관을 얹는 소방상(小方牀), 그리고 관을 덮어 꾸미는 죽격(竹格)으로 나누어진다. 장강은 양끝을 가로지르는 횡강을 붙이고, 그 위에 다시 단강을 덧붙여서 기본틀을 만들거나, 또는 단강 위에 다시 소강을 덧붙여 만들며, 이 기본틀을 삼줄로 엮어 만든다. 소방상은 양옆에 둥근 기둥을 달아 장강 가운데의 구멍에 끼워달며, 그 두 기둥 윗부분에 네모난 구멍을 뚫어 횡경(가로로 된 빗장목)을 가로질러 끼우고, 기둥 밖으로 나온 횡경 끝에는 다시 소경을 질러 만든다. 그리고 두 기둥의 앞뒤에 따로 네 개의 기둥을 세워 죽격을 떠받치도록 한다. 죽격은 대나무로 틀을 만들어 비단을 둘러 감싸 만들고, 맨 위에는 연꽃 장식을 달며, 네 모퉁이에는 유소(流蘇 : 깃발이나 가마 등에 나는 술)를 단다. 옛날에는 죽격 대신에 유개(넓은 천으로 만든 덮개)를 쓰기도 했는데, 이 때에는 유개의 앞뒤에 네

개의 사롱(紗籠 : 천으로 만든 바구니처럼 생긴 등)을 매달고, 그 위에 양장(仰帳 : 넓은 천으로 만든 가리개의 하나)을 치기도 했으며, 소방상이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죽격은 운각(雲閣)이라도 하는데, 앞뒤에는 귀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용 두 마리가 앞뒤를 향해 서로 몸을 꼬고 있다. 그 위에는 범을 타고 있는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강림 도령이 차례로 용을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귀신의 얼굴, 용과 범은 주검을 보호하는 뜻이 있고,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강림 도령은 돌아간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편안하게 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오늘날에는 조립식 상여와 꽃상여가 많이 쓰이는데, 조립식 상여의 경우 일반에서 쓰이고 꽃상여의 경우에는 기독교와 불교에서 많이 쓰이며, 또는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없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집에서 쓴다고 한다. 그리고 한번 쓴 꽃상여는 장강만 놔두고 나머지 덮개나 꽃 따위는 장지에서 태워 없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립식 상여는 모두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데 소방상이 생략되고, 관을 얹는 부분과 덮개를 덮는 판점을 나누어 짜며, 판점에는 띠와 수실 드림으로 치장한 덮개를 두르고, 다시 그 위에 보개

로 불리는 별갑(鰐甲 : 자라의 등딱지처럼 만든 관을 가리는 상여의 지붕)을 씌운다. 별갑은 네 모서리마다 십자룡(十字龍)이라고 불리는 나무로 만든 용머리를 붙이고, 그 바로 아래는 어린이나 선녀(仙女)의 조각으로 꾸미며, 맨 위 한 가운데에 연꽃 모양의 연봉(蓮峰)을 붙이고, 그 위에는 양장을 씌운다. 꽃상여의 경우에는 장강 위에 대나무로 짠 틀을 세우고 그 곁에 흰종이로 만든 꽃을 달아 꾸미며 그 위에는 양장을 단다. 옛날에는 상여를 오늘날과 같이 사람이 메지 않고, 바퀴가 있는 수레에 올려 사람들이 끌거나 마소가 끌고 갔다고 하며, 묘소가 먼 경우에는 사람이 메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에서 마소가 꼭 끌고 갔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상여 대신 영구차가 그 몫을 대신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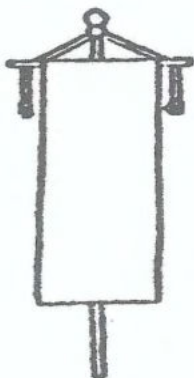
○ 삼선



발인(發靨)할 때 상여의 앞뒤에서 들고 가는 부채 모양의 도구로, 돌아간 이의 영혼을 무사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데 보삽·불삽·운삽(화삽이라고도 함)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본디 날짐승의 깃털로 만들었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너비는 두 자(약 60cm), 길이는 두 자 두 치(약 66cm)의 네모진 얇은 나무판에다가 흰 모시로 싸고 네 모서리는 뿔처럼 세우며, 그림은 보라색으로 그리고, 다섯 자(약 150cm) 길이의 자루를 달며, 그 위에 용머리를 달고, 긴 털로 꾸몄다고 한다. 보삽은 검은색과 흰색이 반반 섞인 빛으로 자루가 없는 도끼 모양의 무늬를 수놓은 것이다. 불삽은 검은색

과 청색이 반반 섞인 빛으로 '기(己)'자 두 개를 서로 맞대어 '아(亞)'자 모양을 띠고 있다. 운삽은 구름 모양 또는 구름 운(雲) 자를 그렸는데, 구름은 하늘을 뜻한다. 곧,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낮은 땅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보삽과 운삽은 상여의 앞에 서고 불삽은 상여의 뒤에 서며, 하관할 때 명정과 함께 묻는다.

○ 공포(功布)



관(棺)을 문기에 앞서 관 위의 먼지를 털고 닦는 데 쓰는 삼베 형꼴이다. 이 때 쓰이는 베는 대공이라 하여 굵은 베를 쓰기도 하지만 약간 고운 베를 쓰기도 한다. 발인하는 날에 잣물로 짠 베 석 자(약 90cm)를 준비하였다가 발인할 때 명정(銘旌)과 함께 영여(靈輿) 뒤 상여(喪輿) 앞에 세우고 간다.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여의 길잡이 역할을 하여 도로의 높고 낮음이 있을 때, 또 길을 좌우로 꺾일 때 공포로서 알린다.

○ 만장(輓章 · 挽章)



본디 죽은 이를 생각하며 우리나라는 슬프거나 애뜻한 마음을 적은 글인 만사(輓詞)에서 유래한 것으로, 만(輓)이란 앞에서 끈다는 뜻이다. 명주나 종이에 만사를 적고 기처럼 만들어서는 상여가 떠날 때 만장을 앞세워 장지로 향한다. 또한 돌아간 이가 살아있을 때의 공덕을 기려 저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한다. 만장의 길이와 너비는 규격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길이는 8자(약 240cm), 너비는 한

폭(약 60cm) 안팎으로 만들며, 색깔도 정해진 것이 없다. 만장의 위와 아래는 작은 축대를 쓰고 대나무로 깃대를 만든다. 깃대의 머리에는 약간의 꾸미개를 하고 아래쪽이 비었을 경우 연꽃무늬를 그려놓기도 한다. 장례 행렬에서는 반드시 영정(影幀)의 뒤를 따르게 하고, 장례를 마친 뒤에는 빈청(殯廳)에 보관하며, 돌아간 이의 문집 따위를 발간할 때 부록에 만사의 원문을 수록하기도 한다. 한편 만사의 규격은 일정하지 않으며, 한시(漢詩)의 경우 오언절구와 오언율시,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로 쓰기도 하지만, 고시체로 장문을 짓거나 4자체로 쓰는 경우도 있다. 내용은 대체로 돌아간 이의 학덕 · 이력 · 선행 · 문장 · 직위 따위에 대한 칭송과 만사를 지은이와 돌아간 이의 친분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안정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베푸는 나무 패이다. 옛날에는 우제(虞祭)의 신주는 뽕나무로 만들고 연제(練祭)를 지내고 난 뒤에는 밤나무로 만들었는데, 점차 밤나무 하나로만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밤나무의 경우 닭소리나 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깊은 산 속의 밤나무로, 웅이 없고 결이 좋은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 밤나무가 없으면 견고한 재질의 나무를 쓴다고 한다. 전통에 따라 장례 기간 안에 만들어 두었다가 매장을 마치고 난 뒤에 제주(題主 : 돌아간 이의 이름을 신주에 씌)를 하여 사당에 모신다. 돌아간 이의 영혼을 모시기 위해 신주를 세우기까지는 몇 차례의 다른 물건으로 신주를 대신하는데, 첫 번째로 사람이 돌아가서 초혼(招魂)을 행할 때에는 돌아간 이의 옷옷으로 하고, 두 번째로 습렴(襲殮)을 마친 뒤에는 혼백(魂帛)으로

하며 이 때 명정(銘旌)을 함께 세운다. 마지막으로 주검을 매장한 다음 비로소 신주를 만들어 사당에 모신다. 그리고 혼백은 빈소에 모시다가 대상(大祥)이 끝나면 태워버리고, 신주는 돌아간 이의 4대손이 모두 죽을 때까지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다가 무덤에 묻는다. 신주는 주신(主身)과 받침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주신은 앞쪽과 뒤쪽으로 나뉘는데, 합쳐서 이루어지며, 받침대에 끼우게 되어 있다. 신주의 높이는 주척(周尺 : 한 자가 약 21cm)으로 한 자 두 치(약 23.1cm)로 하는데, 이는 한 해 열 두 달을 뜻한다고 한다. 너비는 세 치(약 6.3cm), 두께는 한 치 두 푼(약 2.4cm)이며 그 두께의 1/3이 전신, 2/3가 후신이 되도록 만든다. 너비의 세 치는 30푼으로 한 달의 날수를 뜻하는 것이고, 두께의 한 치 두 푼은 12푼으로 하루의 시간을 뜻하는 것이다. 후신의 위는 양옆을 다섯 푼(약 1.4cm) 정도 깎아 둥글게 이마를 만들고, 이마의 한 치(약 2.1cm) 아래에 두께의 1/3 정도를 깎아내서 턱이 지게 하는데 둥근 이마는 하늘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 다음 길이 여섯 치(약 12.6cm), 너비 한 치(약 2.1cm), 깊이 네 푼(약 8.4cm) 크기의 함중(陷中)을 파고 양 옆에 구멍을 뚫어 함중과 통하게 한다. 전신을 후신의 턱 아래로 깎아낸 크기와 같도록 만들어 후신에 끼우고 함께 받침대에 심어 끼우면 신주가 완성된다. 전신과 후신의 이마에는 분칠을 한다. 신주 받침대는 사방 각 네 치(약 8.4cm), 두께는 한 치 두 푼(약 2.3cm) 정도이며,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신주의 몸을 끼운다. 이 때 사방의 길이가 네 치인 것은 1년 4계절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하관(下棺)을 마치고 난 뒤 신주의 함중에다가 돌아간 이의 직함과 이름을 쓰고, 신주의 옆면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따로 신주를 싸는 비단 덮개와 깔개, 검은 옷칠을 한 궤(櫃)와 궤의 뚜껑을 만들어 그 안에 신주를 두고 사당의 감실(龕室)에 보관하며, 차례와 기제 때에 신주를 내어와 제사를 지낸다. 신주를 만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위패(位牌)나 지방(紙榜)으로 이를 대신한다.

5. 전국한시백일장대회

(1)의의 및 방향

- 포은선생의 학문을 기리고 충효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전국한시백일장으로, 전국에서 향교 단 위와 유림, 그리고 포은선생 후손, 유학자 등 200여명이 응시한다.
- 전통복식인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칠언율시의 한시를 짓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유생들이 과거를 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 과거의 한시를 지어 풍류를 읽던 시대를 재현하여 오늘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며, 우리 글의 기본이 되는 한문이나 한시의 중요성을 깨달아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한시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개 요

- 일 시 : 2007년 5월 19일(토) 10:00-12:00
- 장 소 :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 묘역
- 시 제 : 回憶 丹心歌(七言律詩)
- 압 운 : 天年緣連全 (1字는 當日發表)
- 작시마감 : 당일 오후 12시
- 심사발표 : 당일 오후 4시 발표 후 시상
- 참가인원 : 접수자 165명
- 심 사 : 고선위원으로 당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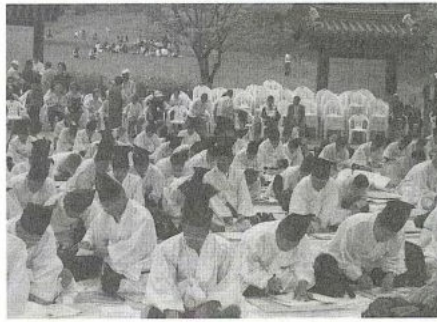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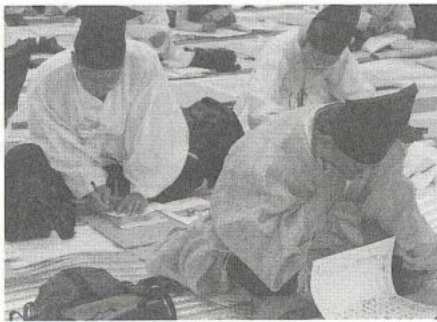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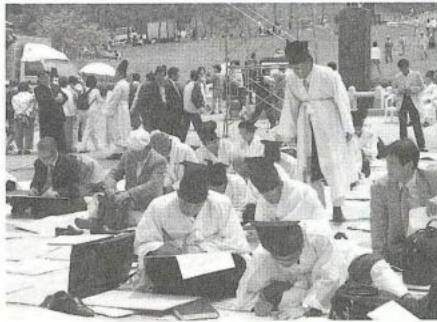
직 위	아 호	성 명	연락처
상시관	小軒	金佑振	031-748-4686
시 관	曉山	金重錫	02-491-8667
시 관	松汀	金教熙	031-94-6769
시 관	允齋	朴宗柱	061-744-2986
시 관	栗園	金石煥	031-261-1822

(3)입상자 명단 : 총33명

번호	구분	성명	상금(원)	주소
1	장원	하재홍	1,000,000	대구시 수성구
2	차상	이창우	500,000	대구시 달서구
3	"	장태일	500,000	대구시 중구
4	차하	박동욱	300,000	경북 경산시
5	"	원종숙	300,000	대구시 동구
6	"	오재동	300,000	대구시 중구
7	참방	김종구	200,000	대전시 대덕구
8	"	김경현	200,000	서울 동대문구
9	"	지상건	200,000	경북 영천시
10	"	김점문	200,000	대구시 동구
11	"	김상진	200,000	대구시 수성구
12	"	이용옥	200,000	대구시 동구
13	"	이창경	200,000	경북 영주시
14	가작	김대권	100,000	울산시 남구
15	"	강경임	100,000	대구시 남구
16	"	이창기	100,000	전주시 완산구
17	"	안정희	100,000	경북 상주시
18	"	유응우	100,000	울산시 무거2동
19	"	정병유	100,000	강원도 횡성군
20	"	안대환	100,000	서울 은평구
21	"	조용만	100,000	경기도 부천시
22	"	장덕	100,000	충북 음성군
23	"	정상호	100,000	서울 성북구
24	"	유기찬	100,000	경기도 용인시
23	"	양혜련	100,000	대구시 중구
26	"	장병국	100,000	경북 예천군
27	"	김주식	100,000	경기도 수원시
28	"	김용구	100,000	대구시 수성구
29	"	최도식	100,000	서울 관악구
30	"	곽경순	100,000	대구시 동구
31	"	손창현	100,000	대구시 남구
32	"	강달식	100,000	강원도 평창군
33	"	박일순	100,000	서울 중랑구
합계		33명	6,300,000	

(4)평가 및 개선방향

- 해를 거듭할수록 전통한시대회로 안착→150여명 접수받아 등록후, 답안지 교부, 유건도포 착용, 참가자 전원 여비지급, 급수대 운영, 당일 고선(심사)위원 선정, 심사, 시상자 발표 후 잡음이 없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
- 시상식날 우천으로 장원만 시상하고 상장과 상금은 우편또는 송금해드림
- 한시인구의 정례화, 높은 연령, 전국적 참여인원 대동소이 등 차후 많은 과제 부여
- 희소성문제 제고, 정통성 자리잡아 가고 있음→ 노령인구보다 요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대회의 장원시 작품 상설 게시→ 관람객들에게 대회 위상 높임, 시조대회로 변형보다는 확대 고려
- 가급적 타 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개최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



(5)한시백일장대회(回憶丹心歌) 입상작

1. 壯元

丹心曲調感皇天 단심가 곡조에 하늘도 감동했고
 愛唱黎民六百年 백성들이 애창한지 육백년일세
 白骨爲塵雖化土 백골이 진토되고 비록 흙이 되어도
 英靈向主不拋緣 영령은 임금위한 인연을 놓지 않았네
 堂堂氣魄千秋赫 당당한 기백은 천추에 혁혁하고
 烈烈貞忠萬古連 열렬한 정충은 만고에 이어졌네
 善竹橋邊留碧血 선죽교가에 벽혈이 남아 있고
 芳名懿蹟永雙全 꽃다운 이름 아름다운자취는 길이 온전하도다



住所 大邱市 壽城區 中洞 32-32
 雅號 谷艸 姓名 河在鴻



2. 次上

圃老丹歌感動天 포은 선생 단심가는 하늘도 감동했고
 後生膾炙已多年 후생들에 회자됨이 이미 오래 되었네
 豈同李氏修新誼 어찌 새 왕조와 誼를 함께 하리오
 曾與王朝篤舊緣 일찍이 고려조에 독실한 舊緣이 있도다
 不二精忠千古續 둘도 없는 정충은 천고에 이어 졌고
 無雙大節萬秋連 비할 바 없는 대절은 만추에 이어졌네
 成塵白骨何言慰 백골이 진토되었으니 무슨 말로 위로하라
 百死終身壯志全 백번을 죽을 때까지 장하신 뜻 온전했네



住所 大邱市 達西區 本里洞 369-6 센트로빌라 103-202
 雅號 松潭 姓名 李昌雨



3. 次上

丹歌切切感皇天 간절한 단심가엔 황천이 감동하고
 膾炙相傳六百年 회자되고 상전하길 육백 년일세
 貫日貞忠王躅伴 관일 정충하심은 王躅과 짝하며
 凌霜大義伯夷緣 능상 대의는 伯夷의 인연이라
 扶邦壯志千秋赫 나라구한 壯志는 천추에 빛나고
 向主衷心萬世連 임금 향한 충심은 만세에 이어지네
 死了番番奚有改 죽음이 셀 수 없어도 어찌 변함이 있으랴
 葵忱確固意完全 葵心은 확고하고 의지는 온전하도다



住所 大邱市 中區 南山1洞 698-3 상가 24
 雅號 碧溪 姓名 張 泰鎰



4. 次下

圃老貞忠耀碧天 포은선생의 정충은 푸른 하늘에 빛나는데
 恨深冤逝幾經年 깊은 한머금고 원통하게 가신지 얼마나 되었는고
 綱常固守安民道 강상을 굳게 지켜 안민의 도를 닦고
 大義公明輔國緣 공명과 대의는 사직을 도우셨네
 王躅相肩高節遠 왕축과 서로 견주는 높은 절개 오래고
 比干互角偉名連 비간과 백중하는 큰 이름 이었도다
 丹心向主何如變 임향한 일편단심 어찌 변할리 있으리오
 白刃當場不屈全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온전하였네

住所 慶北 慶山市 河陽邑 琴樂里 우방2차 아파트 202-310
 雅號 蘇原 姓名 朴 東旭



5. 次下

丹歌意切感皇天 단심가 뜻이 애절하여 하늘도 감동했고
 愛誦人人度幾年 사람마다 애송한지 몇 해 이든가
 豈與姦凶謀叛逆 어찌 간흉과 더불어 반역을 하리오
 曾同正義結佳緣 일찍이 正義를 함께하여 佳緣을 맺었네
 扶邦大節先賢續 나라를 도운 대절은 선현을 이었고
 向主貞忠後世連 임금 향한 정충은 후세에 이었도다
 白骨爲塵那有變 백골이 진토되어도 어찌 변함이 있으랴
 懷柔不聽志完全 회유에도 듣지 않고 뜻은 완전했네

住所 大邱市 東區 龍溪洞 104-1 덕성빌라 A 동 402
 雅號 松坡 姓名 元 鍾淑



6. 次下

句句丹歌足感天 단심가 구절구절 하늘을 감동시키고
 相傳愛唱幾經年 상전하며 애창된지 몇 해나 되었는가
 貞忠貫日夷齊伴 관일정충은 백이숙제와 같음이요
 大義凌霜屈宋緣 능상대의는 굴원과 송옥과 같도다
 壯志扶邦千古赫 나라를 도운 壯志는 천고에 빛나고
 衷心向主萬秋連 임금 위한 충심은 만추에 이어지네
 百番死了奚情改 백번을 죽는다 한들 어찌 마음을 바꾸리오
 確固葵沈意氣全 葵沈이 확고하고 意氣가 온전하도다

住所 大邱市 中區 南山1洞 2105-9
 雅號 暎潭 姓名 吳 在東



8. 參榜

圃隱丹歌感動天 포은선생 단심가에 하늘도 감동하였고
 百番更死誓忠年 일백 번 고쳐죽어 충성을 맹서한해일세
 殺身壯志排新賊 殺身 壯志는 新賊을 배척했고
 向主衷心守舊緣 임향한 충심은 옛 인연을 지켰도다
 詩格能儔王躅躅 詩格은 능히 왕축사와 짝이 되어 있고
 曲流可比伯夷連 曲流는 가이 백이와 견주어 연하도다
 爲塵白骨魂無有 백골이 진토되어 혼이라도 있고 없고
 不改千秋節義全 천추절의가 온전함을 고치지 않으리라

住所 서울 東大門區 踏十里洞 75-18 그린빌라 가동 103
 雅號 雲溪 姓名 金京鉉



9. 參榜

圃翁挺出海東天 포은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정출하셨네
 愛誦丹歌幾百年 단심가를 애송한지 몇백년 되었도다
 被禍殉身難忍說 화를 입어 몸바치심 차마 말로하기 어렵고
 伸冤贈諡豈無緣 신원되고 시호를 받음이 어찌 인연이 아니겠는가
 堂堂大義千秋屹 당당한 대의는 천추에 높았고
 烈烈精忠萬古連 열렬한 정충은 만고에 이었도다
 獨倚寒松終保節 홀로 寒松을 의지하여 마침내 절개를 보전하였고
 逢君地下志完全 지하에서 임금 만나니 뜻이 완전하였으리라

住所 慶北 永川市자양면 용화리 223
 雅號 龍憲 성명 池相建



10. 參榜

圃老哀情感動天 포은선생 단심가에 하늘이 감동하였고
 捨生取義幾經年 생을 버리고 義를 취한지 몇 년이 지났는가
 救邦壯志乾坤誓 나라 구하려는 장한 뜻 건곤에 맹세하고
 事主貞忠日月緣 임금 섬기는 정충은 일월과 인연했네
 赫赫偉名欽訟切 혁혁한 偉名은 간절히 흠송하고
 煌煌懿蹟闡揚連 황황한 밝은 자취 천양함에 연했도다
 肉身白骨爲塵土 육신과 백골은 진토가 되었어도
 一片丹心大節全 일편단심의 큰 절의는 온전하도다

住所 大田市 大德區 梧井洞 489-22

雅號 曉海 姓名 金 鍾龜



11. 參榜

圃老丹歌感動天 포은선생 단심가는 하늘이 감동하였으니
 恨深曲響振多年 한 깊은 곡조가 오랫동안 울렸네
 寧爲舊國塵埃魄 차라리 옛 나라에 티끌의 넋이 될 지언정
 豈結新朝爵位緣 어찌 새 조정의 벼슬자리 인연을 맺으리오
 節義堂堂千載赫 절의는 당당하여 천년에 빛나고
 忠情烈烈一生連 충정은 열렬하게 평생을 이었도다
 百番死了誰無仰 백번을 죽는다니 누가 우러르지 않으리오
 向主葵心萬世全 임 향한 한 마음은 만세에 온전하도다

住所 大邱市 東區 新岩4洞 325-21

雅號 錦坡 姓名 金 点文



12. 參榜

丹心歌曲感皇天 단심가곡이 황천을 감동시켰으니
 回億黎民唱幾年 회억하는 여민들이 불러서 몇 해던고
 骨化微塵穢勝地 뼈는 먼지로 화하여 승지에 감추었으니
 靈歸舊國結芳緣 영혼은 구국에 돌아가 방연을 맺었도다.
 生前大義三韓赫 생전의 대의는 삼한을 빛내었고
 死後高名百世連 사후의 고명은 백세를 잇는 구나
 善竹橋頭留血跡 선죽교 머리에 혈적이 남아 있던 들
 遺風遺躅永雙全 유풍과 유족이 둘 다 길이 온전하리다.

住所 大邱市 壽城區 泛魚4洞 77-66
 雅號 育苑 姓名 金相進



13. 參榜

圃老丹歌感動天 포은공의 단심가는 하늘이 감동하온데
 竹橋逝去幾經年 선죽교에서 돌아가신지 그 몇 해나 되었는데
 國危授命臣忠固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 바치는 신하의 충성은 진실하고
 身死成仁聖訓緣 몸이 죽어 인을 이품은 성인의 가르침을 연유했네
 向主衷心千載赫 임금 향한 충성은 천재에 빛나고
 扶邦大節一生連 나라를 붙드는 큰 절의는 일생토록 있었구나
 三章六句皆珠玉 삼장육구에 내용 모두 다 주옥같으니
 都是箴銘永穩全 모두 잠이 되고 명이 되어 영원히 온전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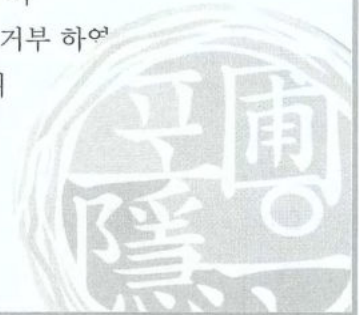
住所 大邱市 東區 新岩4洞 284-52
 雅號 夷山 姓名 李鏞玉



14. 參榜

圃隱貞忠貫日天 포은선생의 올곧은 충성은 해와 하늘을 뚫었으니
 丹心歌唱幾經年 단심가 노래 부른 것이 몇 해나 지났던가.
 委身百死何遷志 이 한 몸 던져 백번 죽더라도 어찌 뜻을 옮기랴?
 向主平生豈改緣 님 향한 일평생에 어찌 인연을 고치리오?
 麗祚運移難保守 고려의 복조 운이 옮겨져 보존하여 지키기 어려우나
 鮮朝命革拒留連 조선 조정의 명을 고침을(운명) 머물러 연결하길 거부 하였
 人亡世遠惟傳曲 사람은 죽고 세대는 멀어져도 오직 곡조는 전하니
 回憶千秋節義全 천추에 그 의절 온전함을 돌이켜 생각해 하네.

住所 慶北 榮州市 可興一洞 1480-13番地 영남맨션 102호
 雅號 錦綱 姓名 李昌京



15. 佳作

圃翁志節仰如天 포은선생 지조와 절개 하늘같이 추앙하고
 回憶丹歌已久年 단심가를 회억하니 이미 오래일세
 一代生盟君國保 일대를 살매 임금과 나라 보전을 맹세하고
 百番死守水魚緣 백번 죽어도 수어지연을 지키셨도다
 黃泉落命忠尤切 황천길에 목숨 다해도 충성은 더욱 간절하고
 白骨爲塵義必連 백골이 진토되어도 의리는 반드시 이으리라
 魂魄有無心外事 혼백이 있고 없고 단심밖의 일인테
 竹橋碧血至今全 선죽교의 벽혈은 지금까지 온전하도다

住所 서울 恩平區 葛峴洞 489-3 1층 2호
 雅號 松巖 姓名 安大煥



16. 佳作

圃翁大義卓如天 포옹의 대의가 하늘같이 높는데
 回憶時歌六百年 時歌를 회억한지 육백년일세
 向主誠心從舊誼 임 향한 誠心은 옛정을 따르고
 投身死了斥新緣 몸 던져 목숨다해 새 인연 물리쳤네
 爲塵白骨殫忠溢 티끌이 된 백골조차 충성됨이 넘치고
 輔國丹心守節連 보국의 단심은 절개지켜 연하셨네
 魂魄有無終不改 혼백이 있던 없던 마침내 고치지 않았으니
 當看善竹血痕全 마땅히 선죽교의 혈흔이 온전함을 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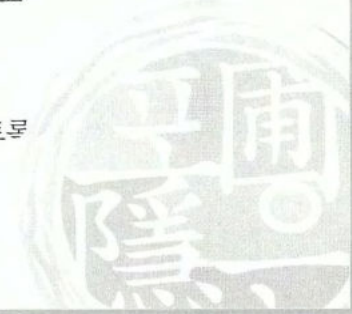
住所 서울 城北區 城北2洞 209-12
 雅號 南溪 姓名 丁相豪



17. 佳作

圃隱衷情感動天 포은선생 충정에는 하늘도 감동했고
 運移傾國幾經年 운세가 옮겨가 나라가 기우니 몇 년이 지났던가
 丹心向主平生約 단심으로 임금향해 평생을 맺었고
 白骨成塵永世緣 백골은 티끌이뤄 영원토록 인연되었네
 肉體歸墳忠尙篤 육체는 무덤으로 돌아가도 충성은 오히려 돈독했고
 靈魂有道節尤連 영혼은 도가 몸에 배어 절개는 더욱 이어지리라
 雖爲百死終無變 비록 백번 죽는다 한들 끝내 변치 않았으니
 砥柱中流萬歲全 난세에 지조는 유혹과 타협에 흔들림 없이 만세토록

住所 京畿道 龍仁市 器興區 麻北교동마을 쌍룡 A 103-903
 雅號 松巖 姓名 柳基燦



6. 청소년백일장대회

(1)의의 및 방향

- 포은정몽주선생의 충절어린 선비정신과 실천유학을 바탕으로 도덕성 회복을 근간으로 하는 포은문화제에 용인지역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글짓기대회를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 효, 예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음.
- 역사적인 인물과 업적을 주제로 한 글짓기를 함으로서 정신적 사상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지역사랑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자아발전에 가치를 더하는 체험의 장이 됨

(2)개 요

- 일 시 : 2007. 5. 19(토) 10:00-15:00
- 장 소 :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 묘역 행사장
- 대 상 : 용인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 주 관 : 포은문화원추진위원회 백일장분과, 경기도 용인교육청
- 주 제 : 용인문화사랑(충·효·예)에 대한 산문
(초등교 200자 원고지 7매이내, 중고등학교 200자 원고지 10매이내)

(3)세부계획

- 추진방침 : 용인문화원과 용인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용인관내 각급 초등6년, 중,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며, 최우수상은 용인교육장상으로 학교 내신성적에 반영토록 함
- 참가부문
 - 초등학교부문 : 4학년-6학년중 각 학년별 1-2명
 - 중학교 부문 : 각 학년별 1-2명
 - 고등학교 부문 : 각 학년별 1-2명씩 제한함
- 원고분량 : 산문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 참가인원 : 참가자, 교사, 학부모, 봉사활동자, 해설사등 300명 이상
 - 초등부 160명 / 중등부 90명 / 고등부 50명
- 심사위원 : 각계전문가 5명 위촉(문인협회1, 문학회1, 교육청1, 태성고1, 문화원1)

직 위	성 명	소 속	연락처
심사위원장	홍 순 석	강남대학교 인문대학부 교수	011-721-7970
심사위원	홍 성 우	태성고등학교 교사	019-622-3940
심사위원	정 영 자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011-9692-6619
심사위원	안 영 선	성지고등학교 교사	016-260-6953
심사위원	정 병 국	용인교육청 장학사	019-603-4859

(4)입상자 명단 : 87명
 <초등부>

부 문	시상내역	상 금	명수	학교 / 성명	상 격
초등부	최우수상	200,000	1	상하초 6년 송민아	용인교육장
	우수상	100,000	5	역북초 4년 주동일	용인시장
				상갈초 5년 이우정	
				수지초 5년 정소연	
				보라초 6년 김현지	
				보라초 4년 김태용	
	특선	50,000	6	역북초 4년 이연흠	용인시의회의장
				용마초 4년 최효경	
				지석초 5년 김하정	
				현암초 6년 임지현	
				능원초 5년 신현섭	
				능원초 4년 제갈세미	
	입선	30,000	11	능원초 6년 이슬기	용인문화원장
				지석초 5년 허수빈	
				대지초 6년 조정윤	
				능원초 6년 한우정	
				능원초 6년 허윤정	
				지석초 6년 박정민	
				현암초 5년 이예슬	
				상갈초 4년 이소이	
				대지초 5년 박민지	
				대지초 6년 장현서	
				수지초 5년 허지원	
	가작	10,000	17	용인초 5년 정만호	용인문화원
				장용마초 6년 이희상	
				지석초 6년 정재웅	
				백암초 4년 이미소	
				갈곡초 5년 서예진	
지석초 6년 박연수					
수지초 6년 이현우					
수지초 6년 민동원					
용마초 5년 곽남영					
능원초 5년 이운유					
능원초 5년 강여진					
능원초 5년 김희원					
능원초 4년 안혜지					
수지초 4년 조아란					
상갈초 5년 맹사름					
지석초 5년 송주영					
능원초 4년 오진주					
총 계	1,500,000	40명			

<중등부>

부 문	시상내역	상 금	명수	학교 / 성명	상 격
중등부	최우수상	200,000	1	용동중 2년 유다솔	용인교육장
	우수상	100,000	3	신릉중 2년 김다운	용인시장
				성지중 2년 어소원	
				용동중 2년 장하연	
	특선	50,000	5	태성중 1년 김 인	용인시의회의장
				신릉중 2년 윤혜진	
				용인중 1년 김민정	
				성지중 1년 강현지	
				손곡중 3년 이규화	
	입선	30,000	7	손곡중 3년 최윤성	용인문화원
				장용동중 1년 윤다운	
				초당중 2년 양수산	
				모현중 3년 정진희	
				용인중 1년 김차영	
				용동중 1년 정해련	
				별태성중 1년 이창건	
	가작	10,000	14	성지중 1년 신소원	용인문화원장
				용동중 1년 노유림	
				초당중 1년 배재성	
구성중 1년 염정원					
구성중 1년 이지우					
성지중 3년 백라희					
성지중 3년 박소영					
용인중 1년 박민주					
태성중 2년 장우봉					
수지중 2년 윤다혜					
구성중 3년 유나희					
손곡중 3년 김수영					
모현중 2년 금은영					
용인중 3년 임미은					
총 계	1,100,000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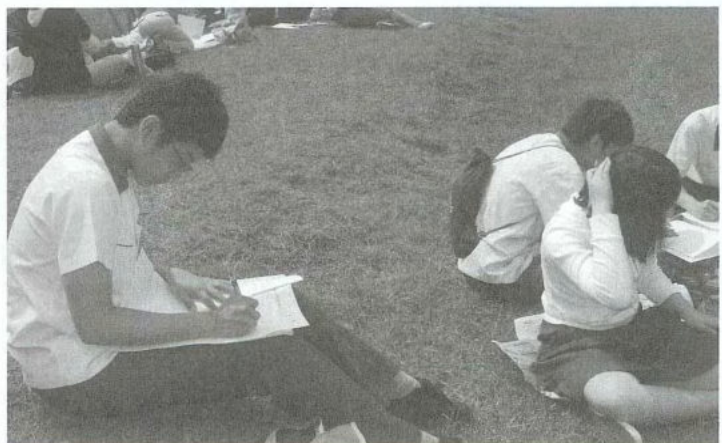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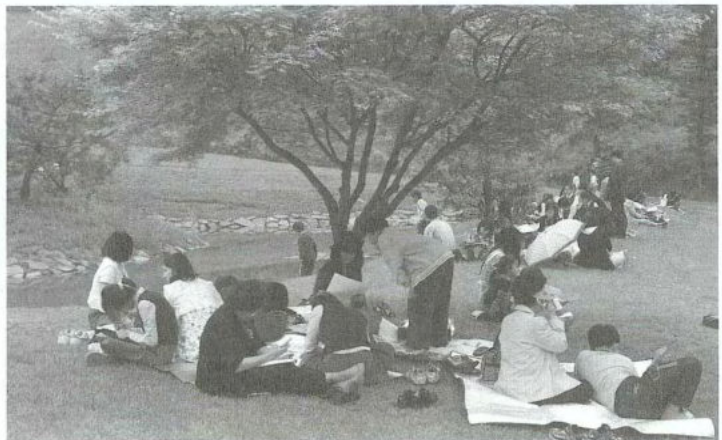
〈고등부〉

부 문	시상내역	상 금	명수	학교 / 성명	상 격
고등부	최우수상	200,000	1	구성고 2년 이현준	용인교육장
	우수상	100,000	3	구성고 2년 이보람	용인시장
				용인고 1년 정소진	
				용인고 1년 이은혜	
	특선	50,000	3	성지고 2년 김다혜	용인시의회의장
				용인고 1년 장한별	
				구성고 3년 방지은	
	입선	30,000	3	백현고 1년 정유진	용인문화원장
				한국외대부속외고3년 정혜진	
				용인고 1년 노은영	
	가작	10,000	7	태성고 2년 엄민우	용인문화원장
				용인고 1년 김혜리	
				구성고 3년 고은신	
구성고 2년 권윤미					
성지고 2년 허유리					
백현고 1년 권지선					
태성고 2년 정재승					
총 계	810,000	17명			



(5)평가 및 개선방향

- 참가자, 학부모, 교사, 봉사자등 300여명 참가, 대회 참가자외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온 학생들도 많아 처음 실시한 현장대회로 성공적인 평가
- 당초 초등4-6학년, 중등부1-3학년, 고등부1-3학년으로 학년별 시상계획→ 심사과정에서 통합하여 초, 중, 고등부로 심사, 무리없이 잘 진행
- 분과별 추진위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문화관광해설사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자료집 배포등 유적지 해설과 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자발적 참여와 교육적 가치 향상
- 백일장대회의 본질을 살려 특기자에 대한 학교장 추천이 바람직→의미와 전공을 살려 내신성적에 반영, 인원동원에서 오는 폐단으로 대회성격이나 주제를 모르는 글로 심사에 애로사항



(6)제5회 청소년백일장대회

〈초등부 최우수 작〉

제목 : 포은, 그 충절을 다시 한번!!



상하초교 6년 송민아

정 들었던 평촌을 떠나 용인으로 이사를 오던 날. 친구들과 헤어져 슬픈데 굶은 장대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용인은 에버랜드와 민속촌밖에 없는 시골 같은 곳이라고 생각 했는데 정말 아파트 뒤에는 산이 빙 둘러서 있고 주위엔 논도 보이고 시골 할머니네 동네에서 맡았던 시골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문화생활도 할 수 없는 용인이 답답해서 전에 살았던 평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엄마께 다시 돌아가자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우리 고장 용인이라는 책으로 조금씩 용인에 대해 알아가던 중에 아람단 체험학습으로 '용인 문화탐방' 을 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때 까지만 해도 용인의 문화는 고인돌이나 와우정사, 한국 민속촌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용인 문화 탐방을 하면서 용인의 문화가 고인돌이나 와우정사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이지 내가 사는 내 고장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했다.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심곡서원, 충렬서원, 양지향교, 고인돌까지 너무나 좋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었다.

또 서원이나 향교가 많은 것이 특히 인상 깊었으며 교육이나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문화의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재는 모현면 능원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몽주 선생의 묘였다.

나는 정몽주 선생이 이성계의 역성혁명세력에 의해 살해를 당해 정몽주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묘에는 문, 무신상과 동물상 등이 있었고 묘도 꽤 컸다. 풍덕군에 있던 선생의 묘를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이장을 하던 중 명정이 바람에 날아가 꽃힌 자리가 지금의 묘가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는 할머니께 듣는 옛날이야기처럼 우리를 빠져들게 했다. 충신의 본보기로 늘 들어왔던 정몽주 선생의 묘가 이렇게 산다는 것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 졌다.

또한 이방원이 읊었던 하여가에 정몽주 선생이 답한 단심가는 이 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선생의 충절은 단심가에 나타나 있듯이 자신의 부귀영화나 목숨보다도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절이 더 깊었다.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 선생의 묘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 졌다. 묘역 아래에 있는 충렬서원은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선조 5년에 지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해 불탄 것을 선조 38년에 다시 지었다고 한다. 왜구들도 정몽주선생의 정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받을까봐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와 자동차 산업, IT산업, 반도체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산업이다.

그런데 귀중한 연구 자료를 돈에 매수되어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밀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경쟁상대의 나라에 넘겨버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국에 대한 충절이 없이 오직 이기주의만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 슬프기까지 하다.

만약 지금 정몽주 선생께서 살아계셨다면 무어라 하셨을까? 아마도 큰 꾸짖음과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잡고자 자신의 몸을 던져 애쓰셨을 것이다.

우리의 자랑인 포은 정몽주선생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 환경운동처럼 캠페인 운동으로 전개해 용인의 또 다른 문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도시의 답답함보다는 조금은 한가로운 용인의 모습과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울려 있는 용인의 모습은 살기 좋은 문화도시의 표본이 될 것이다.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옛말이 있다고 들었다. 이제는 이 말을 고치고 싶다...

‘생거용인 사거용인’으로.

〈중등부 최우수 작〉

제목 : 아버지의 파병 소동



용동중 2년 유다솔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위치하고 있는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에 다녀왔다. 작은 돌다리를 건너면 펼쳐지는 잔디광장이 나의 눈을 사로잡았고 초록 연꽃잎이 동실 떠 있는 작은 연못은 장관을 이루었다.

나는 이 멋진 풍경 위로 보이는 정몽주 선생님의 영혼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웅장한 묘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시다. 술만 드시면 군가를 절로 흥얼거리시는 직업 정신이 투철한 분이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나도 그 가사가 입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버지가 부르실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

게 된다.

가끔은 매서운 바람만큼 무섭고 엄격하시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꿰어 주시는 부대찌개만큼은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맛이 끝내준다.

몇해 전, 한참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라크로 파병을 나갈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듯 하셨다. 그러다 생각 끝에 고민을 가족들에게 털어 놓으셨다. “이번에 이라크 파병에 나갈까 해요.

군인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한번쯤은 그런 경험도 필요할 듯싶고요.”라고 말씀하시자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응? 그 위험한 델 네가 왜 가난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한숨을 연거푸 내뿜으셨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아버지의 이라크 파병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다. 폭탄테러 세례와 무시무시한 총의 방아쇠는 수도 없이 당겨지는 참혹한 전쟁의 땅! 그런 땅으로 아버지께서 가신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아쉬운 감정이 못 돌아 보였으나 가족들과 주위의 반대로 이라크 파병 지원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도 신중에 신중을 가해 결정하셨을 텐데 막무가내로 아버지의 고집을 막은게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그치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위험을 무릎 쓰고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멋진 분인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정몽주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파병 소동이 지난지 2년이 흐른 후였다.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만나 뵈게 되었다.

그 책은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거였다. 아버지의 첫 선물이니 만큼 나는 한장한장을 열심히 읽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런 멋진 충성심을 가지셨나 했더니 정몽주 선생님의 영향이 컸던 듯하다.

고려 말 충신인 포은선생의 묘가 용인에 묻혀 있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포은선생님께서서는 70만 용인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거듭나셨다고 한다.

그럼으로 우리 고장 용인은 충·효·예의 중심지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라마다 언어, 예절, 생활 방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 용인의 충·효·예 사상은 뛰어나게 발전되어 있으며 그 속에 속한 우리 아버지는 그 문화 속에 젖으신 듯하다.

그렇게 용인의 문화는 포은선생의 가르침을 용인 시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의 신문지상에서 사회의 어두움을 보노라면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도덕적 관념의 부족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점차 그 위기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국가기밀을 외국에 파는 사람들.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도덕적 양심을 볼 때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회의 문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적으로 '충' 정신은 동떨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의 문화가 '충'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 아버지만큼 멋지고 훌륭한 분의 묘가 내 눈 앞에 자리잡고 있다.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사후 육신이 충·효·예 사상과 함께 이곳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나는 조금이라도 그의 넋을 담아내려 카메라 후레쉬를 연달아 터뜨렸다.

훌륭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은선생의 정신을 존경하며 그의 정신이 담긴 용인 문화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소중하고도 값어치 있는 정신을 가르쳐 주신 정몽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단심가를 읊어 본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등부 최우수 작〉

제목 : 편 지



구성고 2년 이현준

질척이는 여름날 우리엄마의 잔소리만큼 맨 살 깊숙이 파고들어 체내 발열을 촉진시키는 것은 이승에도 저승세계에도 유토피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도 엄마와 함께 외출을 약속한 가운데 빠릿하게 움직여 준비를 끝내지 못한 나머지 다소 굵든 당신의 아들이 못내 못마땅하신 엄마와 그 차분함과 신중함을 결코 칭찬 한마디로 승화시켜주시지 않는 엄마의 알 수 없는 맘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은 아마 천여회째 부딪힘 기념일을 맞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세계 우수 합창단과도 견줄만한 고음의 엄마 목소리와 차마 기량을 못다 발하는 저의 중저음의 목소리가 절정의 화음을 이룰 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 있게 보낼 수 있겠구나!” 아침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로 지내시며 바쁘신 엄마와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면 엄마께서 그동안 모아 오셨던 말씀을 제 발아래 내려놓으시느라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저의 학업의 열정을 가늠해 보시고, 아버지의 부재가 요즈음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제게 질문하시고, 저와 친한 친구들의 안부도 물으시고 그간 해이해진 마음가짐도 소위 잔소리로 바로 잡아주시는 등 바쁜 엄마 맘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제 사정은 엄마가 몰라주시고 그저 다그치시는 것만 같아 밀려오는 서운함을 뺀 가슴속 길도 들여보내지 못한 채 지붕이 무너져 내릴 만큼 큰소리로 닫히는 방문 밖으로 쓴 내 마음 뱉어내고 혼자 침대에워 털썩 주저앉곤 합니다.

그럴 때면 방문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는 엄마와 나와서 거리가 그토록 멀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루 일과에 짜여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때가 되면 분분한 서로의 주장을 관철 시키느라 바쁘던 엄마와 제가 이토록 가깝지만 먼 거리에서 애를 태우고 있자니 이상하게 배가 고프고 죄송스런 마음이 자꾸만 커질 때 즈음,

이 적막을 깨고 엄마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난감한 표정관리는 저만의 고민이 아니겠죠.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으시며 무릎위에 가만히 손대시면 이미 저는 다시금 엄마가 마냥 그리워지는 월요일의 제가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 건강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말동안 한가득 비축해두신 사랑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제가.

그 시간 이후 달라지는 제 모습은 엄마께 뭐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무릎 위 엄마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은 다음 날.

자꾸 의젓해 진다고, 늙은 모습 보기 좋다고, 오늘하루도 최선을 다하라고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엄마의 격려가 그제 다르고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르게 와 닿는 이유는...

제 자신도 느낄 만큼 하루가 멀게 자라는 저의 엄마의 마음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생활모습들을,

그냥 깨달음이라고 일컬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저 엄마의 기도에 부응하는 다소 수동적인 저 이현준의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빠께서도 저에게 재차 강조하시던 저의 엄마, 또 아빠에 대한 진실된 마음. 엄마와 수많은 대화와 갈등을 통해 서운함을 느끼고 죄송함을 축스럽게나마 표현하고, 엄마의 애정 어린 한마디 말씀으로 눈 녹듯 느끼는 사랑. 이 일련의 엄마와 저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저의 모습을.....

혹시 표도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빠! 이제는 저도 엄마와 아빠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고 저의 변모와 성숙을 통해 부모님께 행복과 보람을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와 한지붕아래 계시지 않지만 아빠께서도 제 편지 보시고 기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엄마의 기도가 앞으로도 아빠께 닿을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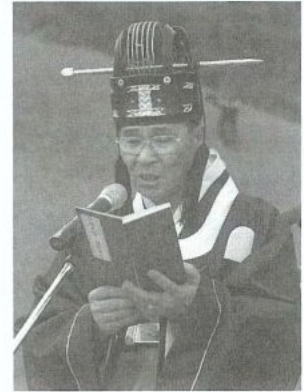
7. 포은선생 추모제례(追慕祭禮)

(1) 행사배경

- 용인은 예로부터 예학(禮學)의 중심지이다.

포은선생은 고려말엽까지 유행하던 몽고풍의 제도와 풍습을 고쳐, 명나라의 제도에 맞추게 하였으며, 개성의 오부에는 학당을,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케 하였다. 관혼상제의 제도를 주자가례에 따라 실시토록 하였다.

도암 이재선생은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관혼상제의 예절을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정리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예의 범절에 관한 책 중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 가정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필수적인 책으로 소장할 정도였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의 예전(禮典)이라 할만했다.



집례(이형렬인간문화재56호)

(2) 문헌근거

- 중종 12년(1517) 태학생(太學生) 권전(權進) 등의 상소로 조정 신하들에게 의논하고 명하여 문묘(文廟)에 종사하니, 9월 17일 이었다. 또 예관(禮官)에 내려 분묘를 수리하고 초목을 금지하고 비를 세웠다.(포은집, 권4)
- 조선 선조8년(1575)에 위에서 전교하기를, “문충공은 동국의 유종(儒宗)인데 더구나 그 절의가 일월을 꿰 만함어랴? 이제 이미 서원을 새로 세웠거니와, 내가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자 한다.” 하셨다. 그래서 승지(承旨)를 보내어 가서 제사하게 하고, 편액을 내려 송양서원(崧陽書院)이라 하고, 또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내렸다. 이해에 도사(都事) 이창(李敞)이 공의 유상을 봉안하였다.(포은집, 권4)

(3) 의의 및 방향

- 추모제례는 포은선생의 묘역에서 성균관, 정재연구회 등의 주관으로 포은집의 문헌 근거와 예전(禮典)에 의거, 조정에서 예관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는 제례로 구성, 복원하고자 함
- 성균관의 문묘제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
- 추모제례는 영신례,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변두, 송신례, 망료례로 진행되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분헌관 순으로 이어졌으며, 제례악과 일무(佾舞) 등 취주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300여명의 후손과 일반 참배객이 참례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엄숙하고 장엄하게 치루어진다.

(4) 행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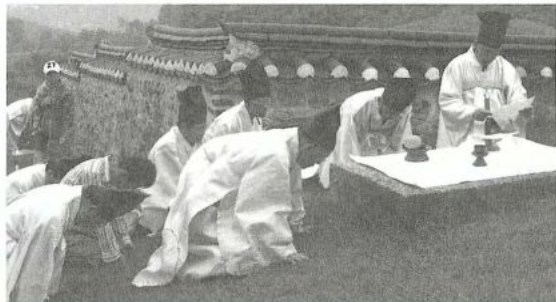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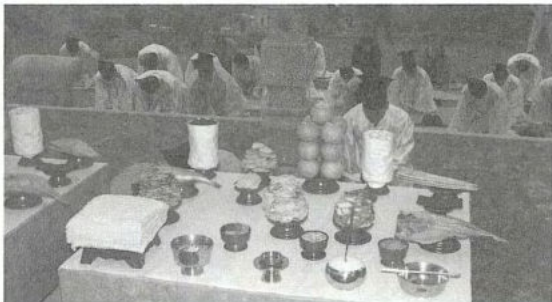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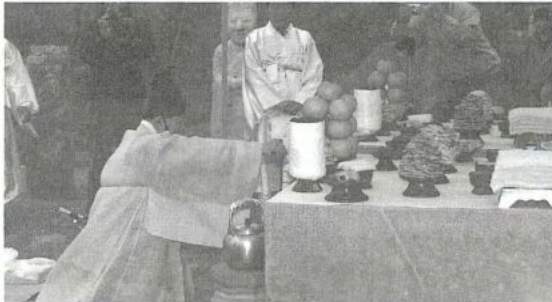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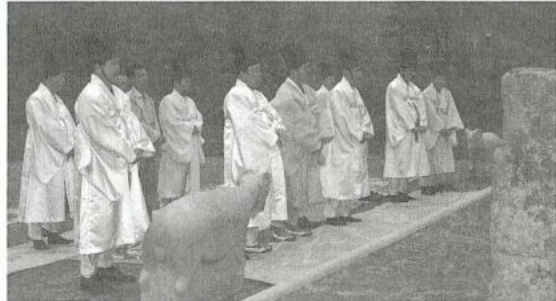
포은선생의 추모제례는 포은집의 문헌 근거와 예전(禮典)에 의거하여 조정에서 예관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게 한 제례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성균관의 문묘 제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

였다. 추모제례는 행사 전일(前日)과 당일(當日)에 실시하는 의례로 구별된다.

- 제수와 제물은 모두 생(生)것을 쓰며 종약원에서 준비→제수비, 집례, 찬인, 제례악, 일무 예산 일체(1500만원 상당) 종약원 부담
- 6번(籩) 6두(豆)의 지설원칙을 적용한다.
- 제관복은 전통복식으로 종묘나 문묘 등에서 제례를 행할시 사용하는 복장과 동일하다.
- 추진위원회 추모제례분과에서 실무 담당

①전일행사

- 일반적으로 전일 의례는 고유(告由), 재계의(齋戒儀), 전향축의(傳香祝儀), 습의(習儀)와 진설(陳設)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는 여러 여건상 고유제와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는 습의만 행하고, 진설은 당일 아침에 행한다.



② 당일행사

영신례(迎神禮),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철변두(撤盞豆), 송신(送神), 망예례(望瘞禮)

○ 제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분헌관(分獻官), 당상집례(堂上執禮), 당하집례(堂下執禮), 전사관(典祀官), 대축(大祝), 알자(謁者), 찬인(贊引), 봉향(奉香), 봉로(奉爐), 봉작(奉爵), 전작(奠爵), 사준(司罇)

-헌관

초헌관(初獻官)- 김문수 경기도지사

아헌관(亞獻官)- 이종민 용인문화원장

종헌관(終獻官)- 정래정 영일정씨 포은공파 대종손 소계 3명

-제집사

집례, 감제관, 대축, 좌전작, 우전작, 내봉작, 외봉작, 봉향, 봉로, 사준, 당하집례, 찬인

소계 12인 합계 15인(당상5인, 당하 10인)

○ 진설

제사지낼 때 신위의 오른편에 고기, 젓, 국 등과 같이 젓은 음식을 담아 놓는 나무로 만든 제기.(높고 낮은 것과 깊고 얇은 것, 입구의 직경은 모두 변의 제도에 의한다. 즉 크기는 변과 같다.) 오성위의 경우 12개의 두에 부추김치, 죽순김치(도라지로 대응), 무김치, 미나리김치, 소고기 젓, 물고기 젓(조기젓), 토기고기젓, 소고기 장조림, 천엽, 돼지 겨드랑이 고기, 경단, 부꾸미를 담는다. 종향위의 경우 2개의 두에 소고기 젓과 무김치를 담는다.

○ 제례악(祭禮樂)

포은선생 추모 제례악은 문묘제례악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였으며, 악곡은 그대로 두되 악장은 행사취지에 맞게 가사를 고쳤다.

문묘제례악은 중국에서 넘어 온 아악 계통의 음악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연주되는 음악이며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음악이다.

15곡으로 작곡되었으며 1곡은 8구로 되어 있고, 1구는 4음으로 짜여 있으며 각 음의 길이가 일정하다. 연주하는 위치에 따라 돌출계 위쪽은 등가, 아래쪽은 현가라고 구분한다. 악기 편성은 우주의 재료인 팔음(八音)을 모두 사용한다. 금, 슬, 훈, 축, 어, 편종, 편경, 진고, 응고, 비고 등이 사용되며 향악기는 쓰이지 않는다.

○ 일무(佾舞)

제례 때 행해지는 춤은 文舞(문무)와 武舞(무무)가 있는데 이를 일무(佾舞)라 부른다. 일(佾)은 열(列)과 같은 뜻이다. 가령, 팔일은 팔열이다. 무희의 수는 한 열에 8명씩이다. 품계에 따라 구성원인이 다른데, 천자는 팔일무, 제후는 육일무, 대부는 사일무, 사(士)는 이일무를 사용하였다. 포은선생의 경우는 대부의 품계에 따라 사일무로 구성하였다. 영신례 전폐례 초헌례에서는 문무(文舞)를 추고, 아헌례 종헌례에서는 무무(巫舞)를 춘다. 철변두와 송신례는 일무를 추지 않고, 망료는 음악과 춤이 모두 없다.

(3)준비사항

구분	준비물품	수량	비고
제례복	헌관 제례복	3벌	당상관
	집례관, 감제관복	2벌	당상관
	제집사 제례복	10벌	
	백색 바지저고리	15벌	
	백색 양말	15개	
제기	작(爵)	7	
	보(篚)	2	생쌀
	궤(篚)	2	기장
	등(登)	6	탕기(湯器)(어,소,육)
	산리(山籩)	3	준(樽)청, 탁, 감주
	용작(龍勺)	1	
	향로(香爐)	1	
	향합(香盒)	1	
	촛대(燭臺)	6	준상, 독축
	역(幕)	3	
	목두(木豆)	12	6두
	죽변(竹篋)	12	6변
	생갑(牲匣)	4	시성칠체, 우성칠체
제례용품	상(床)	4개	준상, 축상, 망료상, 음복상
	축함(祝函)	1	
	축판(祝板)	1	축함내부에 있음
	백색 보자기	1	매축함을 싸는 용도
	청사초롬	2개	대형, 목제 손잡이 포함 (제례용)
	청사초롬	20개	중형, 영모재 및 입구에 설치
	폐비(幣篋)	1	
	폐백(幣帛)	1매	베(麻布) 30×40cm
	목향(木香)	1홉	
	번개탄, 숯	2개	
	성냥, 라이타	1	
백지(모조지)	20매	상석, 제상 덮개용	
제례용품	고무밴드	20개	
	투명비닐(랩)	1매	50×40cm 이상(죽변 안 바닥에 깔)
	들기름	1홉	탈지면 심지 2개
	등잔	2개	사기등잔(소형)
	양초	10개	대형
	옥양목	0.5필	신도설치용

	백색 수건	4개	대2, 소2	
	배석(拜席)	7개		
	화선지	2매	전지, 도기, 축문용	
제수용품	생쌀(白米)	4되	보(簋)	
	기장(黍米)	4되	궤(簠)	
	우생(牛牲)	14근	생(生)쇠고기 7가지 부위(七體)	
	시생(豕牲)	14근	생(生)돼지고기 7가지 부위(七體)	
	청주(淸酒)	4되	제주	
	탁주(濁酒)	4되	"	
	감주(甘酒)	4되	"	
	탕(湯)	6흡	어탕, 소탕, 육탕	
	형염(形鹽)	2흡	왕소금	
	어숙(魚鱸)	2근	명태 또는 대구포	
	건조(乾棗)	2근	말린 대추	
	울황(栗黃)	2근	피 밤	
	육포(肉脯)	2근	소고기 육포	
	분자(粉糝)	2근	인절미	
	구저(韭菹)	2근	부추김치	
	청저(靑菹)	2개	무청김치	
	탐해(醃醢)	2근	소고기조림	
	어해(魚醢)	4마리	조기	
	치해(雉醢)	2근	꿩고기조림	
	근저(芹菹)	2근	미나리김치	
	관세용 물	10ℓ	1통	
	복지(백지)	1매	전지, 잘라서 사용 작(爵)을 싸는 용도	
	음수대	냉온수기	3대	이하는 백일장현장에 설치 공동사용함
		샘물	10통	
종이컵		1,000개		
커피		500포		
녹차		500포		
티스푼		500개		
의료반	구급약 및 상비약			
기타	음향 및 영상시설	1세트	마이크-집레, 당하집레, 도창, 악(樂)2개	

(5)시나리오

○ 사회 :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서 왕림하여 주신 참배객여러분과 내빈 및 종친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인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에 분연히 몸을 던진 충신과 열사가 많이 배출되었고 그분들의 유택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역사상 대표적 충신이며 유림의 조종으로 추앙을 받으시는 포은 정몽주선생님의 제례를 모시게 된 것은 더할 바 없는 영광이요 점점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에 밝은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뒤면 제례가 거행 되겠습니다. 오늘 제사를 직접 봉행하게 될 제관들과 집사들이 현재 아래편 재실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면에는 음악을 연주하게 될 악사들과 춤을 추게 될 일무원들이 좌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례의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에는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김 문수지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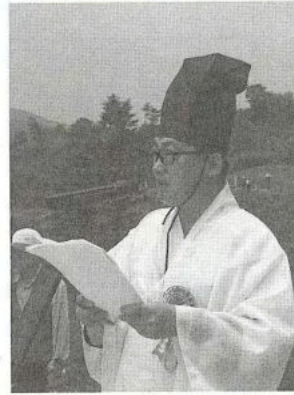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에는 우리 8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서 이종민 용인문화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잔을 올리는 종헌관에는 포은정몽주선생의 25대 종손이신 정내정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제례를 고증하고 집례를 맡아 수고하실 분은 종묘제례 기능보유자이신 무형문화재53호인 이형렬 선생이 맡아 주셨습니다.

이제 헌관과 집사들이 묘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시작으로 추모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막 헌관과 집사들이 묘의오른쪽 계단을 따라 묘역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묘역위에 올라가서 각자의 위치에 서면 집례가 읽는 제례진행순서를 적은 홀기에 따라 제례가 시작되겠습니다.



○ 추모제례 : 포은묘제홀기(圃隱墓祭笏記)

• 집례 : 집례찬의선재배각취위

사회 : 집례와 찬의는 두 번 절하고 각자의 자리로 가시오.

• 집례 : 악사솔악원일무원입취위

사회 : 악사장은 아사와 일무원을 거느리고 봉무할 자리로 가시오.

• 집례 : 제집사입취배위북향립진홀

사회 : 모든 집사는 절할 자리로 들어서서 북쪽을 향해 서고 홀을 꽂으시오.

• 집례 : 국궁재배홍평신집홀

사회 : 제집사는 무릎 꿇고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찬의인제집사예관세위세홀각취위

사회 : 찬의는 모든 집사를 관세위로 인도하여 손을 씻게 하시오.

지금은 제례를 시작하기 위하여 헌관 집사가 제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 초헌관에게 제례의 시작을 청하게 되겠습니다.

• 집례 : 각취위진홀

사회 : 제 집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홀을 꽂으시오

• 집례 : 찬의인제헌관입취배위서향립

사회 : 찬의는 모든 헌관을 절할 자리로 인도하여 서쪽을 향해 서도록 하시오.

• 집례 : 참반원입취배위북향립

사회 : 참반원은 절할 자리로 들어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참배객 여러분들은 묘소를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참배객 여러분들은 앉은 신체로 정면을 향하여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례 : 헌가작응안지락열문지무작

사회 : 헌가에서 응안지락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열문지무를 추시오.

• 집례 : 찬의예초헌관지전계청행사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의 앞에 이르러 행사시작을 청하시오.

• 집례 : 제헌관 진홀

사회 : 제 헌관은 홀을 꽂으시오

• 집례 : 국궁재배홍평신 집홀

사회 : 찬의는 모든 헌관을 인도하여 무릎을 꿇고 두 번 절하고 들어서서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참반원국궁재배홍평신

사회 : 참반원은 무릎을 꿇고 두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참배객들께서는 절을 두 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배객들은 자리가 협소하오니 앉으신 자리에서 머리를 두 번 숙여 예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례 : 악지

사회 : 악을 그치시오.

◎영신례

- 집례 : 행영신례
사회 : 영신례를 행하시오.
이 절차는 향을 사르고 신을 내려 모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집례 : 대축관진찬
사회 : 대축관과 모든 집사는 준상과 제상에 씌워둔 복지를 벗기시오.
- 집례 : 등가작명안지락열문지무작
사회 : 등가에서 명안지락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열문지무를 추시오.
- 집례 : 찬의인초헌관예관세위세홀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 집례 : 잉예묘위전궐 진홀 삼상향
사회 : 다시 묘위 앞에 이르러 꿇어앉아 홀을 꽃고 향합의 향을 세번에 나누어 향로에 넣으시오.
- 집례 : 집폐헌폐
사회 : 폐를 받들어 올리시오.
- 집례 : 부복홍평신 집홀
사회 :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찬의인초헌관환복위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집례 : 악지
사회 : 악을 그치시오.

◎초헌례

- 집례 : 행초헌례
사회 : 초헌례를 행하시오
첫 번째 잔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올리시겠습니다.
- 집례 : 등가작성안지락열문지무작
사회 : 등가에서 성안지락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열문지무를 추시오.
- 집례 : 찬의인예초헌관예준소서향립감작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을 준소로 인도하여 서향으로 서게 하고 제주를 잔에 따르는 것을 살피시오.
- 집례 : 집준관거떡작예주
사회 : 집준관은 덮개를 벗기고 제주를 잔에 따르시오.
- 집례 : 잉예신위전궐 진홀
사회 : 다시 신위 앞에 꿇어앉아 홀을 꽃으시오.
- 집례 : 집잔헌잔
사회 : 잔을 받들어 올리시오.
- 집례 : 대축관계개제제수
사회 : 대축관은 모든 제수의 뚜껑을 여시오.

- **집례 : 초헌관홍소퇴궐**
사회 : 초헌관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 **집례 : 제헌관집사급참반원부복**
사회 : 모든 헌관과 집사 그리고 참반원은 무릎꿇어 앉으시오.
참배객 여러분은 모두 무릎을 꿇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경건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 **집례 : 악지**
사회 : 악을 그치시오.
- **집례 : 대축관초헌관지좌동향궐독축**
사회 : 대축관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집례 : 악작**
사회 : 악을 연주하시오.
- **집례 : 제헌관집사급참반원홍평신**
사회 : 모든 헌관집사와 참반원은 일어나서시오.
참배객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 **집례 : 찬의인초헌관환복배위**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집례 : 악지**
사회 : 악을 그치시오.
- **집례 : 문무퇴무무진**
사회 : 문무를 추는 일원은 물러나고 무무를 추는 일원은 나오시오.

○아헌례

- **집례 : 행아헌례**
사회 : 아헌례를 행하시오.
지금 두 번 째 잔을 이종민 용인문화원장장님께서 올리시겠습니다.
- **집례 : 찬의인아헌관예관세위세홀**
사회 : 찬의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 **집례 : 헌가작성안지락소무지무작**
사회 : 헌가는 성안지락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소무지무를 추시오.
- **집례 : 아헌관예준소서향립감작**
사회 : 찬의는 아헌관을 준소로 인도하여 서향으로 서게 하고 제주따르는 것을 살피시오.
- **집례 : 집준관거떡작양주**
사회 : 집준관은 덮개를 벗기고 제주를 잔에 따르시오.
- **집례 : 잉예신위전궐 진홀**
사회 : 이어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자 홀을 쫓으시오.

- **집례 : 집잔헌잔**
사회 : 잔을 받들어 올리시오.
- **집례 : 아헌관부복홍평신 집홀**
사회 : 아헌관은 부복했다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찬의인아헌관환복배위**
사회 : 찬의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본래자리로 돌아가시오.
- **집례 : 악지**
사회 : 악을 그치시오.

◎ **중헌례**

- **집례 : 행중헌례**
사회 : 중헌례를 행하십시오.
마지막 잔은 정내정 포은정몽주선생 종손께서 올리시겠습니다.
- **집례 : 찬의인중헌관예관세위세홀**
사회 : 찬의는 중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시오.
- **집례 : 헌가작성안지락소무지무작**
사회 : 헌가에서 성안지락을 연주하고 일무원은 소무지무를 추시오.
- **집례 : 중헌관예준소서향립감작**
사회 : 찬의는 중헌관을 준소로 인도하여 서쪽으로 서게하고 제주를 따르는 것을 살피시오.
- **집례 : 집준관거머작청주**
사회 : 집준관은 덮개를 벗기고 제주를 따르시오.
- **집례 : 잉예신위전궤 진홀**
사회 : 이어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자 홀을 꽂으시오.
- **집례 : 집잔헌잔**
사회 : 잔을 받들어 올리시오.
- **집례 : 중헌관부복홍평신 집홀**
사회 : 중헌관은 부복했다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찬의인중헌관환복배위**
사회 : 찬의는 중헌관을 인도하여 본래자리로 돌아가시오.
- **집례 : 악지**
사회 : 악을 그치시오.

◎ **음복례**

- **집례 : 행음복례**
사회 : 음복례를 행하십시오

오늘 제례를 받으신 포은선생님께서 내리시는 복된 음식을 받는 순서입니다.

- 집례 : 집준관음복잔작주
사회 : 집준관은 음복잔에 술을 따르시오.
- 집례 : 찬의인초헌관예음복위서향궐 진홀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 앉자 홀을 꺾으시오.
- 집례 : 대축관봉음복잔우전관취찬예음복위북향궐
사회 : 대축관은 음복잔을 받들고 우전관은 찬을 들고 음복위로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 앉으시오.
- 집례 : 초헌관수잔졸음취찬
사회 : 초헌관은 잔을 받아 마시고 찬을 드시오.
- 집례 : 등가작오안지락
사회 : 등가에서는 오안지락을 연주하시오.
- 집례 : 초헌관부복흥평신 집홀
사회 : 초헌관은 부복했다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찬의인초헌관환복배위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집례 : 대축우전관환복위
사회 : 대축관과 우전관은 제자리로 돌아 가시오.
- 집례 : 제헌관진홀
사회 : 모든 헌관은 홀을 꺾으시오.
- 집례 : 국궁재배흥평신 집홀
무릎 꿇고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악지
사회 : 악을 그치시오.

○송신례

- 집례 : 행송신례
사회 : 송신례를 행하시오.
제수를 거두고 신을 전송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 집례 : 대축관철변두
사회 : 대축관은 변과 두를 물리시오.
- 집례 : 헌가작응안지락
사회 : 헌가는 응안지락을 연주하시오.
- 집례 : 제헌관진홀 국궁재배흥평신 집홀
사회 : 모든 헌관은 홀을 꺾고 무릎 꿇고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참반원국궁재배흥평신
사회 : 참반원은 무릎 꿇고 두 번 절하고 일어나시오.

참배객 여러분은 두 번절을 올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참배객 여러분은 앉은자리에서 고개를 두 번숙여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례 : 악지
- 사회 : 악을 그치시오.

○망료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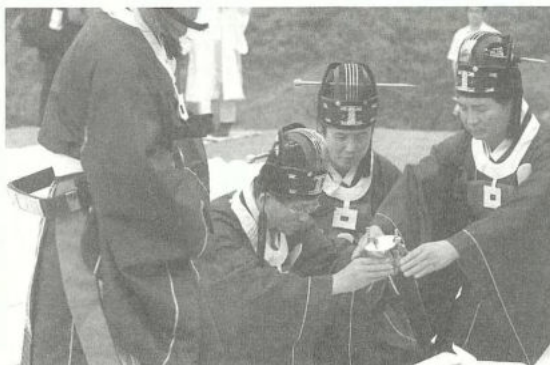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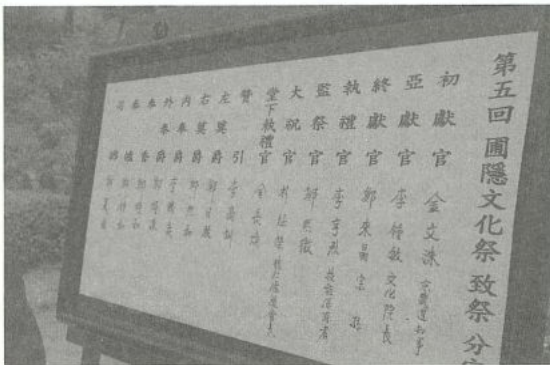
- 집례 : 행망료례
- 사회 : 망료례를 행하시오.
축문과 폐를 태우고 제례를 마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 집례 : 찬의인초헌관예망료위북향립
-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을 망료위로 인도하여 북향해 서게 하시오.
- 집례 : 대축관취축폐예망료위
- 사회 : 대축관은 축과 폐를 취하여 망료위로 나가시오.
- 집례 : 가료
- 사회 : 축과 폐를 태워도 좋습니다.
- 집례 : 대축관봉축폐분어료소
- 사회 : 대축관은 축과 폐를 받들고 료소에 가서 태우시오.
- 집례 : 대축관초헌관지전고례필
- 사회 : 대축관은 초헌관의 앞에서 예를 마쳤음을 고하시오.
- 집례 : 찬의인초헌관환복위
- 사회 : 찬의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집례 : 대축관환복위
- 사회 : 대축관은 제자리로 가시오.
- 집례 : 찬의인제집사환복배위
- 사회 : 찬의는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집례 : 제집사진홀
- 사회 : 모든 집사는 홀을 꽃으시오.
- 집례 : 국궁재배홍평신 집홀
- 사회 : 모든 집사는 무릎 꿇고 두 번 절하고 일어나 홀을 잡으시오.
- 집례 : 악사술악원일무원퇴출
- 사회 : 악사장은 악원과 일무원을 인솔하여 물러나가시오.
- 집례 : 예필
- 사회 : 모든 예를 마쳤습니다.
- 집례 : 집례찬의환복배위재배홍평신
- 사회 : 집례와 찬의는 제자리로 돌아가 두 번 절하고 일어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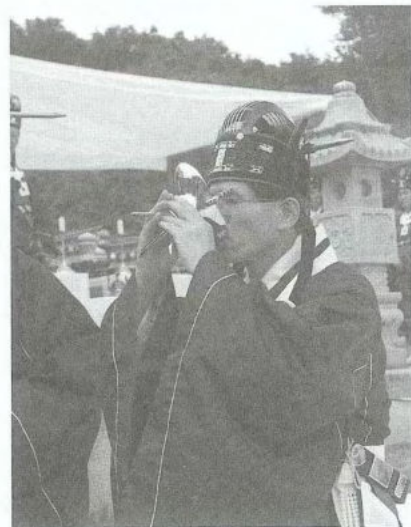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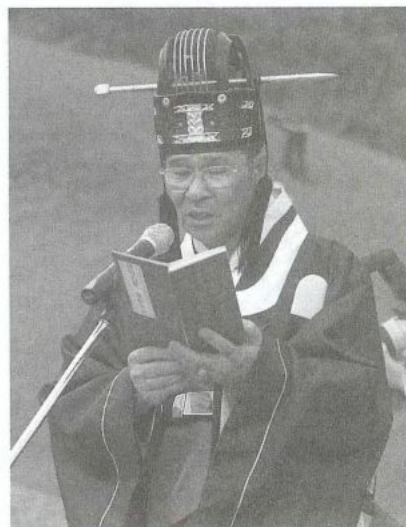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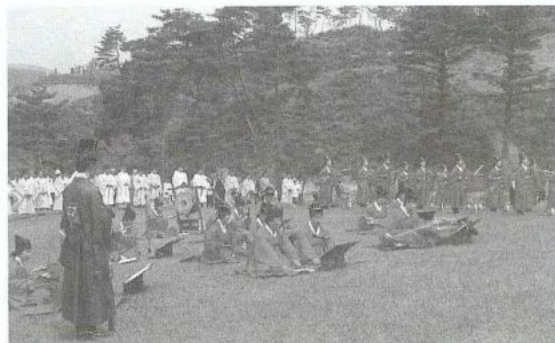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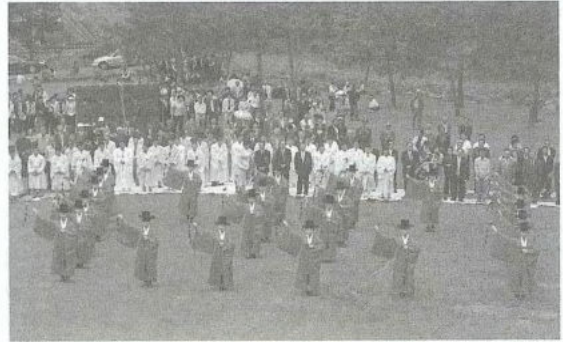
이상으로 포은 정몽주 선생을 추모하는 제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참배객 여러분들은 기념식장으로 가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평가 및 개선방향

- 종묘 제례악 문무나 무무는 고증과 규정대로 치제의 전통성 재현이 바람직
- 사회자 마이크, 앰프 전달 미흡
- 묘소앞 멀티비전의 위치가 먼 관계로 기념식장에서 관람하기엔 거리가 멀고, 뒤로 앉아 관람해야 하는 불편함 초래
- 취재시간 단축, 당하집례에 별도 안내
- 추모제례를 치제로 불러도 무방함
- 도지사 초헌관은 지자체 축제에서 경기도문화축제로 정책적 방향제시
- 고유제, 치제의 행사비 전액은 포은공파종약원에서 후원하며, 종친회 성격의 행사를 문화원에서 개최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





8. 포은상(圃隱賞)

(1)의의 및 방향

- 포은정몽주선생의 위업을 재조명하는 제5회 포은문화제 개최를 계기로 용인이 '동방의 예학(禮學)과 '동방성리학(東方性理學)의 성지(聖地)'로서 용인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드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포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포은선생의 忠, 孝, 禮 사상을 이어받고자 함.

(2)개 요

- 일 시 : 2007년 5월 19일(토) 13:40-14:10
- 장 소 :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 묘역 행사장 가설무대
- 대 상 : 용인시 관내 공직자 및 용인시민
- 시 상 : 충, 효, 예 3개 부문 각1명 선정

(3)세부계획

○ 수상자 선정기준

- ▲충상-용인관내 공공기관(관공서:시,구청,읍면동,경찰서,소방서) 직원중 국가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을 추천받아 본 문화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 후 당일 행사장에서 시상.
- ▲효상-용인관내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선행이나 효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을 추천받아 본 문화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 후 당일 행사장에서 시상.



▲예상-용인관내 거주자로서 예의범절과 도덕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을 추천받아 본 문화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 후 당일 행사장에서 시상.

○ 수상자 선정일정

-신청대상 : 총상- 용인관내 관공서근무자 중 1명

효상- 용인관내 일반인중 1명

예상- 관내 일반인중 1명

○ 심사일정 : 2007년 5월 10일(목) 13:00 (용인문화원 회의실)

○ 심사위원 :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 포은상 분과

○ 심사발표 : 2007년 5월 11일(금) 개별통보 및 용인문화원 홈페이지 게재

○ 시상일정 : 2007년 5월 19일(토)13:40 기념식 장소

○ 포은상 대상자

상명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상금
총상	상갈동장	황병국	610619	016-354-7019	수원 영통구 매탄동	100만원
효상	풍덕천1동	김윤배	490828	019-9236-0096	수지풍덕천동	100만원
예상	용인시미망인회	이상금	511225	011-9784-0958	포곡 삼계4리	100만원



9. 기념식

(1)의의 및 방향

- 제5회를 맞이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적이고 안정된 기틀을 마련하고, 대내외적으로 용인은 물론 경기도, 전국적으로 포은문화제를 알리기 위한 기념식 거행
- 대내외귀빈의 초청으로 포은선생을 용인의 문화인물로 부각시키고 행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모제례에 참가하는 등 전통문화행사를 보존 전승하는데 큰 의의를 가짐

(2)개 요

- 일 시 : 2007. 5. 19(토) 13:40
- 장 소 :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 묘역 행사장
- 진행순서
 - 식전행사
- 사물놀이 : 한국종합예술학교
- 피리독주 :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정재국선생
 - 기념식순
- 내빈소개 : 김장호 문화원 부원장
- 개 회 : 박환신 문화원 사무국장
- 포은상 시상 : 이종민 문화원장
 - 忠상 황병국 (용인시 상갈동장)
 - 孝상 김윤배 (수지구 풍덕천1동)
 - 禮상 이상금 (용인시미망인회)
- 경과보고 : 조길생 포은문화제추진위원장
- 대회사 : 이종민 용인문화원장
- 기념사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축사 : 이정문 용인시장, 조성욱 용인시의회의장
- 환영사 : 정춘영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이사장

(3)평가 및 개선방향

-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 본부가 미비하고 본부석에 상주인원이 적음
- 사회자는 사무국장이 적당
- 대회장, 추진위원장, 사무국, 추진위원의 역할분담으로 연계성 확보→ 내외귀빈 안내 및 접대 철저



10. 민속공연

(1)의의 및 방향

- 우리 전통의 민속공연을 즐기면서 관객이 자연스럽게 흥을 돋우며 결집되는 효과로 축제문화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 포은선생을 지역의 문화인물로 축제화하여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한마당 축제로 끌어내어 포은문화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있다

(2)진행순서

- 사물놀이 :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예술팀20명
- 피리독주 : 가산 정재국선생
- 회심곡 : 박상옥외 전수생5명
- 태평무 : 문화원 무용교실10명
- 바라춤 : 박상옥외 전수생10명
- 변강쇠타령 : 박상옥외 전수생5명
- 노랫가락, 청춘가, 태평가 : 문화원 민요교실15명
- 경기산타령 : 김권수
- 부채춤 : 문화원 무용교실15명
- 배치기, 뱃노래, 잣은뱃노래 : 박상옥외 전수생15명
- 합창곡(용인애향가, 푸르른바람아, 가시리) : 문화원 합창단30명(지휘 김정승/반주 유민주)



11. 상산제

(1)의의 및 방향

- 내용 : 상산제는 나라를 위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충신을 모시는 곳을 말한다. 곳 중 에서도 최고의 상신으로 모시는 곳이다.
- 유래
 - 상산제는 보통 장례를 치룬후 삼우제 또는 칠칠일사십구제 백일제때 가신 포은정몽주 선생이 망제 극락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무녀의 몸에 뉘 올려 만단설화 하고 생전에 못 다한 말을 나누며 친지나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며, 망자는 길베 갈라서 구천을 떠돌지 아니 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며 삼베 길을 갈라 남아있는 식구 또는 장례에 다녀간 각인각성이 편안하게 하는 의식이다.
- 배경
 - 포은정몽주 선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어 한을 달래기 위해 추모하며, 포은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포은선생을 상신으로 모시는 상산제(굿)로 과거부터 용인지역 토토행사나 무속인들은 포은제군, 승장 김윤후, 홍장군(홍계시)등을 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에 와룡선생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포은제군을 글문신으로 승전 및 상산거리에 모셔지고 있다.

(2)개 요

- 일 시 : 2007. 5. 19(토) 14:20-15:50
- 장 소 : 포은선생 묘역 행사장 가설무대
- 주 관 : 할미성대동굿 보존회 회원 15명 (회장 유성관)
- 행사내용 : 청궁맞이 칠성, 제석거리, 신장 대감놀이, 대신거리, 작도거리 당성주맞이, 창부거리

(3)진행순서

- 구성
 - 부정 물림 및 가망 청배 : 주위의 부정을 물리고, 금일 모셔야 할 신령을 청배한다.
 - 전거리, 장군 물림 : 옥황상제 삼부인 관운장 단군할아버지 등 높은 신령을 청배하여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통일을 기원한다.
 - 초영실 : 금일 모시고자 하는 망제님을 모시고, 뉘두리를 하며 생사와 같이 연전되어 만신의 몸을 빌어 자손과 대화하고 원한을 풀어나간다.
 - 사자삼성 : 망자를 모시고 왔다가 가는 삼사제를 대우하고, 못다한 망제의 사연을 사자를 통해 들으며, 사자제담으로 울구불구하며, 굳어졌던 마음이나 엄숙함을 해학적으로 풀어나간다.
 - 말미, 길뉘음 : 칠공주 말미(바리공주)를 청배하여 축원하며 극락세계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후영실과 함께 길뉘음을 한다. 길뉘음은 소창과 삼베를 가르며 나가면서 저승가는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를 지닌 곳의 한 과정이다.

(4) 평가 및 개선방향

- 홍보물에 상산제 프로그램 누락으로 홍보 저조
- 예산부족으로 출연진 축소, 프로그램상 마지막 순서와 우천관계로 관객이 귀가하여 공연하는데 의의가 없음
- 시간관계상 단축공연으로 준비한 공연내용을 짧게 보여줄 수 밖에 없어 큰 아쉬움과 지속적인 상산제 개최의 한계



12. 사진전시

(1)의의 및 방향

- 행사별 작품사진30점 전시⇒천장행렬, 추모제례, 상산제, 상여놀이대회 등
- 제3회 사진촬영대회시 작가사진 전시로 자연스러운 행사홍보 및 관객의 볼거리제공

(2)개 요

- 일 시 : 2007.5.18-19일(2일간)
- 장 소 : 풍덕천1동 새마을공원, 포은선생묘역
- 작품수 : 사진작가 작품 30점
- 주 관 : 신성우 작가(용인시지부초대 지부장 역임, (현)예림원 원장)

(3)평가 및 개선방향

- 전시작품수 대폭 확대, 풍성한 행사장 연출과 자연스러운 모습의 사진 병행
- 사진작품의 설명으로 관객의 이해 도모⇒자원봉사자 배치로 부연 설명
- 상여놀이, 천장행렬, 추모제례등 행사 종류별 전시



7. 종합 평가 및 전망

행사를 주관한 추진위원회와 참여자 및 행사분과별 종사자, 참관자들이 본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객관적 측면에서 평가하여 잘 된 점은 계승해 나가며, 문제점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실시하는 문화제를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용인시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1) 기본방향에 대하여

- 포은문화제 목표의 명확화로 지역축제의 성격보다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전통성을 강조한 유교적 제례의식의 재현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 행사규모나 내용 면에서 유형의 관광자원보다는 향토문화보존차원의 무형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정문화제로 보존,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자체 의지 제고

(2) 프로그램에 대하여

- 행사 종목마다 행사장의 시간과 장소가 통일되지 않아 홍보상의 어려움과 인원을 모으는데 집중력 떨어짐
- 문화제 본질을 살리면서 지역민과 어우러질수 있는 공간마련→탄천변
- 천장행렬 인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문화제의 지역화에 어려움
- 관내 상여놀이대회의 참가자 한계로 경기도 대회로 확대, 개편 방안
- 포은연극제는 교육적 가치는 인정되나 인물(소재)의 한계로 재검토 사항
- 청소년백일장의 현장실시로 참여인원 증가, 교육적 가치 및 문화유산해설사의 도움으로 문화제 현장실습, 자원봉사확인서 발급등 파급 효과 큼
- 국악경연대회의 수지구 개최는 사전 홍보 매체인 신문, 인터넷, 시청홍보의 적극적인 활용, 게시물의 행사 수 일전 게재 등 시민 자율 참여로 이루어져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내실 있고 시민 공감을 가져온 행사
- 한시대회, 접수, 안내, 급수대 양호, 고선의 공평한 심사로 진행 원활함
- 차별화되고 대표적인 지역문화제로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고증과 토론으로 지역여론 반영

(3) 홍보에 대하여

- 적시에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해 포은문화제 홍보로 인지도 높임 -베너, 애드버튼,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신문, 방송, 인터넷, 전광판, 유인물
- 행사장 입구 가로등에 청사초롱, 배너게시, 애드벌룬은 행사분위기 조성에 큰 효과
- 행사후 2-3일후 홍보물 즉각 철거로 민원 발생하지 않았음

(4) 행사운영에 대하여

-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도지사 도착시 천장행렬 도착과 일치된 점
기념식, 공연장에 많은 인파로 행사장 분위기 고조로 하이라이트 장식
- 4회를 거듭하면서 겪은 행사의 고질적인 문제이었던 시민공감대 형성을 처인구에서 수지구로 옮겨진 점→상여놀이대회,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천장행렬
- 관련 용인경찰서, 처인구청, 수지구청등 기관단체와의 사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교통통제, 보건소 응급차량 대기, 행사장 기물(천막, 책상등)대여, 행사참여
- 추진위원 단체복으로 유건도포 착용은 한시대회와 일체감 조성, 차기 행사복으로 재 사용가능
- 추진위원 분과별 팀원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진행 미흡
- 행사 차량 운행 차질로 일부 행사간 조직적인 연계진행이 미흡
- 문화원 봉사단의 먹거리 장터운영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 및 먹거리 제공
- 축협우유보급은 우유를 권장하는 취지와 지역행사와 업체의 상호발전적인 협력관계로 공감대 형성
- 행사장,본부석,식당의 천막임대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
- 식사관계→참여인원이 3천여명으로 많았으나 모현부녀회의 봉사로 질서있는 식사, 배식으로 순조롭게 진행, 위생적인 식사제공으로 식중독이나 종사자등 사고 없음

(5) 기타 종약원 후원에 대하여 : 26,000천원

- 고유제, 치제 : 14,000천원
-주관 :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
-행사비 일체 : 제수비, 집례, 찬인, 제례악, 일무
- 중식대 : 12,000천원
-주관 : 모현면 부녀회
-참가인원 : 3000명

이항한

일편단심이야

어찌 신하가 두 왕조, 두 임금을 섬길 수 있으랴

(금) 오후 7시 30분
회관 대강당

부록1

홍보물/신문기사

· 용인경찰서
· 영일정씨포은공파 종약원
· 시부, 한국토지공사용인사업단
· 드, GBC-KON, 용인시민신문
· 충렬서원, 용인향교
· 용인축산농협

Poeun festival 2007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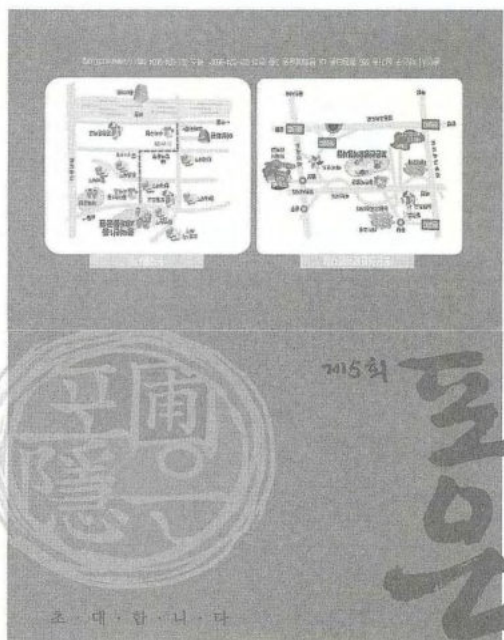


포스터



상어놀이대회 / 청소년국악경연 / 포은연극제 / 포은선생 천장행렬 / 전국한시백일장 / 청소년백일장 / 추모제례

초청장



초대합니다

음인은 예로부터 평범의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전국 유림의 표상이신 포은 鄭夢周 선생의 열이 깃든 고장으로,
포은선생의 위업을 재조명하고 증효여의 열을 기리고자 제5회 포은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삼아늘이대회, 청소년국악경연, 포은연극제, 포은선생 친강행렬, 전국한시백일장,
청소년백일장, 추모제에 등이 펼쳐질 이번행사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어 포은문화제를 더욱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2007년 5월
음인문화위원장 **이종민**
포은문화제 추진위원장 **조길생**

일시 | 2007년 5월 18일(금) ~ 19일(토)
장소 | 오원면 농원리 포은선생묘역, 음인시 여성회관, 수지새마을금회, 문예회관
주최 | 음인문화원 주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 행사일정

간이 행사 5월 18일(금)	09:00~10:00	신상교과제 / 포은선생님
	10:00~11:00	삼아늘이대회 / 수지새마을금회
	14:00~17:00	청소년국악경연대회 / 음인여성회관(수지구)
	18:00~21:00	포은연극제 / 음인문화원
본 행사 5월 19일(토)	09:00~12:00	친강행렬 / 새마을중앙-수지구원, 문헌산책고-국악행사팀
	11:30~12:30	이재갑씨제상대회
	13:30~15:00	청소년백일장대회
	12:00~13:00	포은선생 추모제
	13:40~14:10	기념식
	14:30~15:30	한시경
	15:40~17:40	시상 및 연말행사
	17:00~18:00	폐회식



포은마크

배너시안

제5회 포은문화제

일시 : 2007.5.18(금)~19(토) 2일간
 장소 : 포은선생묘역, 수지지역
 주관 :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www.ycc50.org)

제5회 포은문화제

일시 : 2007.5.18(금)~19(토) 2일간
 장소 : 포은선생묘역, 수지종덕천지역
 주관 : 용인문화원,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www.ycc50.org)

시청전광판

제5회 포은문화제

2007. 5. 18 (금) ~ 19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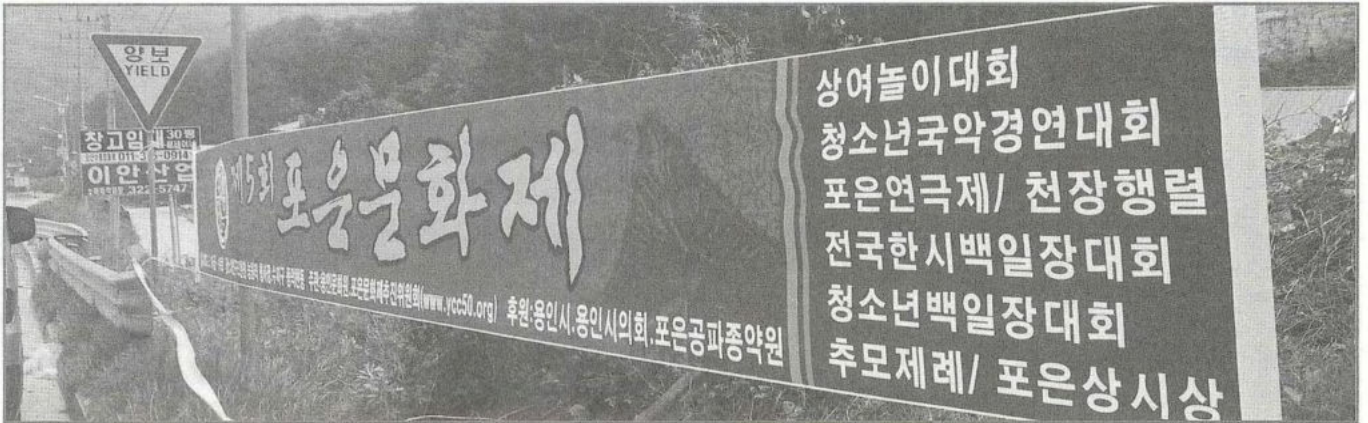
용인문화원 324-9600

제5회 포은문화제

2007. 5. 18 (금) ~ 19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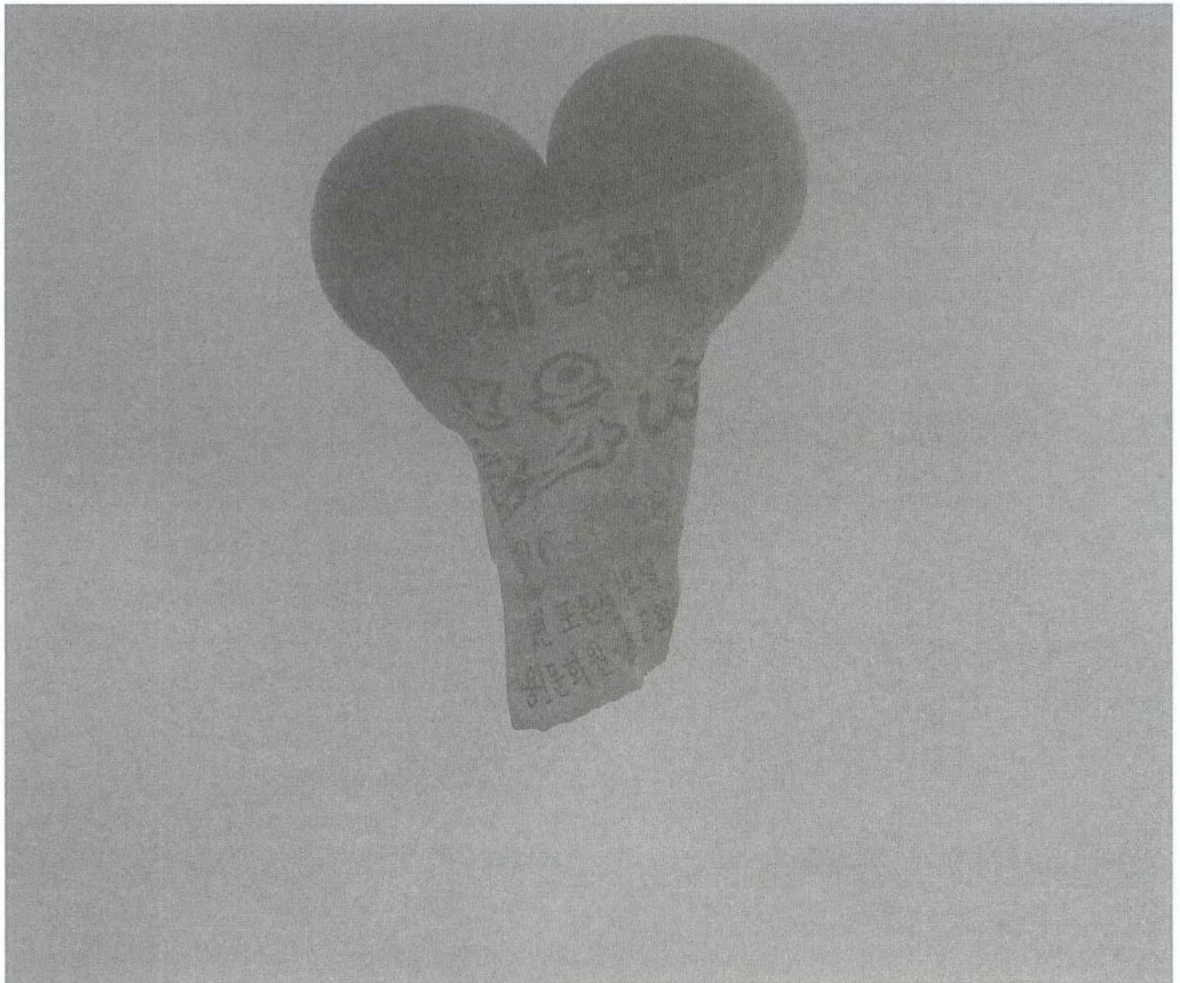
용인문화원 324-9600

현수막



	제5회 포은문화제 상여놀이(선소리) 대회
	● 2007.5.18(금)10:00~13:00 ● 수지풍덕천 1동 새마을공원
	제5회 포은문화제 청소년국악 경연대회
	● 2007.5.18(금)14:00~17:00 ● 수지음인시여성회관
	제5회 포은문화제 전국한시 백일장대회
	● 2007.5.19(토)10:00~12:00 ●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묘역

에드버룬



제 5 회
포 은
문화제
 2007. 5. 18-19
 모현 포은선생묘역, 수지지역
 용인문화원·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

제 5 회
포 은
문화제
 2007. 5. 18-19
 수지지역, 포은선생묘역
 용인문화원·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

제 5 회
포 은
문화제
 2007. 5. 19
 모현면 포은선생묘역
 용인문화원·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

용인시민신문 전면

용인시민신문
전면광고
제309호 2007년 4월 19일 목요일 16

정몽주 선생의 선비정신과 충절을 본받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포은문화제가 오는 5월 18일 금요일과 19일 토요일 2일간 열립니다. 용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7년 5월 18일(금) ▶ 5월 19일 2일간

수지 여성회관, 수지체육공원,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묘역

주최 | 용인문화원 주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후원 | 용인시, 용인시의회, 압일정씨포은공파중앙회
 협찬 |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주)서울레이크사이드, 용인교육청, 충렬서원, 용인예총, CBCKON,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5th 포은문화제



전

국한시백일장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

소년국악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구분	참가부문	특기사항	비고
성인	경가	자유곡, 고수 대동	*연주제한시간 성악부문: 5분 기악부문: 10분
	피아노병창	자유곡, 고수 대동	
어린이	경가	자유곡, 반주 본인 준비(CD 포함)	*연주제한시간 성악부문: 5분 기악부문: 10분
	단소 합주	자유곡	
기악	기악합주	자유곡	*연주제한시간 성악부문: 5분 기악부문: 10분
	기악합주	자유곡	

○ 접수 수 : 2007년 5월 1일(월)~12일(금) 17:00까지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
 ○ 접수처 :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문화예술원 3층
 전화 : 324-9600, 9633 / 팩스 : 324-9634 / e-메일 : yic133@hanmail.net

청

소년백일장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접수 : 2007년 5월 1일(월)~12일(금) 17:00까지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
 ○ 접수처 :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문화예술원 3층
 (전화 : 324-9600, 9633 / 팩스 : 324-9634 / e-메일 : yic133@hanmail.net)

○ 참가인원 : 초등학교 6학년 중 1~2명, 중·고등학교 학교당 1~2명씩 제한함
 - 초등학교 88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8개교 = 200명 이상 이상
 ○ 원고분량 : 산문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 제출방법 : 주최 측문화원에서 적인 날인하여 배부한 원고지 10매에 신문을 지어 함장 접수대에 제출

상

여놀이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07년 5월 1일(월)~12일(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 읍면동 신청 : 용인시 관내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전소리 1명 상무꾼 12명 내외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지로 구성
 참가신청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
 - 문화원 신청 : 사무국에 우편접수,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가능함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
 ○ 접수처 :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문화예술원 3층
 전화 : 324-9600, 9633 / 팩스 : 324-9634 / e-메일 : yic133@hanmail.net
 ○ 행사도구 : 상여는 행사본부에서 마련한 상여(양용)를 사용

청

소년백일장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접수 : 2007년 5월 1일(월)~12일(금) 17:00까지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
 ○ 접수처 :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문화예술원 3층
 (전화 : 324-9600, 9633 / 팩스 : 324-9634 / e-메일 : yic133@hanmail.net)

○ 참가인원 : 초등학교 6학년 중 1~2명, 중·고등학교 학교당 1~2명씩 제한함
 - 초등학교 88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8개교 = 200명 이상 이상
 ○ 원고분량 : 산문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 제출방법 : 주최 측문화원에서 적인 날인하여 배부한 원고지 10매에 신문을 지어 함장 접수대에 제출

용인신문



포은 정몽주 선생은 80만 용인시민의 일입니다.
 포은문화제를 계기로 용인이 '동방심리학의 성지'로 재인식되길 기대하며,
 포은선생의 위업을 재조명하는 이번 행사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18일(금) - 5월 19일(토) 2일간

- **장 소**: 수지 여성회관, 수지체육공원,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묘역
- **주 관**: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 **주 최**: 용인문화원
- **후 원**: 용인시, 용인시의회, 영일정씨포은공파중앙회
- **협 찬**: 용인신문,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주)서울레이크사이드, 용인교육청 총렬서원, 용인예총, GBC-KCN 용인시민신문

■ 제5회 포은문화제 행사일정

연차	시간	행사명	장소	주최/주관	비고
전야행사 5월 18일(금)	09:00-10:00	신선, 고유제	포은문화제행사 기막을 고하는 절식	포은선생묘역	영일정씨 포은공파중앙회
	10:00-12:00	참여놀이(신소리)대회	용인권내 참여(신소리)대회	수지체육공원	분과별 추진위원회
	14:00-17:30	청소년역량강화대회	상역, 기막부문 경연대회	수지여성회관 (문어울마당)	
	19:30-21:30	포은 연극제	포은선생 주제 연극제	문화회관	
본 행사 5월 19일(토)	09:30-12:00	포은선생 현상발행	현상액(상여방명) 제현	□고사: 세마을공원 →수지구청 □그사: 모현선묘역 →묘역행사장	
	10:00-12:00	한국현대사역량강화대회	사제: 忠義其日月 (6월중 1주 당일발표)	묘역행사장	
	10:00-15:00	청소년역량강화대회	초등6년, 중등부, 고등부 글짓기대회	포은선생묘역	
	12:00-13:30	포은선생 추모제	포은선생지제(현상) 제현	묘역행사장 가설무대	
	13:40-14:10	기념식	포은선생(충·효) 예시 시상	묘역행사장 가설무대	
	14:20-15:30	전 흥제	전흥제 제현	묘역행사장 가설무대	
	15:40-17:40	시상 및 공연행사	행사·백일장 시상식 번속공연(사물,현악,민요명창)	묘역행사장 가설무대	
	17:50-18:00	폐회식			
포은문화제 평가회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회 및 박람회	사무국			

▼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세~12세 소년·소녀가장대회

- **장 소**: 2007년 5월 18일(금) - 12일(토) 17:00까지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
- **접수처**: 우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기동 556 문화예술회관3층 (전화: 324-9800, 9833 / 팩스: 324-9834) 이메일: yci133@hanmail.net
- **경연순서**: 관소리, 가요발행, 경기민요, 단소 및 가야금 합주 순으로 경연하며, 참가자 경연 순서는 13:00 행사장에서 추첨으로 결정
- **심사위원**: 국악과 교수 및 국악인 3인 초빙
- **시상내역**
 - 대상 1명 용인교육장상 및 상금 30만원 - 금상 2명 용인교육장상 및 상금 각 20만원
 - 은상 4명 용인교육장상 및 상금 각 10만원 - 동상 7명 용인문화원장상 및 상금 각 5만원
 - 장려 15명 용인문화원장상 및 문화상품권(3만원)

13세~18세 청소년음악가대회

- **참가자격**: 2007년 5월 18일(금) - 12일(토) 17:00까지
- **신청방법**
 - 용인동 신청: 용인시 지역내 읍면동사무소 읍면 동청과 추천을 받아 관소리1명 상두관 12명 내외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지로 구성하며, 참가신청은 용인동청 홈페이지 신청
 - 문화원 신청: 사무국에 우편접수,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가능함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
- **접수처**: 우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기동 556 문화예술회관3층 (전화: 324-9800, 9833 / 팩스: 324-9834) 이메일: yci133@hanmail.net
- **평가 항목**: 참여(신소리·관소리), 관악(현악·관악), 전채적인 조화, 각 코스별 대적 능력
- **경연 시간**: 당일 30분
- **평가 방식**: 심사단 평가 접수

19세~24세 대학생음악가대회

- **참가자격**: 현지 창작 가능자(연령, 상벌 제한 없음)
- **참가방법**: 2008(행사진행) 관례로 부속이 신청으로 제한하고 연과 시는 개별 전화로보워에오나 기별 전화보로 기입요함.
- **신청방법**: 문화원 사무국으로 우편접수용 원치로 함 (10층 아래 단체접수가능)
- **접수시간**: 2007년 5월 12일(토) 5시~
- **교재**: 충충동요
 - 시집: 7월동시 - 일출: 5자 중 4자는 미리 발표 (1자는 露日(월))
- **심사**: 고선영(현악) 담당 발표회
- **행사시간**: 당일 오후 12시
- **심사방법**: 당일 오후 4시 발표 후 시상

25세~34세 대학생음악가대회

- **추진방향**: 용인문화원과 용인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용인지역내 각급 초·중·고등학교 공문 발송하여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며, 최우수상은 용인교육청장으로 학교 내 신청자에 반영토록 함
- **참가연령**: 초등학교 6학년중 1~2명, 중·고등학교 학교당 1~2명씩 제한함
 -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8개교 ~ 200명 이상 예상함
- **심사위원**: 각계 전문가 7명 (민간단체, 문학회, 교육청, 대상교, 문화원)
- **경연분량**: 신곡 20자 원고지 10매 이내
- **예출발방**: 주최측(문화원)에서 직인남인하여 배부한 원고지 10매에 신문을 차여 현장 접수대에 제출
- **신청접수**: 2007년 5월 18일(금) - 12일(토) 17:00까지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
- **접수처**: 우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기동 556 문화예술회관3층 (전화: 324-9800, 9833 / 팩스: 324-9834) 이메일: yci133@hanmail.net

용인 시민신문

//용인시민신문 2007년 4월 26일 목요일 제390호(주간)

5th 정몽주 선생의 선비정신과 충절을 본받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포은문화제
오는 5월 18일 금요일과 19일 토요일 2일간 열립니다. 용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은문화제

2007년 5월 18일(금) ▶ 5월 19일 2일간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묘역, 용인시여성회관
수지새마을공원, 문예회관

주최 | 용인문화원 주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후원 | 용인시, 용인시의회, 용인경찰서, 경기도용인교육청, 영일씨씨포은공파중앙회
협찬 | 한국투자공사 용인사업단, (주)서울에이티아이, CBC-KON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용인매춘, 충청서원, 용인향교, 삼척서원,
양지학교, 용인모범문건지회

행사개회일정

5월 18일	5월 19일
09:00-10:00 신신, 고유제 / 개막을 고하는 행차 / 포은선생묘역	09:30-12:00 포은선생 친정행렬 / 새마을공원 - 수지구원, 모현선생고 - 도막정사공
10:00-13:00 상여놀이연소리대회 / 용인관내 상여연소리대회 / 수지새마을공원	10:00-12:00 권국현사립중앙대회 / 사대 - 권국현사립중앙대회 / 수지새마을공원
14:00-17:30 청소년국악경연대회 / 성민가미부문 경연대회 / 수지여성회관	13:00-16:00 청소년국악경연대회 / 오송4차, 오송5차, 오송6차, 오송7차 대회
18:00-21:30 포은선생 추모제 / 포은선생님 제향행사	12:30-13:30 포은선생 추모제 / 포은선생님 제향행사
	13:40-14:10 기념식 / 포은선생 추 - 예시상
	14:20-15:00 상산제 / 상산제 개원
	15:40-17:40 시상 및 공연행사 / 한시 백일장 시상식, 민속공연
	17:50-19:00 폐회식

문의: 용인문화원 | 전화: 324-9600, 9633 | 팩스: 324-9634 | http://www.ycc50.org

용인시 홈페이지

HOME 관광안내도 시민부면 행정자매결연의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기

죽전야외음악다

공연내용보기 ▶

04-25 | -어린이날 특집- 푸른안길극 "휴더미"

04-20 | -어린이날 특집- 애들아 놀자(금요예술마당3)

04-19 | 봄의향연

공연 · 전시 소식

INGIN NEWS

제5회 포은문화제

- 기간 : 2007년 5월 18일~ 19일 (금.토)
- 장소 : 포은선생 묘역(모현면 능원리 산 3번지) 수지새마을공원, 여성회관, 문예회관
- 내용 : 포은 정몽주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위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행사 (상여놀이,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친정행렬, 한시백일장 등)

용인시 매입면

용인시 관광지도를 신청하세요.

Copyright © 2005 YCNC IN City. All Rights Reserved.
449-704 | 경기도 용인시 용인대로 735 (삼가동 588)
TEL : 031-324-3353

주출판인: 용인시
주출판처: 용인시
주편집자: 용인시

용인인터넷 신문



제5회 포은문화제 행사일정

일부	시간	연주단체	연주곡목	장소	주최
관객행사 5월 18일(금)	09:00-10:00	산신, 고유제	포은문화제행사 개막을 고리는 절차	포은신생묘역	영일정씨 포은공파중앙회
	10:00-12:00	삼여놀이(산소리)대회	용인권내 삼여(산소리)대회	수지체육공원	
	14:00-17:30	청소년국악경연대회	삼익,기억부문 경연대회	수지여성회관 (관여중앙당)	
	18:30-21:30	포은연극제	포은신생 주재 연극제	문화회관	
본행사 5월 19일(토)	09:30-12:00	포은신생 천정발원	천정제(삼여발원) 재현	□□□□-세마을공원 →수지구청 □□□□-오현선죽교 →묘역행사장	본지별 추진위원회
	10:00-12:00	전국현사백일장대회	시제: 忠義貫日月 (忠義貫日月 忠義貫日月) 시제: 忠義貫日月 (忠義貫日月)	묘역행사장	
	10:00-15:00	청소년백일장대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국악기대회	포은신생묘역	
	12:00-13:30	포은신생 추모제	포은신생제(發원) 재현	포은신생묘역	
	13:40-14:10	기념식	포은신(송·효·애) 시상	묘역행사장 가실무대	
	14:20-15:30	찬혼제	찬혼제 재현	묘역행사장 가실무대	
	15:40-17:40	시상 및 공연행사	현사·백일장 시상식 민속공연(사물, 합창, 민요경연)	묘역행사장 가실무대	
17:50-18:00	폐회식				
포은문화제 평가회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회 및 백서발간		사무국		

- 장소 : 수지 여성회관, 수지체육공원, 모현면 능원리 포은신생묘역
- 주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 주최 : 용인문화원
- 후원 : 용인시, 용인시의회, 영일정씨포은공파중앙회
- 협찬 : 용인신문,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주)서울레이크사이드, 용인교육청, 충렬서원, 용인예총, GBC-KCN, 용인시민신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1 소년국악양자대회

- 접수 수 : 2007년 5월 18일(금) - 12일(토) 17:00까지
※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우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기동 556 문화예술원3층 (전화 : 324-9600, 9633 / 팩스 : 324-9634) 이메일 ycc133@hanmail.net
- 경연순서 : 판소리, 가악(병창, 경기민요, 단소 및 가리금 협주 순으로 경연하며, 참가자 개인 순서는 13:00 행사장에서 추첨으로 결정
- 심사위원 : 국악과 교수 및 국악인 3인 초빙
- 시상내역
-대상 1명 용인교육장상 및 상금 50만원 - 금상 2명 용인교육장상 및 상금 20만원
-은상 4명 용인교육장상 및 상금 10만원 - 동상 7명 용인문화원장상 및 상금 5만원
-장려 15명 용인문화원장상 및 문화상품권(2만원)

7.2 국악·민요 양자대회

- 참가자격 : 민시 창작 가능자(년형, 성별 제한 없음)
- 참가경쟁 : 2006(민사헌정) 관계로 부득이 선착순으로 제한하고 연원 초과 시는 개별 전화정보 위촉에오니 기별 전하번호 기입요함.
- 신청방법 : 문화원 사무국으로 우편접수를 할지라도 할 (10층 아래 단체접수가능)
- 접수마감 : 2007년 5월 12일(토) 6시
- 노래 : 忠義貫日月
-시제 : 7면용시 - 일문 : 5차 4차는 미리 발표 (1차는 불일출)
- 심사 : 고신위원으로 당일발표함
- 시상마감 : 당일 오후 12시
- 심사발표 : 당일 오후 4차 발표 후 시상

7.3 소년백일장대회

- 추진목적 : 용인문화원과 음악교육원 공동주관으로 용인지역내 각급 초·중·고, 고등학교에 공민문화에 의욕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며, 최우수상은 용인교육장상으로 학교 내 신상리에 반영토록 함
- 참가인원 : 초등학교 6학년중 1-2명, 중·고등학교 학교당 1-2명씩 제한함
-초등학교 85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8개교-200명 이상 예상함
- 심사위원 : 각계 전문가 5명 위촉(문인협회1, 문학회1, 교학회1, 태성고1, 문화원1)
- 응교분량 : 산문 200자 한자 10개 이내
- 제출방법 : 주최측(문화원)에서 작인날인하여 배부한 양지 10매에 신문을 지어 원장 접수내에 제출
- 신청접수 : 2007년 5월 18일(금) - 12일(토) 17:00까지
※ 신청서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cc50.org)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우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기동 556 문화예술원3층 (전화 : 324-9600, 9633 / 팩스 : 324-9634) 이메일 ycc133@hanmail.net

2007년 5월 25일

용인소식

주거정보 전문 용인시

용인소식

시정뉴스는 용인시 홈페이지 www.yonginsil.net

제4호 발행일 : 2007. 5. 25(월) / 비매품 | 발행인 : 용인시장 | 발행처 : 용인시청 공보실 | TEL : 031-324-2061 | FAX : 324-2069 | 전국대표전화 : 1577-1122



- ◀ 기획특보 ▶ 제5회 포은문화제 추모제례 (관련기사 12면)
- ◀ 기획특보 ▶ 흥과 열정의 문화침조도시 용인
- ◀ 탐방 ▶ 누리 지역아동센터 생활체육협의회 탁구연합회
- ◀ 특집 ▶ 유기견 실태보고



용인소식 제84호 2007. 5

포은 정몽주 선생 기리는 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제5회 포은문화제

용인문화원은 포은 정몽주선생의 충의 사상을 선양하는 제5회 포은문화제를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 처안구 모현면 능원리 포은 선생 묘역과 수지 풍덕천동 일원, 용인 문예회관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8일에는 포은 문화제 개막을 고하는 산신제와 고유제가 포은선생 묘역에서 열리고 상어놀이(선소리)대회가 수지 새마을공원에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용인여성회관에서, 포은 연극제는 용인문예회관에서 열렸다.

19일 포은 선생 친장행렬은 수지 새마을공원에서 수지구청까지, 모현면 선죽교부터 묘역 행사장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 한시백일장대회와 청소년 백일장대회는 묘역 행사장에서, 포은 선생 추모제례는 포은 선생 묘역에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포은 선생을 주제로 한 연극을 개최해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이다.

포은문화제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를 개성 태종(몽덕)에서 고향 경북 영천으로 천장(遷葬)하던 중 행렬이 지금의 수지구 풍덕천에 이르렀을 때 별장이 바람에 날려 지금의 묘역에 떨어 진 것을 포은 선생의 뜻으로 알고 용인 모현면 능원리에 장례를 모신 대기원한다. 용인문화원

관계자는 "포은문화제는 옛 선조들의 장례문화를 심미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용인의 전통문화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신문

2007년 5월 23일 수요일 제393호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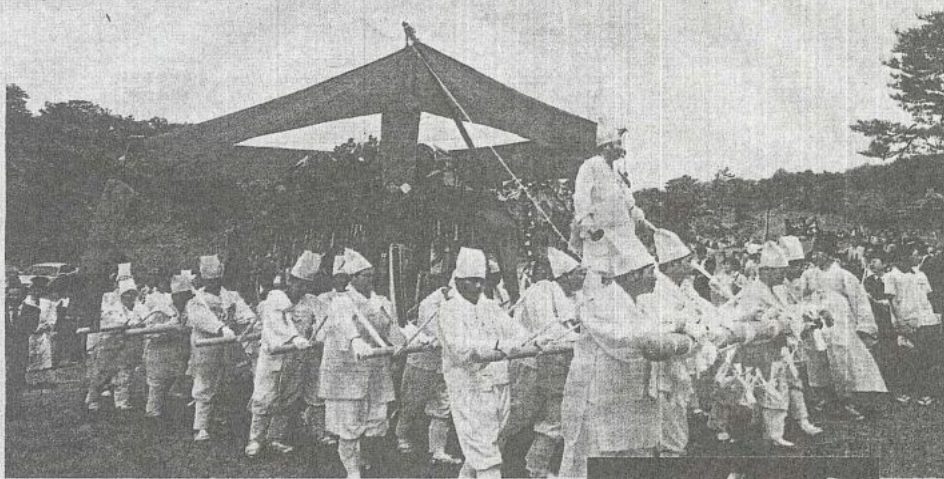
14 제393호 2007년 5월 23일 수요일

문화



포은문화제 성황리 막내려

천장행렬 · 창작 연극 등 다채...상여놀이 등 개선과제로



포은 선생이 신원대 부인 경주이씨와 합장하기 위해 천장(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한 천장행렬. 이날 행렬은 수지새마을공민-수지구청, 능원리 신학교-포은선생 묘역 구간에서 진행됐다.

청소년 국악경연 왕정은앙이 대상

포은 정몽주 선생의 선비정신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열린 포은문화제가 지난 19일 민속공연과 한시·학생백일장 시상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5번째 맞는 이번 문화제는 지난 18일 오전 포은문화제 개막을 알리는 산신제와 고유제를 시작으로 연극과 상여놀이대회, 천장행렬, 추모제례 등이 모현면 능원리 포은선생 묘역과 용인문화회관, 수지새마을공민 등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극단 개벽의 포은 선생의 충절과 사상을 연극적 표현양식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로 재조명한 창작극 '인함한 일관단 심이야'가 무대에 올라 문화제의 의미를 더했다.

첫날에는 상례의식이 갖고 있는 축복의 문화라는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상여놀이대회가 수지 풍덕천1동 새마을공민에서 5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이등

면팀이 대상, 포곡읍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용인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열려 남사중학교 왕정은앙 등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고, 이다은(서용초3) 양과 서원중 박윤정양 등이 금상을 수상했다. 유능한 성리학자이면서 정치가인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주제로 한 연극도 이날 무대에 올려졌다.

극적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고 갈등 구조의 취약성, 2시간에 걸친 긴 시간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지만 정몽주 선생의 사상이 연극무대에 올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이다.

이번날에는 포은 선생이 신원대 부인 경주 이씨와 합장하기 위해 천장행렬을 행렬하는 모습을 재현한 천장행렬과 1시간여에 걸친 추모제례가 포은묘역 등지에서 펼쳐졌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초연관, 이종민 문화원장이 아한관, 정준영 총약원이사장이 총연관으로 참여했다.

그밖에 청소년백일장과 한시백일장이 묘역에서 진행됐으며, 문화유신해설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묘역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포

은 선생과 묘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지역 문화제로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상여놀이대회의 경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경쟁문화태마 축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승태 기자 sthem@yongin21.co.kr

2007년 5월 21일~27일

용인신문

용인신문

2007년 5월 21일 ~ 27일 제678호

ABC 유수광시기구 한국ABC기밀 ISO 9001:2000 ISO 9001 인증 획득 <주간> www.yonginilbo.com 본지는 사단법인 경기도 지역신문협회 회원사입니다.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극단 개벽 창작극 인기...포은문화제 성료

포은 정몽주선생의 충절과 선비정신을 기리는 '제5회 포은문화제'가 용인 문화원(원장 이종민) 주최로 오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포은선생의 묘역과 용인, 수지 등에서 열렸다.

18일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 주관으로 모현면 능원리 포은 선생 묘역에서 문화제 개막을 알리는 산신제와 고유제가 열렸으며 같은 날 저녁 문예회관에서 문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용인에총연극협회 주관으로 포은선생을 주제로 한 포은연극제가 열렸다.

극단 개벽의 창작극인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가 바로 그것.

1388년의 위화도 회군부터 1392년 선죽교까지의 고려사 마지막 4년의 혼돈기의 정몽주선생의 충절을 중심으로 극화된 연극은 200여명의 관객이 찾은 가

운데 열렸다.

극단 개벽의 한원식 단장은 "우리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충절의 대표적인 인물로 존경받는 정몽주 선생의 일대기를 한편의 작품으로 만들기가 많은 부담이 있었다"며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정몽주 선생의 삶을 소재로한 이 작품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자긍심과 문화예술의 향유, 그리고 포은 문화제의 가치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에는 수지새마을공원에서부터 수지구청까지, 모현 선죽교에서 묘역 행사장까지 포은선생 천장례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묘역행사장에서는 전국 한시백일장대회와 청소년백일장대회도 개최됐다.

또 포은 선생을 기리는 추모제례와 함



께 가설무대에서는 포은상 등을 시상하는 기념식 및 진혼제가 재현됐다.

용인문화원은 이틀간의 포은문화제를 마친 후 행사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이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호경 yongin@yonginnews.com>

용인 시민신문

//용인시민신문

2007년 5월 3일 목요일 제391호(주간)

14 제391호 2007년 5월 3일 목요일

18일부터 이틀간 포은문화제

정몽주 묘역 등지서...상여놀이 · 천장행렬 등 다채

포은 정몽주 선생의 우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제5회 포은문화제>가 오는 18-19일 이틀간 모현면 능원리 포은 선생 묘역과 수지새마을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포은문화제는 오는 18일 오전 포은문화제 행사 개막을 알리는 절차인 산신·고유제를 시작으로 상여놀이대회, 포은연극제, 포은선생 천장행렬, 추모제례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역사인물을 지역문화 축제로 발전시키며 주목을 받아온 포은문화제는 지난 2003년 포은 선생이 6월의 문

화인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포은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용인문화원(원장 이종민)이 주최하고 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조길생)가 주관하고 있다.

우선 첫날인 18일에는 선소리로 대표되는 우리 고장의 상례문화를 축제로 발전시키고 전통문화로 보존하기 위한 상여놀이 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수지새마을공원에서 열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용인여성회관과 문예회관에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와 포은 선생의 일편단

심을 주제로 한 연극제가 처음 무대에 오른다.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학술적 고증을 거쳐 인원과 복식, 상여를 재연한 포은 선생 천장행렬이 수지와 모현 일대에서 재현된다. 묘역행사장에서는 전국 한시백일장대회와 청소년백일장대회 등이 열리고, 천장행렬이 도착하면 3시간여에 걸쳐 포은 선생 치제를 재현하는 추모제례와 진혼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기독교계의 반발로 파행을 겪기도 했던 진혼제대회는 올해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합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임양인

일편단심이야

어찌 신하가 두 왕조, 두 임금을 섬길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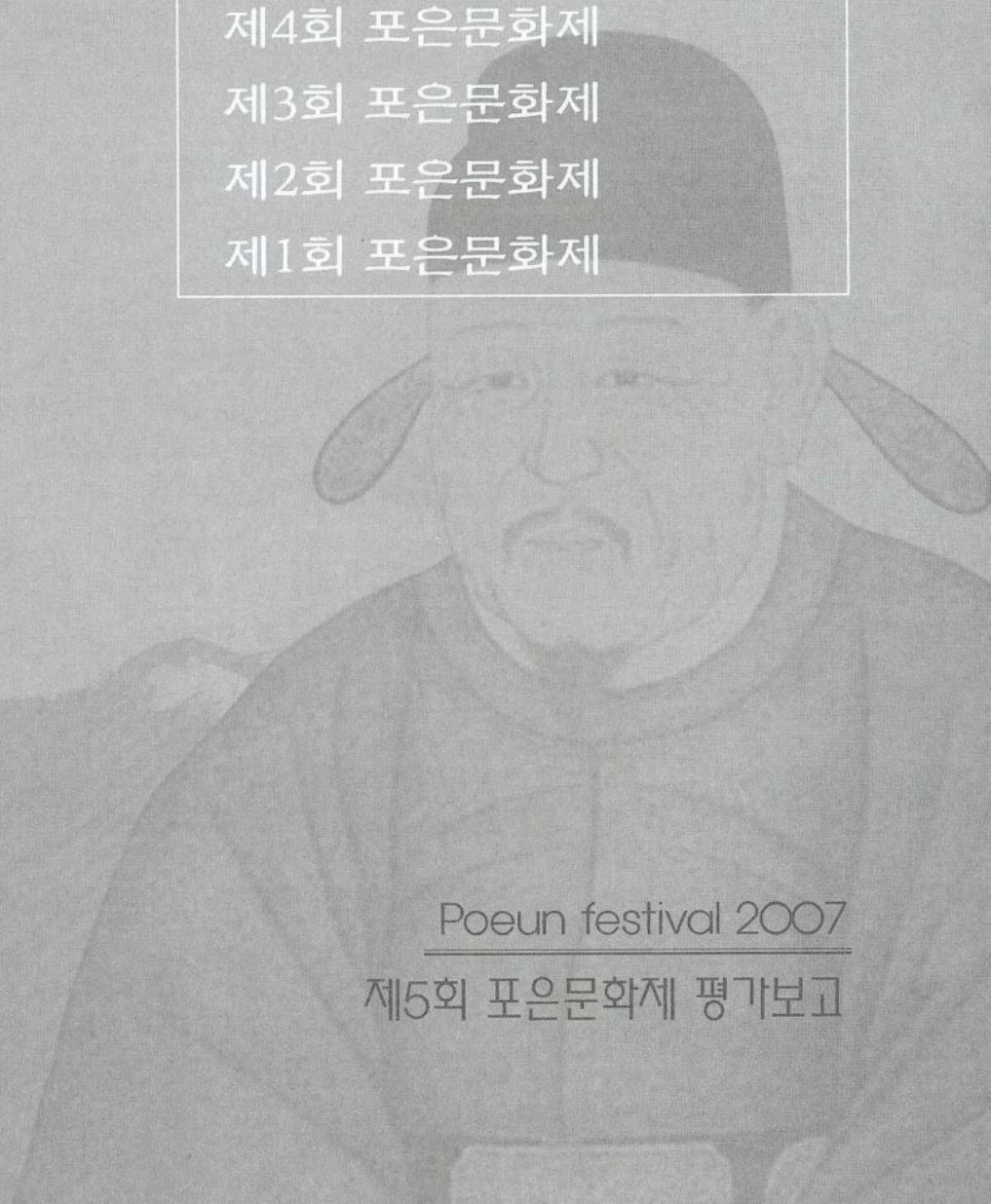
(금) 오후 7시 30분
회관 대강당

부록2

- 제4회 포은문화제
- 제3회 포은문화제
- 제2회 포은문화제
- 제1회 포은문화제

용인경찰서
 영일정서포은공파 종약원
 지부, 한국토지공사용인사업단
 드, GBC-KCN, 용인시민신문
 총렬서원, 용인향교
 용인축산농협

Poeun festival 2007
 제5회 포은문화제 평가보고



2006년 제4회 포은문화제

1) 행사 개요

- 기간 : 2006년 6월 9일 - 6월 11(3일간)
- 장소 : 수지구 새마을공원, 모현면 능원리 묘역
- 주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 주최 : 용인문화원
- 후원 : 용인시, 용인시의회,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 한국토지공사용인지사
- 협찬 : 성균관, 용인교육청, 충청서원, 용인예총, 용인케이블네트워크, 기남방송, 한국민속촌, 용인민예총, 강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2) 운영위원회

명예대회장	용인시장
대회장	용인문화원장
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총렬서원원장, 강남대총장, 용인대총장, 한국외국어대총장, 성균관장, 경기도박물관장,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장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부원장, 모현면시의원,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이사, 문화위원, 영일정씨포은공파종약원 이사

3) 추진위원회

구분	분야	주무		실무위원
행정	행사본부	이종민	정양화	김종규, 주인자, 홍순석, 김장환, 박인선
	행정지원	오세호	이동무	이건영, 문화담당과, 모현면장, 모현농협
행사	기념식	이시우	박환신	(문화위원)
	한시대회	한봉기	정양화	조병호, 양정석, (문화위원)
	천장행사	김장호	이훈구	정의석, (문화위원)
	고유제추모제례	이형열	정연석	정연철, 성균관, 종약원
	상여대회	정인삼	우상표	(문화위원)
	진훈굿대회	홍순석	유성관	진미애, (문화위원)
	국악경연	이오규	김장환	(문화위원)
	초청공연	정창진	변인자	(문화위원)
	시상, 공연	조길생	손대영	이두성, (문화위원)
지원	홍보	심재선	나광덕	경기케이블네트워크, 기남방송, 용인, 시민신문
	교통안내	남석우	유근갑	용인경찰서, 자율방범대(모현)
	후생	이우진	신연화	용인보건소, 119구급대
	차량운행	이근화	이종구	자원봉사자, 모범운전자
	내빈접대	최태진	홍재석	봉사단
	인원동원			모현면, 각 읍면동 (문화관광담당관실)

4)제4회 포은문화제 행사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장 소	주 관
6월 9일 (금)	10:30-11:00	산신제, 고유제	포은문화제행사 개 막을 고하는 절차	포은선생묘역	포은공파 종약원
	13:00-19:00	천장용품 전시	상여소품 전시	수지 풍덕1동 새마을공원	행사본부 행사운영분과
	14:00-16:00	상여놀이대회 (선소리포함)	관내 대항 상여놀이		
	16:30-17:00	기념식	기념행사 및 포은상(圃隱賞)시상		
	17:00-19:00	포은문화제 기념공연	평양예술단공연		
6월10일 (토)	10:00-19:00	천장용품 전시	상여소품 전시	수지 풍덕1동 새마을공원	행사본부 행사운영분과
	13:00-16:00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성악, 기악 부문	수지 풍덕1동 새마을공원	행사운영분과
	16:00-18:00	전국진혼굿대회 국악공연	전국 진혼굿 대회		
	18:30-19:00	경기민요공연	전숙희 외 문하생		
6월11일 (일)	10:30-12:30	전국한시대회	(시제)忠 義 貫 日 月	묘역행사장	행사운영분과
	10:30-13:00	포은선생천장행렬	천장례 재현(길놀이)	풍덕1동 공원 수지구청 앞 능원리묘역	
	13:00-14:00	포은선생추모제례	포은선생치제(致祭)재현	포은선생 묘역	포은공파 종약원
	14:00-16:00	기념 공연	용인문화원합창단 풍물단, 민요교실 농악보존회풍물놀이 국악경연수상자공연	묘역행사장 가설무대	행사운영분과
	16:00-17:00	시 상	한시대회 입상자 시상		행사본부

5)제4회 한시백일장 입상시

壯元

先生卓節振先頭 선생님의 높은 절개 가장위에 떨치니
 善竹橋邊碧血流 선죽교 다릿가에 벽혈을 흘리셨도다
 大義清標搖地軸 대의의 맑은 정표는 지축을 흔들고
 貞忠堅志接天樓 곧은 충정 굳은 뜻은 天樓에 닿았도다
 救邦壯魄千秋赫 나라를 구하려는 장한 넋 천추에 빛나고
 向主丹心萬古休 임 향한 일편단심 만고에 아름답도다
 八道儒林追慕裡 전국의 유림들이 함께 추모하는 가운데
 靈區懿跡永淹留 靈區에 큰 자취 길이길이 머무르리라



住所 江原道 旌善郡 旌善邑 鳳陽1里 34
 雅號 碧菴 姓名 朴 水植



次上

圃翁大節最居頭 포은선생 大節이 가장 위대하시니
 靑史芳名百世流 靑史에 꽃다운 이름 百世토록 흐르네
 義魄長凝陵哭隧 義魄은 길이 능원묘역에 서려있고
 忠魂上徹玉京樓 忠魂은 위로 올라 玉京樓에 사무치도다
 壯節能如山嶽重 壯節은 늠름하여 산악처럼 높고
 丹心炳與日星休 一片丹心은 해와 별처럼 빛나도다
 行人嗟歎當時事 지나는이 당시의 일을 슬피 탄식하니
 善竹橋邊血跡留 善竹橋 다릿가에 혈적이 뚜렷하네

住所 光州光域市 北區 豐鄉洞 605-9
 雅號 德山 姓名 金 澤洙



次上

血痕鮮見竹橋頭 血痕은 善竹橋에 뚜렷이 나타나고
 圃老遺芳幾歲流 圃隱선생 꽃다움은 몇해나 지났는고
 大節已揚名載史 大節을 휘날리어 청사에 오르셨고
 丹歌欲頌士登樓 丹心歌 부르시어 선비루에 오르셨네
 擎天義氣生前偉 하늘 뚫는 義氣는 생전의 위업이요
 貫日忠心死後休 해를 뚫는 忠心은 사후에도 아름답다
 志操也同松柏秀 志操는 한결같아 松柏같이 빼어나고
 慕賢湄畔感懷留 慕賢땅 무덤가에 感懷가 머무네

住所 釜山市 金井區 久瑞洞 롯데 A 1302-303
 雅號 榮山 姓名 李 在教



次下

圃隱義死竹橋頭 圃隱선생 善竹橋에서 義死하신지
 六百星霜夢裏流 六百星霜이 꿈속에 흘렀도다
 深奧忠誠千仞海 심오한 忠誠은 천 길 같이 깊고
 崇高道德萬層樓 승고한 道德은 萬層의 樓같도라
 事君盡命無雙赫 盡命事君하시니 赫赫하고 無雙하며
 爲國投身第一休 投身爲國하시니 아름다움이 제일이라
 貫日丹心終殉節 오로지 一片丹心 마침내 殉節하시니
 芳名不朽史書留 不朽의 芳名은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住所 江原道 橫城郡 公根面 公根里 350
 雅號 樂山 姓名 鄭 秉瑜



次下

先生寃逝竹橋頭 선생께서 선죽교에 원통하게 돌아가시니
 松嶽遺風萬古流 송악에 남긴 遺風 만고에 흐릅니다
 偉業高揚名錄史 偉績이 높이 드날리니 高名이 청사에 빛나고
 丹歌愛唱客登樓 丹心歌 애찬하며 客들은 樓에 오르네
 擎天義血無窮赫 擎天 義로운 鮮血은 무궁토록 빛나고
 貫日忠心不盡休 貫日 충성의 마음은 끝없이 아름답도라
 大節煌煌千載下 대절은 煌煌하게 천년을 내려오는데
 京鄉後學慕賢留 京鄉의 후학들이 선생을 사모하여 머무네

住所 釜山市 東萊區 安樂2洞 472-57 SK아파트 113-606
 雅號 仁堂 姓名 金 在性



次下

圃翁深寃善橋頭 포은선생 선죽교에 깊은 원한 남기시어
 日月爭光義血流 日月이 爭光하는 義血의 피가 흘렀도다
 向主丹心千丈嶽 임금향한 일편단심 천길 높은 피와 같고
 捨身大節百層樓 몸 바친 대절은 백층 樓와 같도다
 人亡世遠長餘馥 사람은 가고 세상은 멀어도 향기는 길이 남아있고
 海渴山崩不息休 바다가 마르고 산이 무너져도 아름다움 쉬지 않네
 天動地悲忠烈史 하늘도 서러워하고 땅도 슬퍼하는 충절의 역사여
 吾儕腦裏永年留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머무르리라

住所 大邱市 達城郡 河濱面 霞山里 242
 雅號 恒裕 姓名 李 德九



參榜

史稱忠義孰爲頭 역사에 으뜸인 忠義之士 누구인가
 圃隱芳名百世流 포은선생의 芳名이 백세에 흐르리라
 岳公大志惟同讚 岳飛公의 큰 뜻과 같이 찬양하고
 文相高風豈獨休 文天祥의 風度가 어찌 홀로만 아름다우랴
 景慕葵忱深似海 葵忱精誠 경모하니 깊이가 바다같고
 料看松節卓如樓 松柏節概 헤아리니 높이가 다락같네
 精貫日星能格物 精氣日星을 꿰뚫어 格物에 이르시니
 血痕不泯竹橋留 血痕은 뚜렷하게 善竹橋에 남았네

住所 慶北 榮州市 可興1洞 1480-13 영남맨션 102
 雅號 錦綱 姓名 李 昌京



參榜

圃翁盡命善橋頭 포옹께서 선죽교두에서 목숨을 다하시니
 孰不悲嘆碧血流 누가 碧血을 흘린 것을 비탄치 않으리오
 節義惟存扶社稷 節義는 사직을 붙잡는데 있었으며
 精忠只在守宮樓 精忠은 宮樓를 지킴에 있었네
 憂民教化千秋赫 憂民教化의 정신은 천추에 빛나고
 輔國經綸萬世休 나라를 위한 경륜은 만세에 아름답네
 後學傾心崇慕仰 후학들이 精誠기울여 높이 앙모하니
 功垂竹帛大名留 큰 이름과 공적이 역사에 남았네

住所 慶北 慶山市 河陽邑 琴樂里 우방2차 A 202-310
 雅號 蘇原 姓名 朴 東旭



參榜

先生令德屹橋頭 선생의 令德은 선죽교에 우뚝하고
 鮮血遺痕百世流 고운 피 끼친 흔적 백세를 흐르네
 爲國忠貞深海壑 나라위한 충정은 깊기가 海壑이요
 愛民壯志等峇樓 愛民하신 강한 뜻 峇樓와 같도다
 捨身勁節千秋赫 捨身勁節은 천추에 빛나고
 向主丹心萬古休 임 향한 일편단심은 만고에 아름다우리
 偉績彬彬垂竹帛 偉績이 빛나고 빛나 역사에 드리우니
 英靈陟降永存留 영령이 陟降하시어 영원히 계시도다

住所 서울 松坡區 可樂洞 可樂시영 A 54-507
 雅號 碧江 姓名 李 東煥



參榜

圃翁殉國竹橋頭 포은선생 선죽교두에서 순국하시니
 痛嘆遺民血淚流 통탄한 유민들이 血淚를 흘리네
 高節輝煌千載世 높은 절개는 천년의 세월에 이어지고
 芳名廣播萬家樓 芳名은 萬家樓에 널리 퍼지도다
 救邦壯志生猶盡 나라를 구하려는 壯志는 삶을 오히려 다하고
 向主丹心死未休 임금위한 丹心은 죽어도 쉬지 못하네
 大義堂堂明四海 大義는 당당하게 온 누리를 밝히고
 貞忠貫日史中留 貫日貞忠은 역사가운데 머무르네

住所 大邱市 壽城區 晚村1洞 444-33
 雅號 竹史 姓名 柳 壽洛



參榜

貞忠貫日照橋頭 貞忠이 해를 뚫어 선죽교에 비쳐주고
 松嶽悲風水共流 송악의 悲風이 물과 함께 흐르는구나
 大義堂堂彰宇宙 堂堂한 대의는 천지에 밝게 비치고
 遺光煥煥振天樓 빛나고 빛나는 遺光은 하늘에 펼쳤도다
 捨身勁節千秋赫 捨身勁節은 천추에 혁혁하고
 向主丹心萬世休 임 향한 일편단심 만세토록 아름답도다
 緬憶當時胸欲裂 당시를 생각하니 가슴이 어 질듯
 生生血跡永年留 생생한 핏자국이 영원히 머무르리라

住所 江原道 鐵原郡 葛末邑 新鐵原1里 715-1

雅號 溪岩 姓名 禹 舜根



參榜

先生碧血染橋頭 선생의 碧血이 선죽교를 물들게 했고
 正義堂堂第一流 정의는 당당하여 一流되었네
 報國丹心扶社稷 보국의 단심으로 사직을 보위했고
 事君勁志守宮樓 事君의 굳센 뜻으로 궁루를 지키셨네
 盡忠貫日千秋赫 盡忠이 貫日하니 천추에 빛나고
 大節擎天萬古休 대절이 擎天하여 만고에 아름답네
 貞似寒松山上秀 정충 寒松같아 산위에 빼어나듯
 毅然砥柱水中留 의연한 砥柱는 水中에서도 남아있네

住所 大邱市 北區 伏賢1洞 609-5

雅號 芝賢 姓名 申 鎮培



參榜

圃隱犧牲善竹頭. 포은선생님이 선죽교에서 희생되시니
烈臣血跡尙今流 烈臣께서 흘린 선혈 지금까지 흐르고 있네
令名燦爛千年史 아름다운 이름 천년역사에 찬란히 빛나고
勁節尤高百尺樓 굳은 절개 百尺樓 보다 더 드높으시네
理學闡明如聖化 性理學을 천명하심이 聖化와 같고
文章卓犖似天休 뛰어난 문장은 하늘의 道理와 같도다

捨身守義優王蠟 捨身하여 충의를 지킴은 왕축보다 낮고
貫日貞忠此地留 해를 뚫는 곧은 충심 이 땅에 머물도다

住所 蔚山市 南區 新亭5洞 154-29

雅號 中和 姓名 金 大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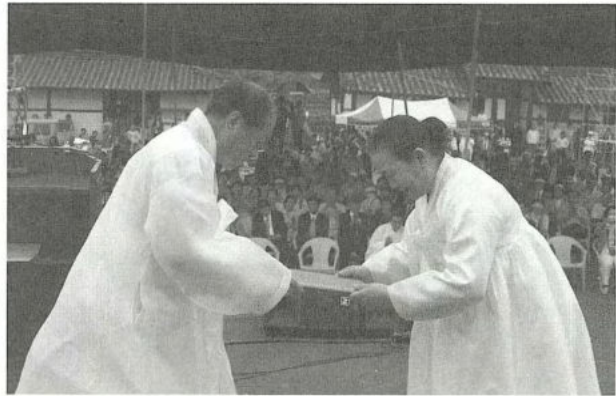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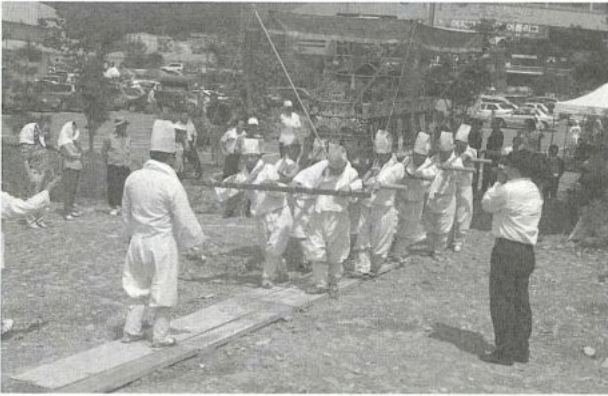
6) 제4회 포은문화제 평가서

구분	분야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 방향
행정	행사본부	-행사계획이 잘되었음	-인원배치를 주무와 보조자의 적의배치로 책임감부여가 필요함 -행사본부가 없어 통제 불가능 -행사장 이전으로 우왕좌왕 함 -행사참여자는 해마다 같은 인물임 -치밀한 계획이 없음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파악 조종기능을 살려야 함 -총체적인 분과인원배정 필요 -실무진으로 분과조직 필요(실무보조자 포함) -각 이시별 책임분담을 확실히 할 것
	행정지원		-총괄추진되지 못함 -시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 -행사장소 변경에 대한 조종과 유도 -해마다 실질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용인시의 행사가 아닌 문화원의 행사로 의미축소	-분과위에 소속시켜 적극적 협조를 기대함
행사	기념식			-타 문화제에 대한 견문실시 벤치마킹 확대 요망
	한시대회	-우천대비를 잘 하였음 -급수대, 커피 녹차제공 호평 -현장 압운으로 투명성 확보 -한시백일장안내를 잘함(홍재석외 문화원 봉사단) -차량운행(용인터미널-시행사장)	-장원급제자 복장 미착용 -응시자가 줄었음 -응시자 복장(유건도포) 미흡 -진행위원이 없음(부족)	-서원 또는 능원초교에서 하고 시상만 묘하에서 하는 방안 간구 -장원급제자 복장 준비 요망 -응시자에 대한 홍보필요 -접근성이 용인한 장소 선정 필요 -예행연습 필요
	천장행사	-전문상여꾼이 멤(유경험 어른들) -만장인원이 충분했음 -복장분류 및 개별 박스포장 양호 -행렬시 급수계획 양호	-풍덕래의 이름을 살린 천장행사의 풍덕천동 미경유 -예산부족으로 상여꾼 인건비 문제 -이벤트 재현 미흡 -새 만장 준비부족(대부분 작년것을 그대로 씀) -천장행렬 지휘자 복장 미착용 -천장용품 전시못함(우천으로 인한 문제가 큼) -기수단 개(국기, 시기, 문화원기)미준비	-천장행렬도구, 장비에 대한 설명지 배포 요망 -멀티미디어를 통한 설명 요망 -천장행사 시 상여영점 요망(문화원, 종약원 관계자) -금전 은전에 평장목 끼우기 -만장에 수수나 갈대를 이용 장막매기 -차량엠프강화, 차량꾸미기 요망 -만장, 의상(민복) 추가 확보 필요 -천장행렬지휘자 복장 착용 건의 -확실한 일당제로 할 것 -시상자에게도 일당지급 필요 -영모재 앞에서 20-30분 머물러(공연함
	고유제 추모제례	-청사초롱(대형) 미준비, 조잡 -정통제관복장과 제례악을 갖춘 엄숙한 치제 재현 -멀티비전을 이용한 생중계	-현관선정위촉(사전연락) 없음 유인물) -시장불참 -엠프 불량(소리 단절현상) -사회(당하집례)제복 불착용 -출기가 몇 군데 잘못됨 -멀티비전 설명부족	-제수 및 제관복식에 대한 설명 필요(멀티비전 또는 -종인과 모현지역에 대한 홍보 필요 -사회(당하집례)제복 착용 필요 -제관복 3벌정도 보완필요 -청사초롱 4조이상 제작 요망 -마이크점검 확실하게 할 것 -후손들의 국궁재배가 보완되기 바람
	상여대회	-구상이 잘 되었음 -심사위원 선정이 잘됨 -대회진행이 무난했음	-전력을 다하지 못함 -관중부족-정소변경문제 -내용구성이 단조로움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선정 및 홍보필요 -외나무다리, 징검다리, 코스보완 필요 -회다지놀이도 함께했으면 좋겠음 -심사규정을 미리 통고 연습시간을 확보해주시기 바람

제4회 포은문화제 평가서

행사		-관객의 반응이 호평	-돛자리, 마이크 부족	-상여늘이의 정례화 필요 -시상제도 개선필요 (상금의 현장현금 지급-뒷풀이 못해)
	진혼굿대회	-행사 봉사인원(행사보조 도우미)이 가장 많았음 -전국의 고수급이 참여함	-장소변경유감 -기독교단체의 결사반대 -장소 이전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필요 -문화원의 위상이 추락됨 -타위원회에 비해 봉사가 당연시되는 것이 안타까움(격려도 없이 고생한 보람이 없음)	-기독교계의 시비에 대한 대비필요 -제5회 포은문화제에서는 모역에서 마지막날 오전공연으로 했으면 좋겠음 -모현 모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국악경연	-계획이 잘 되었음 -장소변경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옴 -참가 학생들의 수준이 높음	-시상문제-단체상(항의) -관외지역학생 참가보세	-민요, 시조 등 같은 분야끼리 경쟁 필요 -가악경연은 격년제 시행요망 -가급적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시상은 교육장상을 주는 것이 좋음 -전국행사로 확대 요망 -결과는 좋으나 진혼제악사와 국악경연악사를 분리하여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좋겠음 -예심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기문화재단이나 관내 대학과 공동 주최도 필요 -입시가산점가능선-점차적
	초청공연		-평양예술단에 대한 투자의 적정의 의문 제기 -공연행사분과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함 -공연수준이 낮은 편임	-가급적 지역단체나 인물초청요망 -비용절감방안 강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문적인 공연이 필요함 -다소 공연이 미흡함이 있으며 다음에는 검증된 단체공연을 요함
	시상, 공연		-장소변경의 영향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함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 -행사분과의 하나로 사전 진행계획을 세워야 함
	홍보	-행사팸플렛의 편리성 간편성이 좋음	-모현면에 대한 홍보 부족 (이장, 부녀회장 등에 대한 초청장 없음) -왕산리일대에 홍보물 없음 -불법광고물 단속반에서 무단 철거(고엽제 전우회) -대형걸개 그림이 너무 작다	-홍보에 적극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많은 참가유도요망 -모현 관내이장, 부녀회장 및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지원	교통안내	-백일장 장소변경 안내판 설치	-진입로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문제 -안내 현수막이 없음 -자율방범대 협조 없음	-우천등의 상황변경시 현수막 등 대형 안내판 필요
	전시안내	-배너광고판 제작	-장소이전으로 인한 홍보부족	-리플렛제작, 홈페이지 등재 -각급학교와 연계 수행평가 등에 반영토록 함
	후생		-보건소 협조 없음	-의료반 운영필요 -각급학교와 연계 수행평가 등에 반영토록 함
	차량운행	-행사인원 동원용 버스운행	-참가인원을 위한 연계교통(셔틀버스) 없음	-행사장소의 변경이나 버스운행 필요
	내빈접대	-한시백일장안내를 잘함		-적재적소에 대한 배치로 봉사단의 활용극대화 도모





2005년 제3회 포은문화제

1) 행사개요

- 행사명 : 제3회 포은문화제
- 주제 : 포은선생의 충절, 학문, 사상으로 도덕성회복
- 기간 : 2005년 5월 26일 - 5월 28일 (3일간)
- 장소 :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묘역일원
- 주최 : 용인문화원
- 주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 후원 : 용인시, 영일정씨포은공파 종약원
- 협찬 : 성균관, 용인시교육청, 강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 송담대학, 3군사령부, 한국민속촌, 용인예총, 용인민예총, 할미성대동굿보존회, 경기케이블네트워크, 용인신문, 용인시민신문, 사단법인정제연구원, 덕유평류원

2) 행사내용

- 전야제행사 - 산신제, 고유제 및 대동놀이, 천장행렬 및 길놀이, 전야공연
- 본행사 - 포은제 및 기념식, 식후공연
- 부대행사 - 한시백일장, 학생글짓기, 용인시민휘호대회, 민속공연 등

3)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성명	직책	현직	주소	연락처
이종민	추진위원장	문화원 부원장	마평동731-2	011-230-6256
한봉기	위원	"	김량장동 296-39	017-207-3547
심재선	"	"	마평동 534	011-716-3583
이강수	"	문화원 이사	김량장동 335-2 유장맨션 1/401	335-4541
이형열	"	무형문화재56호	포곡면유운리 84-2	011-9077-5222
정인삼	"	민속촌농악단장	기흥읍 보라리 107	285-9981
홍순석	"	강남대 교수	마평동	011-721-7970
이오규	"	용인대 교수	기흥읍 상갈리 대우A109-704	011-304-2592
정춘영	"	문화원 이사	모현면 일산리 173	011-9916-6248
김장호	"	"	이동면 천리 285	019-433-7574
이건영	"	시의원	모현면 갈담리 548-3	011-276-8628
조병태	"	문광과담당관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시청	016-370-4303
정연석	"	종약원 이사	서울 동대문 용우동 234-1 포은회관	011-215-6519
박환신	"	문화원 이사	기흥읍 구갈리 신한A 605/201	011-325-4826
조길생	"	문화원 감사	모현면 능원리 153-1	011-479-4640
정연철	"	영일정씨 문중	모현면 능원리 225	32-0813
이두성	"	민예총회장	구성읍	011-644-1719
유성관	"	할미성대동굿회장	마평동 미래아트빌라 A-202	011-345-5427
양정석	"	시사편찬위원	김량장동 시청	011-721-7970
김종규	"	문화원 사무국장	김량장동 133-61	018-335-2267
정양화	"	향토문화연구소장	김량장동 미성A 1206	016-250-1504

4) 제3회 포은문화제 행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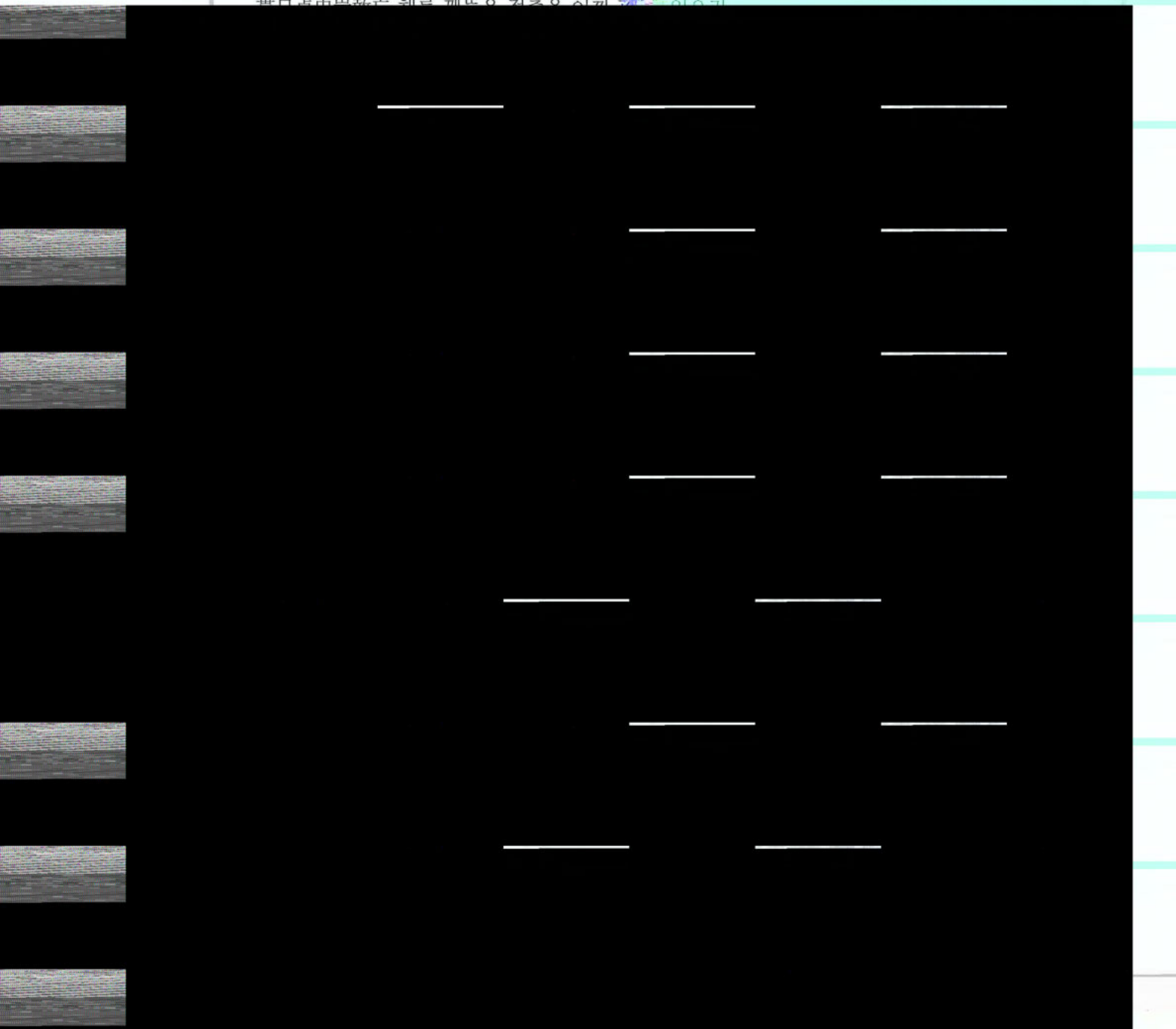
일 자	시 간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장 소	주 관
전야제 5월 26일 (목)	18:30-20:00	포은문화제기념	경기도립리듬 앙상블 초청 공연	신갈초등학교 운동장	행사분과
5월 27일 (금)	10:30-11:00	산신제, 고유제	포은문화제행사의 개막을 고하는 절차	포은선생묘역	영일정씨 종약원
	10:00-18:00	전국사진촬영대회	포은문화제 행사전반 5.27 - 5.28 (2일간)	행사장전역	사진협회
	13:00-16:00	포은선생 천장 행렬 (圃隱先生 遷葬 行列)	포은선생천장례(상여 행렬)재현 및 길놀이	용인시내 풍덕천 - 죽전 모현면 능원리 묘역	행사운영분과
	14:00-16:00	기념공연	덕유풍류원관현악단 용인가무악단 풍물공연	행사장 가설무대	공연단
	16:00-17:00	포은선생 상산제	포은선생을 최고의 상신으로 모시는 곳	행사장 가설무대	할미성대동국 보존회
5월 28일 (토)	4.15 - 5.1	학생백일장	각 학교별 공모심사	각 학교	용인교육청
	10:00-11:00	포은선생 추모제례	포은선생치제(致祭) 재현	포은선생묘역	추모제례분과
	11:00-11:30	기 념 식	기 념 식	묘역 행사장	행사본부
	11:30-13:30	전국한시대회	(시제)한심서죽 (根深善竹)	행사장	한시분과
	14:00-16:00	공연 및 시상	문화원합창단 용인민요합창단 풍물놀이 한시대회, 백일장 입상자 시상	행사장 가설무대	행사본부 공연단



5)제3회 한시백일장 입상시

壯元

松嶽名區帶夕陽 개성 송악 좋은 땅에 석양을 띠었는데
 思惟善竹恨深長 생각컨대 선죽교에 한이 깊고도 기네
 捨身勁節千秋赫 몸 바친 굳센 절개 천추에 빛나고
 向主丹心萬世芳 임 향한 일편단심 만세토록 꽃다옴네
 白骨成塵歸舊國 백골이 진토되어 옛 나라로 돌아가고
 靈魂有道樂先鄉 영혼도 도가 있으니 선향에 즐거웁네
 運移社稷終難保 운이 다하니 사직을 보전키 어려운데
 鼎足處由崇致亡 魏를 꺾든 오 건흥은 이끼 꺾는 이슬과



次上

圃隱貞忠炳似陽 포은선생 정충은 밝기가 햇빛 같아서
 死於善竹恨深長 선죽교에 순절하심 한이 깊고도 기네
 凝橋血跡千秋嘆 다리에 영긴 혈적은 천추에 비치고
 向主葵忱萬歲芳 임 향한 일편단심 만세토록 꽃다워라
 高節斑斑垂史乘 높은 절개 반반하게 역사에 드리웠고
 令名赫赫播邦鄉 영명은 혁혁하여 온 나라에 퍼졌도다
 丹心曲響如今聞 단심가 노래소리 지금도 들리는 듯
 罔僕新朝義不罔 새 왕조에 불복한 절의는 잊지 않으리

錦綱 李昌京

慶北 榮州市 可興1洞 1480-13 영남맨션 102호



次下

善竹橋頭肇夏陽 선죽교두 초여름 별에
 追思圃隱感懷長 포은선생 생각하니 감회가 크도다
 精忠赫赫衝天屹 정충은 혁혁하여 하늘같이 우뚝하고
 大義堂堂貫日芳 대의는 당당하여 햇빛같이 꽃다옴네
 被禍成仁惟衛國 살신성인 하시니 오직 나라를 보위함이요
 捐生殉節益光鄉 사생순절하시니 더욱 고향을 빛내셨네
 麗朝未復身先死 고려조를 지키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시니
 逝後千秋恨不忘 가신 뒤에 천추의 한을 잊을 수 없네

栗園 金石煥

蔚山市 中區 校洞 244-3



次下

恨深善竹向崇陽 한 깊은 선죽교는 승양을 향하고
 流水橋頭不變長 물 흐르는 다리는 변함이 없구나
 烈烈丹心眞勁節 열열한 단심은 참으로 경절이요
 堂堂碧血尙遺芳 당당한 벽혈은 언제나 유방하네
 淸風百世慕賢里 청풍은 백세토록 모현촌이요
 降魄千秋陵院鄉 영혼은 천추토록 능원향일세
 卓彼先生忠與義 선생의 높은신 충과 의를
 後儒仰止永無忘 후생이 우러러 길이 잊지 못하네

正齋 朴燦均
 江陵市 邱井面 金光里



次下

恨深善竹幾春陽 선죽교의 깊은 한이 몇 세월을 지났는고
 緬憶當時感淚長 당시를 추억하니 감회의 눈물이 한이없네
 向主丹心千歲赫 임 향한 일편단심 천세에 혁혁하고
 捨身壯志萬秋芳 몸 바치신 큰 뜻은 만고에 향기롭네
 文章耀耀崇松嶽 문장이 요요하니 송악에서 가장 높으셨고
 節義堂堂振國鄉 저이는 당당하여 온 나랑 떨치셨네
 一貫忠情終不變 충정으로 일관하여 끝내 변치 않으시니
 宗師剛毅永難忘 선생의 굳센 정의 영원히 잊을 수 없네

박용순
 京畿 龍仁市 駒城邑 寶亭里 竹峴마을 현대 아이파크 1차 213-902



6) 제3회 학생백일장대회 최우수작품

제목 :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충신 정몽주

마성초등학교 4학년2반 이원경

저는 솔직히 정몽주란 분을 잘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학교에서 아직은 배운적이 없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인전을 찾아 보았더니 고려말기의 학자이며 충신이고 호는 포은이고 유교를 깊이 연구하신 분이라고 간단히 나와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알려고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세하게 많은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1337년에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난 정몽주는 어렸을적 아명이 몽란 몽룡이었고 호는 포은이래요 “몽룡”은 춘향전에 나오는 이 몽룡이 떠올라서 친근감이 조금 느껴졌어요

1360년 공민왕때 문과에 급제하고 동북면도 지휘사의 종사관으로 여진족 토벌에 참가하고 성균관 박사도 겸임하셨대요

조선시대의 주자학자들은 학국 유학의 원류를 밝히면서 그를 비조로 꼽았고 더 주목할 것은 외교적인 면에서 그가 이룩한 업적인데 고려 조정에서 그를 여러차례 외교 사절로 파견하여 교섭을 벌였는데 그는 명나라와 일본 두나라를 드나들며 이들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데 공헌 하셨대요

그 수완이 워낙 뛰어나 고려말기 정치 활동가로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정말 정몽주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팔방미인이신 것 같아요

또 정몽주는 배명 친원의 외교 방침을 반대하다 언양에 유배되었고 왜구에 잡혀간 고려 백성 수백 명을 귀국 시키기도 하셨어요

1380년 이성계의 휘하에서 외구토벌에 참전 하였고 고려의 부패가 극도에 이르자 정몽주는 이성계의 반대편에 섰던 충신이지만 이성계는 정몽주가 너무 아까워 자신의 아들 이방원을 시켜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직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읊었던 시가 그 유명한 “단심가”이고 그에 대항하여 이방원이 읊었던 시가 하여가 래요

이성계가 새나라 조선을 건국하려 했을때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을때 정몽주는 이 기회에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눈치 챈 방원이 이성계를 그날 밤중에 개성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대요

정세를 살피기도 할 겸 정몽주는 그의 사저로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병문안을 마치고 방원과 마주 앉게 되었는데 방원은 정몽주의 속마음을 떠 보기 위해 시조 한수를 뽑았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느리고저”

후세에 널리 알려진 “하여가”였대요

다 썩어져가는 고려 왕실만 붙들기 위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칙 덩굴처럼 얽혀서 사이 좋게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인데 정몽주는 노래를 듣고 좋은시라고 칭찬한 다음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고 읊어 화답을 했대요
 만고의 충절 포은은 “단심가”를 통하여 고려조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신 거죠.
 방원에게는 시조가 아니라 자기를 나무라는 호령처럼 들렸어요
 화가 난 이방원은 조영규를 시켜서 정몽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대요
 정몽주가 말을 타고 돌아가던 길에 선죽교 돌다리에서 조영규의 칼을 맞아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빨간색의 핏자국이 남아 있다고 해요
 정몽주는 죽임을 당할줄 알면서도 모친 이씨의 ‘정의를 위해 죽으라’는 말을 따르셨어요
 그분의 충성심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역적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고려와 운명을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후 조선에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그의 충성심을 기려서 그에게 ‘문충이라
 는 시호를 내렸대요. 정몽주의 재능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성계가 정몽주가 죽인일 때문에 이방원을 미워할 정도로 정몽주의 재능을 사랑했었대요
 저는 정몽주에 대한 글을 읽고 얼마전에 배운 ‘유관순’ 누나가 생각났어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그런점들이 비슷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정몽주를 조사하면서 정몽주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고 여
 러 가지 업적과 저서에는 ‘포은집’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옳은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깨끗한 자세도 꼭 우리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같은 시대에는 나라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는 개
 인적인 사회이잖아요
 조금씩 양보하고 정몽주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개인이익을 따지지 않고 고려의 한 임금에
 게 충성심을 보인점을 똑같이 닦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 조금만 닦아가려고 노력한
 다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우리 나라도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깨끗한 자세가 유행가처럼 빠르게 번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목 : 내 가슴속에 심겨진 충신

연동초등학교 5학년 5반 전예찬

“충성!”

우리 가족 중 매일 인사를 “충성!”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다. 이모부이다.
 왜냐하면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충성!”이란 인사를 들을때면 나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있다.
 한평생 나라위한 생각으로 살다가 죽어 이곳 용인땅에 묻히신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 할아버지이다.
 우리 가족은 용인 구성에 살고 있다. 동생은 놀이동산 가는 것을 좋아해 에버랜드를 자주 간다. 에
 버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모현면을 지나가게 되는데 경기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정몽주의 묘 표
 지판을 자주 보게 된다. 지난달 에버랜드에 가면서 이곳을 지날 때 동생은 “정몽주 할아버지는 좋

겠다. 에버랜드 옆에 살아서, 나도 여기서 살면 좋겠다.” 우리 가족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빠에게 정몽주가 어떤 분이신지 물어 보았다.

아빠가 말씀해 주셨다. 정몽주 할아버지는 고려시대 말기의 충신으로 꺼져가는 고려왕조를 홀로 지키며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고 고려왕조에 충성을 바친 충신이었다.

반대파의 칼날아래 개경 선죽교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사는 충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곳에 무덤이 있을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며 아빠가 들려주셨다.

개경에서 돌아가신 뒤 고향 경북 영천에 묻고자 유골을 옮겨가는 도중에 용인땅에 이르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명정이 지금의 무덤이 있는 산 중턱에 꽂혔다고 한다.

그때 어떤 지관이 나타나 하늘의 계시가 틀림없으니 이곳에 묻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고향땅에 묻히지 못하고 이곳 용인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설명을 마치고 난 뒤 아빠는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라는 단심가를 읊으셨다.

그리고 그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물으셨다. “예, 그것은 고려의 임금, 즉 나라를 위한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아빠는 대답을 잘 했다고 칭찬하셨다. 그렇다. 정몽주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이로움과 백성을 생각하는 고려의 충성스러운 신이었다.

오늘도 뉴스에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죄를 짓고 잡혀가는 보도가 무수히 많다.

아마도 정몽주의 위인전기를 읽지 않았나 보다. 나도 자라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정몽주처럼 맑고 깨끗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충신으로 말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들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정몽주는 명나라, 원나라, 일본 등 여러나라와 얽혀있는 관계속에서 현명하게 외교를 잘했다고 한다. 정몽주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어릴때부터 부모님의 바른 교육과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은 너무나 성적위주인 것 같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소홀해지는 것 같다. 군인아저씨들의 “충성!” 이라는 인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몽주의 충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에버랜드에 도착했다.

이제 즐겁게 놀이 공원에서 지낼 시간이지만 오늘은 웬지 충신 정몽주할아버지가 하루종일 생각날 것 같다. 청룡열차 속에서도 회전목마 위에서도 내가슴속에 나라위해 살다가신 충신의 마음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충신들이 태어나 살다가 묻힌 우리 용인땅이 나는 정말로 자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이 곳 용인 땅에서 정몽주 할아버지 같은 충신들을 생각하며 훗날 나라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준비할 것이다.

제목 : 충절의 정신을 이어받자!

기흥초등학교 6학년 3반 안형민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오거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쉽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나는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이다
죽음으로 고려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 주었던 정몽주이다.
정몽주는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성리학 보급에 앞장섰고 침입해오는 왜구와 여진족을 물리쳤다.
또한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강력한 설득력과 성실한 모습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구해오는 일 등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나는 이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어머니의 가르침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몽주가 어렸을 때 친구를 사귀는 바른 길을 ‘백로가’를 읊어가르쳐고, 정몽주가 입는 옷이나 관복의 안감을 붉은 빛천으로 받쳐 입혀 아들의 가슴속에 충성이라는 의미를 심어 주었다고 한다.
특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했던 모습이 더욱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랴

이 시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몽주의 ‘단심가’이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르며 함께 손을 잡고 고려를 버리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했을때 답가로 부른 노래이다.
그래서 이방원 일당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
고려는 망해가고 있고 이성계의 뜻에 따랐으면 죽음을 당하지도 않고 어찌면 더 큰 부귀영화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 점에서 충절, 지조 하면 떠오르는 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점이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
과연 나 그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수 없었을 것이다.
정몽주를 통해 다시 한 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마음이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내 방 청소와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겠다.

학식이 풍부하고 글도 뛰어나게 썼던 문인 정몽주, 고려 말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오직 한 임금을 섬기려 했던 일편단심의 상징 정몽주,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 준 충신 정몽주 역사에 살아있고 내 가슴에 살아있다.

선지교에 뿌려진 그의 피 속에서 대나무가 피었다고 해서 선죽교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 대나무의 마디 마디에 맺힌 그의 충심을 본받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가 되어야겠다.

7)제3회 포은문화제 평가서

구분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 방향
천장 행렬	-장례, 제례에 필요한 구색과 형식 그리고 의상, 상여, 제례의식 등 고증과 격식을 갖춘 거장한 천장행렬 제현이 되었다고 봄	-상여꾼 인원동원 난 점 -복식 등 세심한 고증 필요 -사전 1회 예행연습 필요 -사학자 고증이 필요(불거리제공) -민복부족, 만장은 남자가 들어야 함(여자는 보기 흉함) -행진, 건, 덕거리, 명석 등 복장구비 -천장행렬 4시간 소요시간 과다 -만장은 종약원이 전담해야 함 -만장행렬 일관성 결려 -안내부족, 만장수효(인원부족)	-자원봉사 말고 일당지급으로 전환 -복식 재구입 -상여에 바퀴나 로라 등 이동수단 부착 -만장인원 확보 -인원동원 종약원측에서 여학생만 보낸점, 상여운영건, 고증을 확실하게 하였으면 함 -시간 단축 참고, 현장 도착시간 엄수, 상여줄 차량동원 연구검토 -수지지역 생략으로 1시간 단축 -문중에 명확한 책임요청(사전확인) -불거리 만들기 연구 -엄숙하게 흥겹게 비통하게 연출되는 놀이로 전환 -행렬 고증 필요, 만장행렬
추모 제례	-시장, 문화원장헌화하고 종손이 초헌관 좋다 -대체로 많이 개선 -제기, 제복 구입 후 좋은 결과	-헌관(초헌과) 시장 참석 제고 -제례집전 인원 확보 -출열서원 참여, 청사초롱이 작아 초라해 보임 -제복안에 입는 옷 사이즈가 적어 불편 -청사초롱 다시 제작 -홍보부족, 제관부족, 비품보완(모현, 문중)	-제례는 종약원 적극 참여 유도, 제례순서 등 전수 -촛대, 망료저, 음복작 미비, 청사초롱 4개는 현재의 곱 정도로 크게 제작, 자루도 갖출 것
사진 촬영 대회	-장엄한 천장행렬의 불거리 행사에 어울려 사진촬영대회가 같이 어울려 더욱 행사가 돋보였음 -행사의 활동성이 있었음 -매년 실시하여 전국적인 홍보 의미도 크다고 생각됨	-포터라인 제한 -촬영팀 행사 진행 방해 해소	-포터라인 설정 필요 -행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홍보 마련
학생 백일 장		-학생백일장에 교육청 및 학교장 참석 미흡	-각급학교 및 교육청 산하기관 참석유도 -초등학교에서 중등부까지 확대 -뽕힌 글은 지역신문 또는 방송에 소개 -교육청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총문인협회와 협조하여 예총식구를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하였으면 좋겠음
한시 백일 장		-고시장 설치 미흡, 수송안내자 미흡, 고시롤 미흡 -급수대 필요, 장소변경, 백일장 시간이 길음. 터미널운행버스 준비 미비 -감시, 감독 필요(시험관), 유건 도포 착용, 주의사항 미비 -장원, 차상 상금 책정 조정요망 -2시간 너무 길은 것 같음 -나이 많은 추진위원이 자리를 깔고 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음	-종사원 보강,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 -유건, 도포 착용시 가산점 부여 -고시장 접수 후(답안지) 입장 불허 -고증을 거쳐 관공복장을 5명정도 입혀 감독하게 하였으면 함 -상금 조정 완화(장원 200만원) -상금을 낮추고 참여자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 -30분 단축 필요 (끝내기 30분전에는 불과 몇명 남지 않았음) -장소 이전 검토→행정타운 등

<p>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 간식, 식수, 차 준비 미흡 -식당 준비문제→모현면 부녀회에 앞으로 의뢰 곤란함 -배너가 깃발로 전화하여 장소, 시간이 게재되지 않아 홍보에 부적절하였으며 행사에 큰 도움이 안됐다고 사료됨 -사전홍보 부족 -시장 불참석→참석은 못해도 격려라도 필요함 -예산편성 문제 -신문, 방송활용 장기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 천막 개선→전문업체 의뢰 렌탈 필요 -전야제 실시 계획 -용인시, 문화원, 종약원이 활성화 -상산제는 실용적인 시민참여 행사로 전향하는 방안 강요 요함
<p>종합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은문화제 3회째에 걸쳐 보완, 개선 연구하여 거창한 천장행렬 행사와 사진촬영대회가 같이 어울려 더욱 큰 행사가 시작되어 추모제례, 한시백일장, 공연 등 끝날때까지 대체적으로 잘 되었음 -원장님과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분들이 일심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 -많은 발전이 되어 간다고 본다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준비 미흡(시나리오) -추진위별 책임미흡→추진위원 분과별로 행사 참여도 낮음, 역할을 행사별로 부여해도 전문성과 자발성이 부족하여 모든 것을 사무국에 미는 경향, 추진위원 분과별로 자진 참여하여 되풀이되는 책임전가 해소 -행사 뒷마무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은문화제 주제의 적절성과 명확성 측면 고려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 아이디어 적극적 개발 절실 -아직도 소수의 행사인 듯한느낌→보다 많은 참여로 이끌어낼 필요성 -모현면민이 전혀 모른다→장소변경 검토, 꼭 묘소만 고집할 필요없음 -찾아가는 문화제가 되자 -이사진 참석 요망 -시민의 호응도, 관심도 높은 공연물 업선 필요



2004년 제2회 포은문화제

1) 행사개요

- 행사명 : 제2회 포은문화제
- 주제 : 포은선생의 충절, 학문, 사상으로 도덕성회복
- 기간 : 2004년 6월 11일 - 13일(3일간)
- 장소 :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묘역일원과 용인시 실내체육관
- 주최 : 용인문화원
- 주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 후원 : 경기도, 용인시, 영일정씨포은공파 종약원
- 협찬 : 성균관, 용인시교육청, 강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 송담대학, 육군55사단, 한국민속촌, 용인예총, 용인민예총, 할미성대동국보존회, 경기케블네트워크, 용인신문, 용인시민신문, 사단법인 대한익스트림스포츠협회, 정제연구원, 덕유평류원

2) 행사내용

- 전야제행사
 - 산신제, 고유제 및 대동놀이, 천장행렬 및 길놀이, 전야공연
- 본행사
 - 포은제 및 기념식, 식후공연
- 부대행사
 - 학술대회, 한시백일장, 학생글짓기, 익스트림 올스타대회(6.13)

3) 포은문화제 운영위원회

대회장	홍재구(용인문화원장)
자문위원회	손학규(경기도지사), 이정문(용인시장), 이우현(시의회의장), 김인환(교육장) 이재영(경찰서장), 정영재(충열서원 원장) 윤신일(강남대총장), 선우중호(명지대총장), (송담대총장) 안병만(한국외국어대총장), 이종선(경기도박물관장), 최근동(성균관장), 정의철(영일정씨종약원장)
추진위원회	이종민(부원장), 한봉기(부원장), 심재선(부원장), 이건영(시의원),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형열, 이강수, 이오규, 정인삼, 홍순석, 이훈구, 정연석, 이두성, 유성관, 김장호, 양정석, 김종규, 정양화, 박환신, 조길생, 정춘영

4)제2회 포은문화제 행사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장 소	주 관
6월 11일 (금)	10:30-11:00	산신제, 고유제	포은문화제 행사의 개막을 고하는 절차	포은선생묘역	영일정씨 종약원
	10:00-13:30	전국학술대회	(주제)포은선생의 사상과 학문(2)	용인문예회관	학술분과
	12:00-16:00	포은선생 천장 행렬 (圃隱先生 遷葬 行列)	포은선생천장례(상여 행렬)재현 및 길놀이	공설운동장→ 통일공원 수지출장소→ 능원리→묘역	행사운영분과
	16:00-17:00	기념공연	포은선생을 최고의 상신으로 모시는 곳	본행사장 가설무대	할미성대동국 보존회
	14:00-16:00	공연	온누리예술단 용인가무악단공연 풍물놀이	행사장 가설무대	공연단
6월 12일 (토)	5.20~6.5	학생백일장대회	각 학교별 공모심사	각급학교	용인교육청
	10:00-11:00	포은선생 추모제례	포은선생치제(致祭) 재현	포은선생묘역	추모제례분과
	11:00-11:30	기 념 식	기 념 식	묘역 행사장	행사본부
	11:30-13:30	전국한시대회	(시제)천명이학(闡明理學)	묘역 행사장	문화원한시교실
	14:00-16:00	공연	문화원합창단 용인민요합창단 풍물놀이	행사장	행사본부
	16:00-16:30	시상	한시대회, 학생백일장 입상자 시상	행사장 가설무대	행사본부
6월 13일 (일)	13:00-18:00	전국 인나인 올스타전	제2회 포은문화제기념 익스트림 올스타전	용인종합운동장 주차장	대한익스트림협회

5)제2회 한시백일장 입상시

壯元

洛閩理學海東移 중국의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옮겨오니
 圃隱能承業廣施 포은선생 능히 이어 대업을 베풀셨네
 扶植綱常修道德 강상을 부식하여 도학과 덕망을 닦으시고
 宣揚禮義絃倫彝 예의를 선양하여 인륜을 뚝뚝이 펼치셨네
 開來繼往千秋樂 계왕계래하니 천추의 즐거움이요
 溫故知新萬古怡 온고지신하니 만고의 기쁨이라
 責在吾儒誠憤發 책임있는 우리선비 정성껏 분발하여
 晝宵勤勉乃相宜 밤낮으로 근면함이 이에 서로 마땅하리



住所 京畿道 龍仁市 慕賢面 日山里408-19
 雅號 志堂 姓名 鄭 榮載



次上

洛閩正脈海東移 낙민의 정맥이 해동으로 옮겨오니
 緬憶先生大德施 선생의 큰 덕 베풀심을 생각하노라
 道貫千秋垂偉訓 도를 일관하여 천추에 교훈을 드리우고
 功存百代展宗彝 공이 백대를 이어 뚝뚝함을 펼쳤도다
 忠誠事業邦家樂 충성사업은 나라가 즐거울 것이요
 孝悌精神戚族怡 효제정신은 친족을 화하게 하리라
 理學闡明誰敢及 이학을 천명하셨으니 누가 감히 미치리오
 傳承永久顯彰宜 영원토록 전승하고 현창함이 마땅하리

住所 서울 城北區 城北2洞 209-12
 雅號 南樸 姓名 丁 相豪



次上

洛閩理學海東移 낙민의 이학을 해동에 옮기시고
 圃老窮研後世施 포은선생 궁구하여 후세에 베푸셨네
 率性殫忠扶國紀 솔선해서 충성다해 나라를 붙드셨고
 存心竭孝教民彝 존심으로 효성다해 민이를 펼치셨네
 經綸可作千秋範 경륜은 가히 천추의 모범을 이루셨고
 道德能開萬歲怡 도덕은 능히 만세의 화함을 여시었네
 天命順從終不逆 천명을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았으니
 啓蒙偉業繼承宜 계몽위업을 이어감이 마땅하리라

住所 大邱市 東區 龍溪洞 1042-1 덕성빌라 402
 雅號 松坡 姓名 元 鍾淑



次下

程朱理學我東移 정주의 성리학을 우리동방에 옮기시고
 卓立儒宗教化施 우뚝한 유학의 종사되어 교화를 베푸셨네
 五部建堂昭性善 도성의 오부에 학교세워 성선을 밝히셨고
 百鄉設校教倫彝 모든 고을에 향교세워 인륜을 펼치셨네
 不興道德誰嫌愜 도덕을 일으키니 누가 혐오하리오
 培植綱常自悅怡 강상을 부식함을 스스로 기뻐하시었네
 啓後光前明大義 후생을 열고 선성을 빛내 대의를 밝히고
 豐功再闢適時宜 큰 공적 다시 천명함이 시의에 적절하네

주소 慶北 榮州市 長壽面 豆田里 112
 雅號 曙山 姓名 宋 鴻俊



次下

教弛經殘俗變移 교와 글이 쇠잔하며 풍속이 변하니
 闡明理學最先施 이학천명을 가장먼저 펼치셨네
 圃翁懿蹟千秋範 포은선생 아름다운자취 천추의 모범이요
 朱子遺文萬古彝 주자의 끼치신 글 만고의 모범이라
 勸獎忠孝扶正氣 충효를 권장하여 충효를 세우고
 挽回仁義致安怡 인의를 만회하여 화기를 이루셨네
 治平大本由於此 치국의 근본이 이에서 비롯함이니
 斯道應當振作宜 이 도를 분명히 진작함이 마땅하리라

住所 大邱市 北區 山格3洞 1239-23
 雅號 律霖 姓名 金 龍洛



次下

誰曾理學我東移 누가 일찍이 이학을 우리나라에 옮겼는가
 圃老窮研後世施 포은선생 연구하여 후세에 시행하셨네
 道德綱常爲國紀 도덕강상은 나라를 위한 기강이요
 忠孝禮義敍民彝 충효예의는 배성의 떠뎡함을 펼쳤도다
 程朱脈絡千秋慕 정주의 맥락을 천추에 사모하고
 孔孟淵源萬歲怡 공맹의 연원은 만세토록 화하리라
 百代宗師誰不仰 백대의 종사를 누가 우러르지 않으리오
 究宣性命永傳宜 성명을 궁구하여 영원히 전함이 마땅하리

住所 大邱市 壽城區 晚村1洞 메트로팔레스 205-901
 雅號 栢岡 姓名 李 奎衡



6) 제2회 학생백일장대회 최우수상 작

제목 : 충, 효에 대하여

서릉초등학교 4학년1반 풍혜정

물 맑고 공기 좋은 용인 바로 내고장이다.

어떤 모습들이 숨어있는지 매우 궁금했다. 그러던 중 복지회관에서 주최한 내 고장 탐사 행사에 참가하였다.

탐사대는 용인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남사, 이동, 원삼, 모현을 돌아보았다.

진정 조상님들의 훌륭한 일이 살아 있는 듯한 유적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편단심 충정 때문에 선죽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고려 충신 포은정몽주 선생을 알게 되었다. “충성스럽고 현명한 학자를 사모 한다”라는 뜻을 가진 모현은 포은의 장례행렬이 지나면서 갑자기 죽은 사람의 관직 성명을 기록한 영정이 현재 묘소에 떨어져 그곳에 안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선비들이 그의 충정을 기리며 죽어 용인땅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용인이다”라는 말이 생겨 났다고 한다.

이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정이 얼마나 위대하였는지를 보다 더 자세히 말해 주는 것인 것 같다.

그는 구려시대 유학자 윤관의 아들로 경상도 영천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충절은 지방관의 비행을 근절 시키고, 의창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유학을 보급했다.

또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해 사회 윤리와 도덕적 합리화를 만들어 개성에 오부학당과 지방에 향교를 세워 교육에도 힘썼다.

외교 정책과 군사 정책에도 관여하여 기울어지는 고려를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정몽주를 시기한 이방원은 사람들을 시켜 정몽주를 죽이려 하였고 결국은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끝까지 임금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다 처참히 생을 마감하였다.

정몽주가 죽고 난후 그곳에는 충절을 표시하는 대나무가 자라났으며 이로 인해 후일 선지교를 선죽교라 부르게 되었다.

탐사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선생님은 그의 시조를 큰 소리로 읊었다.

지금도 전에 읊었던 시조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목숨으로 충정을 표현하셨지만 나는 나의 위치에서 작은 일부터 노력하는 것이 그분의 정신을 이어 받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여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곧 충절의 한 부분인 “효”가 아닌 가 싶다. 특별히 이렇다. 표현은 못해도 지금 내 주위에서 생기는 일들을 배우고 느끼고 바꾸어가는 모습이 나를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생활을 바르게 지킬수 있다면 미래의 희망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몇가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들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첫째, 부모님과 어른들을 뵈 때면 항상 밝게 미소 짓는다

둘째, 동생,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셋째, 내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넷째, 오늘의 할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다섯째, 모든일은 스스로하며 약속은 꼭 지킨다.
 친구들이 너희들도 주변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와 선현들의 얼을 잊지 말고 돌아보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자 그리하여 조상들의 얼도 배우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나중엔 멋진
 일꾼이 되어 최고로 좋은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부모님꼐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보자. “친구들이”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미
 래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

제목 : 이 몸이 죽고 죽어

신갈초등학교 5학년3반 이주희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조는 정몽주 선생이 고려가 멸망할 즈음 이방원의 ‘하여가’에 맞서 답한 글로 유명한 ‘단심
 가’이다.

이 시조에도 정몽주 선생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절개가 얼마나 드높았는지 잘 알 수 있다.
 모처럼 오늘이 쉬는 날이고 또 정몽주 선생 묘가 우리가 사는 용인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과 함께
 찾아 가 보았다.

찾아간 정몽주 선생의 묘는 주위가 소나무로 둘러쌓여 있고 사방이 탁트인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선생이 순절하신 뒤 풍덕군에 묘를 썼다가 후에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천묘할 때 연
 레 행렬이 용인시 수지면 경계에 이르자 앞세웠던 명정이 바람에 날아가 지금의묘소 자리에 떨어져
 이 곳에 안장하셨다고 한다.

정말 고맙고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사는 용인시에 유명한 명소들과 인물이 많지만 정몽주 선생과 같은 우국 충정을 가진 분의 묘
 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대손손 후세에 자랑하기 충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난다.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말!

역사속에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이 효심이 지극하고 어릴적부터 총명하며 자신의 뜻과 심지
 가 굳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정몽주 선생님도 어릴때부터 총명하여 3살 때 스스로 글을 깨우쳐 쓰고 읽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

시고 3년상을 치룰 만큼 효심도 매우 깊었다.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라사랑하는 충성심도 대단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난 솔직히 겁이 많다
 그래서 이방원이 읊은 시조의 뜻을 알았을 때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몽주 선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뜻을 그대로 말했다.

그 뜻에 그 충절에 상대방도 감동을 받았지만 자기의 과욕 때문에 어쩔수없이 정몽주 선생은 ‘선죽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다.

요즘처럼 어수선한 세사에는 이 같은 위인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과거없는 현재는 없듯이 아주 오래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정몽주 선생처럼 충신들이 정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힘없이 일제 치하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넓은 나라에서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몫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몽주 선생과 여러 유명한 역사속의 인물들의 뜻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몸과 마음을 수양해야겠다.
 그래야 그 분들의 충성심이 헛되지 않을테니까 말이다.
 어쨌든 오늘은 가슴 뿌듯한 하루였다. 비록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열떨결에 찾아간 선생의 묘소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분들의 뜻을 기리며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그리고 넓게는 대한민국에서 작게는 용인에서 태어나 잠시나마 그 분의 업적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제목 : 단심가

모현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예은

우리는 가끔 교실에서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이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를때가 있다.
 그 가사에 나오는 정몽주 선생님은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일편단심’ 알듯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더니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긴 이야기로 일편단심의 뜻을 일러 주셨다.
 “고려의 왕조가 하루하루 다르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때였지. 나라 안은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고 자하는 무신들과 이성계 일파를 몰아내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 가자는 문인들로 나누어져 있었던단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자기 아버지께 정몽주를 포함하여 반대파를 모두 죽여 없애자고 주장했지만 이성계는 정몽주만은 절대로 몰아내지 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 보라고 해서 정몽주의 마음을 한 번 떠보려고 이런 시 한수를 지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들렁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까지 누리리라’
 힘들게 살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살면 큰 벼슬도 주고 할 테니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지.” ‘이몸

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이 있으랴.’

“곧 정몽주 선생님은 내가 죽어서 뼈가 가루가 된다 해도 임금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뜻의 시로
답을 하였단다. 절대로 뜻을 굽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을 안 이방원은 그날 저녁 정몽주가 선
죽교에 들어서자마자 쇠망치를 들고 달려들어 내려쳐서 말에서 떨어져 죽고 그 곳에서 파란 대나무
가 솟아났다고 해 그 돌다리 이름을 선죽교라 불렀단다.

높은 벼슬과 부귀를 누릴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다가 목숨까지 잃은 선생
님을 부를때 우리는 일편단심 정몽주란 말을 쓴단다.”

“그런데 우리 예은이 같으면 정몽주 선생님처럼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바른 줄은 알지만 전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즈음 국회의원들도 높은 벼슬을 준다면 자기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옮겨가며 마구 배신을 하는
세상을 보면 정몽주 선생님은 땅 속에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시지나 않은까 싶다.”

“우리가 사는 이 모현의 뜻도 정몽주 선생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다.”

“모현의 모(慕)는 사모하다의 뜻을 가졌으며 현(賢)은 어진사람이란 뜻으로 정몽주 선생님을 사모하
는 마을 즉 그 높은 뜻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붙여진 이름이야.”

“우리 예은이가 어렸을때 체험학습간 등잔박물관 옆에 정몽주 선생님 묘소가 있는 것 보았지 않
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새삼 모현이 자랑스럽고 정몽주 선생님의 그 뜻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살던 내가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이사 왔을때 공기는 맑지만 서울만큼 좋지 않
다고 투정까지 했던 것 같은데 모현이 그런 뜻이 깃든 고장이라니..

요즈음 세상에는 정몽주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계셔야 이 나라가 바른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
며 일편단심으로 뜻을 굽히지 않으셨던 그 지조가 존경스럽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한 임금을 섬겼던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 같다.

우리는 가끔 애국가 4절을 부를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
만”사랑하세’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나도 재미삼아 몇 모르고 그렇게 부른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모현면에 사는 사람답게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아야겠다.

그 동안 정몽주선생님의 뜻을 따라 이름까지 모현이라 지은 마을의 사람으로서 고장을 사랑하는 길
이 무엇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아무 생각도 없던 소홀했던 자신이 창피했다.

모현에 사는 사람답게 그 업적과 흔적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높은 벼슬도 마다하고 목숨을 바꾼 정몽주 선생님처럼 일편단심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세계 으뜸이 되는 나라로 길이 발전해 갈 것
으로 믿는다.

이제는 작은 일부터 학교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편단심 예은이가 되어야
지..

7)제2회 포은문화제 평가

- 도예산의 확보가 늦어져 시예산이 불안정하고 위축된 행사로 홍보기간 부족과 참가인원 저조
- 행사장에 차광막 설치로 의자에 앉아 기념식과 공연 관람은 좋은 평가
- 포은문화제 기념 인라인스케이트는 행사가 끝난 다음날 열려, 시민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보다는 선수들을 위한 시범성 행사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
- 모현면 부녀회에서 지역행사에 화합과 봉사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일이나 댓가성 큰 금액의 실비지급은 일반음식점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지적
- 행사 며칠전에 원장이 외국에 출장가는것은 행사추진 및 예산 결정에 지장 초래
- 추진위원별 역할분담으로 임무를 책정했으나 각자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천장행렬시 음료수, 식수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갈증에 많은 어려움
- 1회때 선소리꾼 최오영에 비해 분위기나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는 문중의 지적
- 학술대회 예산 일천칠백만원에 비해 참가자 부족 및 새로운 내용으로 책발간 문제성 제기
- 천장행렬 1회는 군부대 인원을 동원했지만 2회는 지원받지 못하여 개인택시, 자율방법대를 동원하는등 참가인원에 많은 문제점 발생
- 모현면 지역에서 행사에 지원해준 모현면 공무원, 모현농협, 자율방법대, 부녀회, 이장단,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 행사후 치하부족
- 행사후 예산결산과 평가가 늦어진 점



2003년 제1회 포은문화제

포은선생의 선비정신과 충절, 실천유학을 바탕으로 도덕성 회복과
21세기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바탕으로 용인지역 문화형콘텐츠 개발로
포은 사적지의 관광자원화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행사개요

- 행사명 : 포은문화제
- 주제 : 포은 선생의 충절, 학문, 사상으로 도덕성 회복
- 기간 : 2003년 6월 20일 - 6월 21일(2일간)
- 장소 :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묘역
- 주관 :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명예대회장, 대회장)
- 주최 : 용인문화원, 영일정씨 종약원
- 후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용인시
- 협찬 : 성균관, 용인강남대학교, 용인케이블네트워크, 한국민속촌

2) 행사내용

- 전야제 행사 : 6. 20 - 산신제, 고유제 및 대동놀이, 천장행열 및 길놀이, 민속공연
- 본행사 : 6. 21 - 포은제 및 기념식, 식후공연(민속공연)
- 부대행사 : 6. 20 - 6. 21 - 학술대회(6. 20), 한시백일장(6. 21), 학생글짓기(6. 21)

3) 포은문화제 추진위원회

대회장	홍재구 원장
추진위원장	이종민 부원장
행사진행사회	김장호 이사
천장행열	김장호, 정인삼, 황선인, 홍재석, 이두성
전야공연	이오규, 손대영, 최익환, 이두선, 김종국
추모제례	이형열, 정양화, 종약원
기념식	김종규, 주인자, 행사도우미 5명
한시백일장	한봉기, 박용익, 조병호, 도우미학생 20명
안내소	안내양정석, 천홍우, 최현석, 김양, 솔잎봉사회 4
식당	모현부녀회
식수, 차	솔잎봉사단 10, 이동일
교통통제	조길생, 모현면, 지서 용인 모범운전자회
식후행사	김종규, 황선인
차량 인적수송	양정석
시관관리	(장미관여관)

4)제1회 포은문화제 행사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명	행 사 내 용	장 소	주 관
6월 20일 (금)	09:00-10:00	산신제, 고유제	포은문화제 행사의 개막을 고하는 절차	포은선생묘역	영일정씨 종약원
	10:00-13:30	전국학술대회	(주제)포은선생의 사상과 학문	용인문예회관	학술분과
	10:00-15:00	포은선생 천장 행렬 (圃隱先生 遷葬 行列)	포은선생천장례(상여 행렬)재현 및 길놀이	용인시내→ 풍덕천- 죽전 모현면 능원리	행사운영분과
	16:00-17:00	포은선생산신제	포은선생을 최고의 상신으로 모시는 곳	본행사장 가설무대	할미성대동국 보존회
	18:00-20:00	기념공연	온누리예술단 두드락공연 풍물때놀이(뒷풀이)	본행사장 가설무대	공연단
6월 21일 (토)	10:00-11:00	포은선생 추모제례	포은선생치제(致祭) 재현	포은선생묘역	추모제례분과
	11:00-11:30	기 념 식	기 념 식	행사장	행사본부
	11:30-13:30	전국한시대회	(시제)추모포은정몽주선생	행사장	용인문화원한시교실
	5.26~6.10	학생백일장	각 학교별 공모심사	각학교	용인교육청
	14:00-14:30	시상	한시대회, 학생백일장 입상자 시상	행사장 가설무대	행사본부
14:30-16:00	공연	경기민요 두드락공연 풍물놀이(뒷풀이)	행사장 가설무대	공연단	

5)제1회 한시백일장 입상시

壯元

善竹橋邊血竹生 선죽교변에 血竹이 나니
 於呼忠烈感天成 오호라 忠烈이 하늘을 감동시켰도다
 經綸可比乾坤大 경륜은 가이 건곤의 큼에 비할만하고
 道德渾如日月明 도덕은 渾然히 일월과 같이 밝도다.
 扶植綱常垂偉績 綱常을 펼쳐 위대한 업적 드리우고
 宣揚禮義盡衷情 예의를 휘날려 충정을 다했도다
 先賢教化今猶在 선생님의 가르침 지금도 남아 있으니
 白戰場中士氣亨 백일장가운데 사기가 형통하도다

住所 忠南 舒川郡 韓山面 松山里
 雅號 松翰 姓名 朴 遇眞



次上

江山正氣降先生 금수강산 正氣받아 선생을 낳으시니
 不事新君大節成 不事二君 하시어 큰 절개 이루었네
 卓越文章星共耀 탁월한 문장은 별과 함께 빛나고
 精純道學火同明 깨끗한 도학은 불과 같이 밝도다
 血流善竹千秋恨 선죽교 흘린 피는 천추에 한이요
 骨葬龍仁萬古情 용인에 禮葬함은 만고의 정이로다
 若使當時無被禍 만약 그때 화를 입지 않았다면
 爲吾樂土永年亨 우리 樂土위해 영원히 형통할 것이다.

住所 서울 城北區 城北洞 209-12
 雅號 南溪 姓名 丁 相豪



次上

偉哉麗末鄭先生 크시도다 고려말 정선생이시어
 追慕儒林大會成 추모하는 선비들이 큰 모임 이루었네
 一片戀君臣道正 임금사랑하는 마음 신하의 道理 바로하고
 三年侍墓孝心明 삼년 侍墓살이 효심을 밝히었네
 綱常扶植繼賢意 도덕윤리 펼쳐감은 선현의 뜻이요
 教育振興希聖情 교육진흥 희망함은 성인의 정이로다
 若使當時能不死 만약 그때에 능히 죽지 않았다면
 可令傾國更回亨 가이 기우는 나라가 다시 형통할수 있었으리

住所 江原道 原州市 園洞 88-2
 雅號 春岡 姓名 林 鳳春



次下

孔曰爲仁孟捨生 공자는 인을 하라시고 맹자는 생을 버라고 하셨으니
 堂堂一死兩專成 당당한 한번죽음 둘을 오로지 이루었네
 胸臆正氣乾坤大 가슴에 품은 正氣 하늘과 땅처럼 크고
 膽照精忠日月明 마음속 맑은 충절 일월같이 밝도다
 國步著龜施廣德 國步에 著龜로서 넓은 덕 퍼시오니
 士林山斗仰高情 士林이 산과 같이 높은 정 우러렀네
 松陽血染橋邊竹 개성의 피로 물든 선죽교변 대나무가
 此地靈陵再活亨 용인의 신령한 묘위에 다시나서형통하네

住所 大邱市 東區 新岩4洞 680-23
 雅號 松瘞 姓名 孫 煥翼



次下

吾東挺出鄭先生 우리나라에 걸출한인물 정선생 나시었고
 一世忠君偉績成 평생을 충성으로 큰 업적 이루셨네
 善竹橋頭冤恨在 선죽교 머리에는 원통한 한 남아있고
 龍仁墓上瑞光明 용인의 墓위에는 서광이 밝도다
 堅貞守節勤王事 굳건히 節操지켜 임금의 일 도왔고
 卓越交隣救國情 탁월한 외교는 구국의정 베풀었네
 理學精修開後學 성리학 바로 닦아 후학의 길을 열고
 斯文萬古有豐亨 이 글이 만고에 있어 크게 형통하네

住所 大邱市 壽城區 晚村1洞 444-33

雅號 竹史 姓名 柳 壽洛



次下

吉地烏川圃隱生 길지 烏川땅에 포은선생 태어나서
 麗朝莅職大功成 고려조에 정사를 맡아 큰공을 이루었네
 忠心烈烈乾坤撼 열렬한 충성심은 하늘과 땅을 흔들었고
 節義堂堂日月明 당당한 절의는 해와 달같이 밝았도다.
 能熟外交伸國步 능숙한 외교는 국세를 신장시켰고
 精修正學化民情 학문을 精修하여 민정을 교화시켰도다
 龍仁墓域皇天護 용인의 묘역은 皇天이 보호하리니
 後裔千秋萬事亨 후손들 영원히 만사가 형통하리라

住所 大邱市 壽城區 泛魚4洞 93-45

雅號 育苑 姓名 金 相進



6)제1회 학생백일장대회 최우수작

제목 : 난초의 향기

한터초등학교 4학년 1반 김원영

어머니의 꿈속에서
고귀한 난초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분!

훌륭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예의와 도리를
늘 실천하며 살았던 분!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자신의 과거공부도
포기했던 효심 깊은 분!

자신의 몸보다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고
중용을 지키던 겸손했던 분!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웠을 때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임금님의 안위를
걱정했던 분!

생사를 같이했던 친구를
끝까지 믿으며
사랑으로 용서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우정을

지키려 했던 분!
온갖 회유와 협박을
묵묵히 일편단심으로
평생을 고려만을 위하여
살다 가신 정몽주!

나라를 차지하려했던
무리들의 욕심으로
그토록 소망하던
고려 중흥의 꿈을
접으셔야 했던 분!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만수산 드령침이
엷혀진들 어찌하리
우리도 이같이 엷혀져
백년까지 누리고져.’
라는 이 방원의 회유에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답했던 강직했던 분!

칠백여년이 지난
우리들의 가슴속에
아직도 난초의 그윽한
향기로 남아 계신 정몽주 선생님!

아름다운 오월
정몽주 선생님의
영전 앞에 고개 숙여
존경하는 마음을
봉헌하오며 선죽교의 난간 앞에
곧은 대나무의 모습으로
살아 계신 그분의
넋을 기립니다.

제목 : 충현의 뜻을 받들어

현초등학교 5학년 1반 정찬우

며칠전 휴일이라 우리 가족은 집에서 차를 타고 10분정도 가면 있는 능원 정몽주 선생님 묘 근처로 나들이를 가기로 하였다.

화가이신 아빠가 그림을 그릴 겸 가까이 두고도 가보지 못한 정몽주 선생님의 묘소를 찾아 볼 겸해서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우리가 도착한 곳은 등잔박물관 아래에 있는 선생님의 묘소이었다. 선생님의 묘소 뒷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묘소를 바라보시며 아빠는 정몽주 선생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정몽주 선생님이 살아 계셨던 고려 말은 몽고의 침략으로 나라가 아주 혼란했다. 혼란한 나라를 다시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만들 계획을 하였지만 고려를 위해 절개를 지키는 많은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는 이 분들에게 함께 새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정몽주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충신들이 반대했지.”

“어느 날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함께 손잡고 새 왕조를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은 “하여가”라는 시조를 노래했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많은 선생님은 목숨을 다 받쳐 고려왕조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은 “단심가”로 화답하여 결국 선생님이 새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이방원이 돌아가시는 개성 선죽교 위에서 신하를 시켜 휘두른 철퇴에 머리를 맞고 붉은 피를 흘리며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기울어져 가는 고려 왕조를 지키려 하였지만 허사였지”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별레 죽이듯 마구 빼앗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 정말 한심하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곳곳이 높은 충절을 지켜온 고려의 충신 정몽주 선생님!

5백년이 지난 지금도 선죽교에서 흘린 검붉은 핏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니 선생님의 높은 충절에 하늘도 감동하여 차마 선생님이 흘린 핏자국을 지우지 않고 후세 자손들에게 증거로 남겨 두고 싶었다 보다.

섬기던 임금님과 나라를 배반하고 새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워 편히 살기보다는 평생 충신으로 기억되는 것이 일 백번 낫다고 생각하신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택할 수가 있었을까?

또한 요즈음 정치가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금새 자신을 뜻을 굽히고 이익을 좇아서 쉽게 변심하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렇지만 나 자신 꿈공이 생각해도 나라를 위해 내 한 목숨을 바치는 일은 정말이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 생각하니 그 크신 결심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고려의 마지막 기동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선생님이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고도 비참하게 일생을 끝마쳤지만 선생님의 변함없는 충절은 언제까지나 겨레의 등불로 크게 빛날 것이다.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예전에는 부끄럽기만 했던 우리나라에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선생님과 같은 많은 선현들이 있어 그 어려움속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생각하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부르짖던 그 함성도 선생님과 같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며 목숨까지도 아끼와하지 않는 우리 민족성일꺼라 생각하니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집에 돌아온 후 선생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위 이곳 저곳을 찾았지만 아주 오래 전에 발간된 책을 찾을 뿐이었다.

요즘은 인쇄술이 좋아 좋은 책도 많은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선생님의 위인전이 왜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아쉬웠으나 다행히도 용인시에서 선생님이 그 높고 큰 뜻을 가리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후세에 전하게 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지난번 체육대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내신 우리 고장에 관한 OX퀴즈에서 “문화재 기념물 제1호는 정몽주 선생님의 묘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내용을 잘 몰라 맞추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비록 내가 선생님처럼 큰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는 꼭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더 정중한 마음으로 대문앞에 자랑스런 태극기를 달아보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자고 다짐해 본다.

그리고 선생님의 “불사이군”(한 신하가 두 임금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이라는 정신과 옳은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밀고 나갈수 있는 마음을 본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원래 이름은 쇠포면이었는데 정몽주 선생님의 묘소를 우리 고장에 모셔온 후로 충현을 사모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모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빠가 태어난 고향이고 내 고향인 모현을 더욱 사랑하고 아빠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어 충현을 사모하는 내 고장 모현을 그림으로 알리는 일에 힘쓰고 싶다.

제목 : 충성과 효도가 삶이었던 정몽주

신월초등학교 6학년 5반 김수진

요즘 뉴스를 보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서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싸우는 정치가나 단체들의 모습이 보기 안 좋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이끌 사람들이라면 자기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 가는 충성심과 효도. 우리는 그 것의 중요한 뜻을 모르고 있다. 아니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는 정몽주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충신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정몽주 선생님은 어릴적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

내가 정몽주 선생님의 효심을 깊이 느낀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동안 그 곁을 지킨 일을 알고 나서부터이다.

3년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덤을 지키던 정몽주 선생님은 어머니께 불효가 될까 슬픔을 접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다.

슬픔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을 금방 떨쳐 버리지 못하고 점점 나약해져만 간다.

하지만 정몽주 선생님은 그 넓은 마음으로 진정한 효를 행했다.

정몽주 선생님은 부모님께만 효도를 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섬기는 임금님께도 한낱 거짓없는 충성심을 바쳤다. 간신들에게 속고 있는 임금님께 바른 말을 드렸고 목숨을 바쳐 가면서까지도 나라를 위했다.

그건 단순한 충성심만은 아닐 것이다. 정몽주 선생님의 충성 속에는 사랑과 우정이 담겨 있다.

정몽주 선생님이 임금님의 귀양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과 우정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정몽주 선생님은 나라와 함께 뜨고 함께 지기를 다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단심가”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밝혔다.

한 임금만을 섬긴다는 충성스러움을 말이다. 이방원의 “하여가”는 요즘 사람들의 충성없는 마음을 나타낸 것 같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리저리 배신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말 끔찍하다.

다행히도 정몽주 선생님의 “단심가”가 있어 충성심은 새로운 별로 떠올랐다. 단심가처럼 서로에게 신뢰를 준다면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때때로 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불평을 할 때도 있었고 다른 나라가 부럽다는 생각도 했다.

자기 나라가 아무리 기울어져도 그 임금과 나라를 살리려고 애쓰고 정몽주 선생님도 있었는데 정작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다.

지금껏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면서도 정작 고통이 있을 때는 나라 탓만 하기도 한다.

어린 나에게는 아직 정몽주 선생님과 같은 용기와 효심과 충성심이 없다.

정몽주 선생님을 통해 이제야 깨우쳤을 뿐이다. 이제 행동으로 할 수 있게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충성심과 효심을 키워야겠다.

열광의 도가니였던 월드컵 때처럼 기쁨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아이엠에프 때처럼 슬픔을 이기며 말이다. 그것은 결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필요하다.

선죽교의 대나무와 핏자국은 슬프지만 나라를 위한 정몽주 선생님의 깊은 마음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우리에게 깊숙이 전해지고 있다.

나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교훈이 된 정몽주 선생님의 삶, 나는 그의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라와 국민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저 밤하늘이라면 우리 국민은 별이 되어 나라를 빛내고 아름답게 해야 한다.

밤하늘과 별이 함께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나라도 함께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 모습은 나라 사랑이 있기에 밤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답다.

제1회 포은문화제 평가

- 2003년도 문화관광부에서 포은선생이 6월의 문화인물로 지정, 국비1천만원, 도비 7천만원, 시비7천만원으로 포은문화제 시작
- 2003년 4월 추진위원회 구성(김장호 추진위원장), 분과별 추진위원회 회의 5회
- 2003년 5월 추진위원회의 여러차례 대책, 숙의를 거듭한 회의에서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전통문화축제 재현
- 경기도 양주상여 답사, 수원 장례용품 구입, 모현 능원리 행사장 확인답사, 주차장 확보, 오산 대나무 구입, 만장 문중에서 제작등
- 당일 전국 규모의 처음 행사라 주최측 관계자 긴장고조
- 홍순석 교수의 주관으로 문예회관에서 학술대회 진행
- 천장인원 3군통신단에서 80명 군인지원, 상여 발맞추기, 선소리 연습 천장준비
- 백암 가창리 최오영 선소리꾼의 선창으로 경찰선도차, 모현중 취타대, 금관조복은 이종민 추진위원장, 포도대장은 화학중대 홍재석씨, 문중이 든 오색찬란한 만장, 풍물단의 풍물소리와 함께 천장행렬 출발
→운동장에서 시내를 통과해 통일공원, 풍덕천을 지나 모현 능원리에서 행사장으로 진입→포은문화제의 하이라이트
- 행사장에는 포은선생을 최고의 상신으로 모시는 상산제 공연
- 추모제례는 인간문화재 이형렬선생의 집례로 종묘제례악에 따라 초헌관에 이정문 용인시장, 아헌관에 홍재구 문화원장, 종헌관에 포은선생 17대손인 정래정님이 헌작 재배순으로 1시간 진행
- 제례가 치러지는 동안 용인대 이오규 교수가 연출하는 무(舞)와 악(樂)이 묘아래서 선홍색 복식 악사들이 거문고 가야금을 울리며 엄숙하고 장쾌한 장례문화 재현
-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 의원, 각계 각층의 기관장님과 종친 국회의원, 문중의 인사들도 대거 참석
- 한시백일장대회는 전국 한시 유생 200명 참가 유건, 도포착용으로 응시, 시제에 맞게 압운을 넣어 칠언율시 작, 과거 급제시험을 재현하는 분위기
- 한시대회 최초 장원상에 충남 서천군 박우진님이 수상
- 한시 심사동안 문화원 합창단, 도립예술단, 가무악단, 두드락, 풍물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 학생글짓기대회는 관내 초등학교4,5,6학년 대상, 포은선생의 충절과 얼을 주제로 시와 산문, 교육청에 위임, 미리 접수·심사하여 행사 당일날 시상
- 모현면 부녀회에서 참가인원 모두 중식 제공
- 전국에서 영일정씨문중의 종인, 용인 각 읍면동지원, 충렬서원, 심곡서원 한학유생, 약3천명 참가
- 제1회 전국규모의 행사로는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 향후 발전방향 모색





2007



용인문화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문화예술원 3층

전화 : 031) 324-9600 팩스 : 031) 324-9634

이메일 : yici133@hanmail.net